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2010년 1·2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2010년 1·2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1 January 2010

① 주차_01.01-01.03

- 1. 대내 ——— 6
 - 가. 정치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 2. 대외 ——— 12
- 3. 대남 ——— 12

② 주차_01.04-01.10

- 1. 대내 ——— 16
 - 가. 정치 나. 경제
 - 다. 군사 라. 사회·문화
- 2. 대외 ——— 26
- 3. 대남 ——— 28

③ 주차_01.11-01.17

- 1. 대내 ——— 32
 - 가. 정치 나. 경제
 - 다. 군사 라. 사회·문화
- 2. 대외 ——— 39
 -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 3. 대남 ——— 45

④ 주차_01.18-01.24

- 1. 대내 ——— 48
 - 가. 정치 나. 경제
 - 다. 군사 라. 사회·문화
- 2. 대외 ——— 60
 -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 3. 대남 ——— 64

⑤ 주차_01.25-01.31

- 1. 대내 ——— 68
 - 가. 정치 나. 경제
 - 다. 군사 라. 사회·문화
- 2. 대외 ——— 79
 -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 3. 대남 ——— 86

인쇄 : 2010년 3월 발행 : 2010년 3월
발행처 : 통일연구원 발행인 :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 정재은 연구원
등록 : 제2-02361호(97.4.23) 주소 :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 두일디자인 2285-0936
(비매품)

2 February 2010

① 주차_02.01-02.05

1. 대내 ——— 90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 96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 97

② 주차_02.06-02.15

1. 대내 ——— 100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 105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 111

③ 주차_02.16-02.21

1. 대내 ——— 114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 122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 123

④ 주차_02.22-02.28

1. 대내 ——— 12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 133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 136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1.01-01.03

1월

1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김정일, 신년음악회 관람(1/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2월 30일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당·정·군 간부들과 함께 은하수관현악단의 신년경축음악회를 관람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공연관람을 마치고 “새해를 맞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 열의는 비상히 높다”며 “전당, 전군, 전민이 새해전투에서 또 다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2010년을 조국청사에 영원할 위대한 승리의 한 해로 빛내야 한다”고 밝혔다고 통신이 보도
- 공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국태·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이 동행
- 그동안에는 당·정·군 간부들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의 경우,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영일 총리, 김영춘 부위원장 순으로 소개됐으나 이번에는 김 부위원장 대신 오 부위원장을 세번째로 거명해 오 부위원장의 향후 지위와 역할이 주목됨.

● 北신년사설, 韓·美 비난 사라져(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등 3개 신문 공동사설 형태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데 근본 문제는 조미(북미)의 적대적 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북)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주장
- 특히 북한은 올해 신년사설 제목을 ‘당 창건 65돌을 맞아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 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고 작성, 추상적인 정치 구호였던 제목에 ‘경공업과 농업’, ‘인민 생활’ 등의 용어가 등장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치·군사가 아니라 경제를 내세운 것도 이례적임.

● **조선신보, 올해 남북관계서 극적 사변 예감(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일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인민이 실감하는 대변혁 일으킨다’라는 제목의 북한 신년 공동사설 해설 기사에서 “(북한)인민들은 과거 영도자의 용단에 의해 북남수뇌회담이 두번에 걸쳐 진행되게 된 경위를 잘 알고 있다”며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언급한 것은 “올해의 극적인 사변을 예감케 하는 의지 표명”이라고 밝힘.
- 신문은 “올해 공동사설의 북남관계에 대한 언급은 여느 해와 다르고, 많은 내용이 할애돼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있다”며 “2012년을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전략구상에서 민족문제가 주요한 기둥의 하나로 설정돼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강조
- 또 공동사설이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인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규정한 데 대해 “전체 인민이 탐독하는 사설에 쉽게 엮을 수 있는 구절이 아니다”라며 “민족문제와 관련한 목표도 인민들이 실감이 동반될 때 비로소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

● **평양시민 10만명, ‘공동사설’ 실천 결의대회(1/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은 2일 김일성광장에서 10만명 평양시민이 참석한 군중대회를 열고 신년 공동사설 실천 결의를 다졌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수도의 인민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각종 질 좋은 생필품이 더 많이 차례지도록 하고 알곡생산을 늘리며 축산, 양어, 과일기지의 생산능력을 높여 시민들이 하루빨리 그 덕을 보도록 하겠다”고 주장, 또 “수도의 정치사상적 진지, 계급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며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겠다”고 다짐
- 최영림 평양시당 책임비서도 보고를 통해 “인민생활 향상에 총력을 집중하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가지 소비품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생산 보장하며 발전소와 탄광부문에서는 수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전기와 석탄, 원료와 자재들을 제때 충분히 생산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
- 군중대회에는 김영일 총리,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나. 경제

● 국제사회, 2009년 北에 4천만\$ 지원(1/1, 자유아시아방송(RFA))

- 2009년 한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총액은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4천60여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보도
- 유엔 인도지원조정국 대변인은 RFA에 “2009년 한국과 유럽국가 등이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식량, 의료, 농업, 식수 개선 사업 등에 4천60여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힘. 작년 북한은 국제사회에 별도의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세계식량계획(WFP)의 긴급구호 사업, 세계보건기구(WHO)의 병원 보수 및 의료 지원 사업,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식수, 상하수도 개선 사업 등이 진행
- 그러나 2009년 지원액은 2008년의 4천800만 달러에 비하면 16% 감소했고, 지원국 또한 14개에서 10개로 줄었다고 RFA는 전언, 또한 목표액의 절반도 채 모금되지 않아 유엔 긴급구호기금(CERF)이 작년 총 대북 지원의 절반에 가까운 1천9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은 짐바브웨와 함께 긴급구호기금의 최대 수혜국이 됐다고 방송은 소개
- 국가별로는 스웨덴이 가장 많은 83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고 캐나다, 호주, 스위스,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도 많은 액수를 지원한 나라로 꼽혔다고 RFA는 보도

● 평양의 백화점, 손님으로 붐벼(1/2, 조선신보; 평양방송)

- 조선신보가 2일 평양발로 “새해를 맞으며 평양시민의 발길은 백화점을 향하고 있다”며 “백화점에서는 식료품, 일용품, 의류, 가구, 전기제품 등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새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소개, 개선문 옆 서평양백화점은 1일 오전 10시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로 만원을 이뤘다고 조선신보는 밝힘.
- 한편 평양방송은 “수도 평양의 상업 급양망들이 1일 새해 첫 봉사의 문을 열었다”며 “명절 일색으로 단장된 평양 제1백화점으로는 사람들의 물결이 그칠새 없었다”고 전언

● **북한돈 對위안 환율, 국경 암시장서 170배 폭등(1/3, 열린북한방송)**

- 화폐개혁 이후 불과 한달 사이에 북중 국경지역 암시장에서 북한 신권의 중국 위안화 대비 환율이 거의 170배로 폭등했다고 보도
- 방송은 북중 무역에 종사하는 조선족 소식통을 인용, “지난해 11월말 화폐개혁 직전 중국 돈 1위안은 북한 구권 588원(신권 5.88원 해당)과 교환됐다”면서 “그런데 12월 들어서는 1위안이 3일에 신권 50원(구권 5천원), 15일에 신권 520원(구권 5만2천원)으로 뛰더니 월말에는 1천원(구권 10만원)에 육박했다”고 밝힘.
- 2009년 11월30일 화폐개혁 직전 북한 돈 588원에 해당하던 중국 돈 1위안의 가치가 현재 신권 1천원으로 뛰었다는 것은, 외화교환시에는 100배 절상된 신권의 가치가 구권보다도 훨씬 낮다는 뜻임.
- 방송은 북한 돈의 ‘對위안’ 환율이 이처럼 폭등한 원인으로 북한 무역기관들의 무리한 연말 수입 증대와 북한의 외화사용 금지 조치를 지목, 그러나 예년의 경우 북한 무역기관들의 연말 수입 확대에 따른 암시장 환율 상승 폭이 20~30%에 그쳐, 이번 환율 폭등은 주로 외화사용 금지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분석
- 방송은 “북한 당국의 외화사용 금지 포고문은 작년 12월28일 게시됐지만 사실은 화폐개혁 직후부터 그런 소문이 나돌아 북한 돈의 (암시장)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다”면서 “외화사용 금지로 북한 내부에 달려나 위안화가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환율이 얼마나 진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

● **北백화점 TV 판매가격 1만~3만원(1/3,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이 2009년 11월 말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후 새해 들어 북한 최대규모의 ‘평양1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북한제 텔레비전 1대의 가격은 신권 1만~3만원이라고 보도
- 조선신보는 ‘백화점 가격조정 새 화폐로 장보기’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TV외에 북한제 다른 상품의 가격과 관련해 담요 1천500~3천원, 평양소주 60원, 강서약수 20원, 과자 1봉지 10~35원, 인삼크림 35원, ‘가슴띠(브래지어)’ 80~140원, 학습장 5~15원, 사발 50~60원 등이라고 전언
- 신문은 현재 1천500~3천원인 담요의 경우, 화폐개혁 이전에는 5천~7천원에 거래가 됐다고 밝혀 상품가격이 구권과 신권의 교환비율인 100대 1을 그

- 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거래가격을 현실화했음을 나타냈음.
- 또 과거에는 수출품이었던 라선시에서 생산되는 송이버섯술이 1백화점에서 120원에 판매되고 있고, 서평양백화점에서는 사과 1kg에 70원에 팔리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신문은 “대중소비품의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호화상품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올라갔다고 한다”고 전언
 - 2009년 12월22일부터 1주일 동안 440여 품종, 400만 개의 상품을 입고시킨 평양제1백화점은 새해 첫날인 1일 손님들이 몰려 애초 오전 10시인 개장시간을 앞당겨 오전 7시30분에 문을 열었으며 오전 중에만 TV 155대, 담요 550장이 각각 팔렸다면서 “이날 백화점은 발 들여놓을 자리가 없을 만큼 손님들로 흥성거렸으며 손님들이 너무 많아 오후 3시에는 한번 입장제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신문은 소개
 - 북한 중앙은행의 조성현 책임부원은 지난해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향후 상품 가격은 나라가 가격조정 조치를 취한 2002년 7월(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음.

● **北농촌, 새해 벽두부터 농사채비로 분주(1/3, 조선중앙방송; 1/2, 조선중앙TV; 노동신문)**

- 북한 농촌지역에서 새해 벽두부터 거름내기는 물론 영농물자 지원활동 등 농사채비로 분주한 모습이라고 북한 언론매체들이 보도
- 조선중앙방송은 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9년 10월 현지지도 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새해를 맞아 거름내기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하루 동안에 백 수 십에 달하는 거름을 논밭에 내갔다”고 전언
- 방송은 “아침부터 올해 공동시설 과업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방송선전차의 선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포전에서 영농전투를 지휘하는 관리일꾼들, 발동소리 높이 울리며 달리는 트랙터(트랙터)들과 거름을 싣고 부리는 농장원들로 하여 미곡별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다”고 소개
- 조선중앙TV도 2일 김 위원장이 2009년 11월 시찰한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의 유기질 비료생산과 거름내기 소식을 전언, 북한 군인들도 농촌지원에 나섰다며 “조선인민경비대 차백룡 소속 부대 군인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거름과 호미 등 영농물자들을 자동차에 싣고 평양 만경대구역 봉수농장을

- 찾았다”고 밝힘.
- 한편, 북한 내각의 김창식 농업상도 2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싣고 “모든 농장에서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겠다”고 언급

다. 사회·문화

● 北 신년맞이 표정(1/1, 조선중앙통신)

- 신년 첫날 북한 주민들은 민속놀이를 즐기고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보내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통신은 “집집마다 떡, 국수, 녹두지짐을 비롯한 민족의 향취가 풍기는 갖가지 음식들을 차려놓고 민족의 슬기가 깃든 장기, 율놀이 등 오락과 유희로 흥취를 돋구며 즐겁게 쇠고 있다”고 소개
- 평양 시내 주요 음식점들도 분주, 옥류관과 청류관을 비롯해 인민봉사총국 산하 음식점들은 꿩고기 국수, 고기쟁반국수, 메추리 요리, 칠면조 요리, 계사니(거위) 요리 등 다양한 메뉴를 내놓고 있음. 통신은 “새로 개건돼 얼마 전에 문을 연 창광음식점거리에서도 민족음식과 중국, 서양요리를 만들어 봉사하고 있다”며 “중구역, 보통강구역 등 시 안의 식당에서도 메밀농마(녹말)국수, 토장국밥, 찰떡, 설기떡, 녹두지짐 등 여러가지 특색있는 민족음식을 봉사해 명절 분위기를 이채롭게 하고 있다”고 전언
- 김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과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동상 등을 찾는 북한 주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고 통신은 보도
- 북한의 당·정·군 간부들은 1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참배했으며 김 주석의 입상 앞에는 당 중앙위, 당 중앙군사위,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명의의 화환이 놓여졌음.

● 北 휴대전화 가입자 8만명 넘어, 생활상 변화(2010년 1월호, 조국)

- 북한의 3세대(3G) 휴대전화 가입자가 8만명을 넘어서면서 특권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휴대전화가 시민들의 일상까지 서서히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조국은 ‘평양의 새 풍경, 이동 손전화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휴대전화 보급에 따른 북한의 변화상을 자세히 소개
- 잡지에 따르면 평양 중구역에 위치한 ‘이동 손전화기 판매소’에는 매일 500명

- 이상 가입신청자들이 몰려 매우 활기찬 분위기를 띠고 있으며 평양에는 현재 2곳의 손전화기 판매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에서는 통화량만큼 나중에 요금을 내지 않고 매번 선불카드를 구입해 휴대전화를 쓰고 있음.

2 대외

● 북·일 비밀접촉, 북측 제의로 성사돼(1/3, 연합뉴스)

- 2009년 여름 이후 중국 베이징(北京)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일본 민주당과 북한간 비밀접촉은 북한의 제의로 성사된 것으로 3일 알려짐. 또 북한은 이 자리에서 과거에도 제의한 이른바 ‘적군파 추방’ 문제를 타진했을 가능성이 크며, 일본인 납치문제 등 현안에 대해 양측은 입장을 조율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북수의 외교소식통은 전언
- 일본 측은 적군파 문제에 대해 ‘북한이 보호 중인 자국민 적군파 요원을 추방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한 소식통은 “북·일접촉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접촉이라기보다는 일본 민주당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아직 주요 현안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고 들었으며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일본 정부 또는 정치권에서 후속 접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그는 “현재는 북한에서 만나자고 하니 일본 민주당 측에서 그 진의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

3 대남

● 개성공단 10여개사 70만달러 임금체불(1/2, 연합뉴스)

- 개성공단 입주업체 및 건설업체 중 10여개사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개성공단에 정통한 소식통은 2일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입주업체 10곳과 현지 건설업체 3곳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총 체불임금 액수는 약 70만달러 정도”라고 설명

- 업체별 체불 임금 규모는 적게는 수백달러, 많게는 16만달러 가량이나 되며, 초기 입주업체인 S사 등 10만달러 이상 밀린 업체가 4곳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식통은 전언
- 개성공단 관계자는 “단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액 체불업체들은 큰 문제가 없으나 체불기간이 긴 일부 업체들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언
- 북측은 2009년 12월 12~22일 중국, 베트남 공단에 대한 남북 합동시찰 때 개성공단 일부 업체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정부 관계자는 “북측 공단관리 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입주업체들로부터 근로자 임금을 달러로 일괄 수령한 뒤 근로자에게 생필품 쿠폰과 현금(북한돈)을 나눠주는 식이기 때문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총국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소개
- 북한이 우리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만든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과 ‘노동세칙’에 따르면 북측은 입주 기업이 30일 이상 근로자 임금을 체불할 경우 벌금 100~2천달러 또는 영업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음.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 같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120여개 입주 업체들이 북한 근로자 4만여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남북간 합의에 따른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 임금은 57.881달러(사회보험료 제외)임.

● 북, 개성공단 실무회담 조기개최 강력 희망(1/3, 연합뉴스)

- 북한은 2009년 12월 12~22일 남북한 합동으로 진행한 중국, 베트남 공단 시찰때 개성공단 현안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의 조기 개최를 강력하게 희망했던 것으로 3일 알려짐.
-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북측은 시찰 과정에서 임금 문제, 근로자 숙소 및 출퇴근 도로 건설, 작업장 환경 개선, 3통(통행, 통관, 통신) 해결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조기에 개최하자는 뜻을 남측 시찰단에 전달
- 북측 단원들은 억류 근로자 유성진씨 석방, 통행제한 조치 해제, 해외공단 합동시찰 등 남측이 제기한 개성공단 관련 요구들을 대부분 수용한 만큼 실무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 사항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 제의가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의 정식 제의가 있으면 실무회담 개최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01.04-01.10

1월

2주차

1. 대내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김정일, 새해 첫 공개활동 희천발전소 시찰(1/4, 조선중앙통신)**
 - 2010년 1월 4일 김정일 위원장이 “희천1호 발전소 용립 언제(댐) 건설장과 희천2호발전소 언제건설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전함.
 - 김정일 위원장이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의 창조자들인 군인 건설자들을 비롯한 발전소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종전 같으면 10년 이상 걸려야 할 방대한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불과 몇 해 사이에 끝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며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전함.
 - 김정일 위원장은 또 “2012년 전으로 발전소건설을 끝내기 위해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일대 진공전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함.
 - 이날 시찰에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희 경공업부장, 장성택 행정부장, 박남기 계획재정부장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 그리고 북한군 대장 현철해 등이 수행함.

- **北… 새해 벽두 ‘새별’ 강조(1/4,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1월 2일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 관측’을 인용, “새날의 여명이 밝아오기 전까지 백두산의 하늘가에서는 온 밤 환한 보름달이 떠 시정이 기상학적으로 제일 밝은 10등급을 기록했고, 해 뜰 무렵에는 ‘새별’로 불리는 금성이 천지상공에서 유난히 밝은 빛을 뿌렸다”고 밝힘.
 - 김정은은 2009년 1월 후계자 내정 이후 그에 대한 첫 찬양가요 ‘발걸음’ 등에서 ‘김 대장’으로 지칭됐지만 생모 고영희가 살아 있던 2004년까지는 ‘새별장군’으로 불렸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 호칭을 쓰는 것으로 전해짐.

- **김정일, 정초부터 산업현장 잇따라 시찰(1/4, 조선중앙통신)**
 - 1월 4일 새벽 김 위원장이 새해 첫 공개 활동으로 북부 자강도의 희천발전소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4일 오후 6시께는 평양 이남의 황해남도 재령광산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함.

- 희천 발전소 시찰에는 노동당의 김기남 비서, 김경희 경공업부장, 장성택 행정부장, 박남기 계획재정부장과 북한군의 현철해 대장 등이 수행
 - 김정일 위원장이 재령광산 현지도에서 광산의 노동계급이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 현대적인 광산으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으며, “철광석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채굴 및 운반설비들에 대한 설비관리를 잘하고 정비보수를 정상화하여 그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의 재령광산 시찰에는 김기남 비서와 김경희, 장성택 부장이 수행
- 北…김정은 생일 ‘국가기념일 지정설’(1/5, NK지식인연대; 1/8, 데일리NK)
-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 아들 김정은의 생일(1월8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
 - ‘NK지식인연대’는 1월 5일 ‘현지 통신원’을 인용한 자체 홈페이지 글에서 “지난 2일 초급 당비서 이상 당일꾼 협의회가 모든 단위에서 진행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정은 동지의 탄생일을 뜻 깊게 기념할데 대하여라’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지시문이 하달됐다”고 밝힘.
 - 이 단체는 또 “지시문은 1월8일을 ‘영원한 우리 미래’ 김정은의 탄생일로 공식화하고, 김정은에 대해 ‘백두의 혈통을 완전무결하게 이어받은 또 한분의 지도자’라고 강조했다”면서 “김정은의 위대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탁월한 영도력에 대한 학습과 강연을 조직하고, 김정은의 생일에 ‘발걸음’(김정은 찬양 가요) 합창을 시작으로 ‘충성의 노래모임’을 열도록 각급 당조직에 지시했다”고 전함.
 - 그러나 통일부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들은 8일에도 평소와 똑같이 출근했고, 판문점의 북측 연락관들도 정상근무를 함.
 -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북한의 언론들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김정은 생일의 민족최대명절 지정이나 충성다짐 행사에 관한 보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
- 김정일, 새해 들어 첫 군부대 시찰 (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위원장의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탱크)사단’ 관하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 시찰을 보도함.

-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은 한국 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입성한 전차 부대로, 북한은 1960년 김일성 주석과 김 위원장이 이 사단을 방문한 8월 25일을 ‘선군혁명 영도 개시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음.
-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 시찰에서 부대의 교양실, 침실, 식당, 부식물창고 등을 돌아본 뒤 탱크 훈련모습을 참관했으며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중앙통신이 전언
- 이번 군부대 시찰에는 북한군의 현철해 대장 등 지휘간부들이 수행

● 北 박기서 전 평양방어사령관 사망(1/6, 조선중앙방송)

- 북한군 차수인 박기서 전 평양방어사령관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6일 전함.
- 이 방송은 “김정일 동지께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차수 박기서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5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밝힘.
- 1929년생으로 알려진 박기서 차수는 제820전차군단장을 거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평양방어사령관을 맡았고, 1982년 제7기를 시작으로 2003년까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국회의원 격)을 지냈음.

● 김정일, 레성강 발전소 건설현장 시찰(1/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위원장이 마무리 단계인 레성강 청년2호발전소 건설현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공사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본 뒤 “레성강 청년2호 발전소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며,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 없게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면서 “모든 전선에서 대진공전을 과감히 벌려 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세기적인 위업을 이룩하자”고 말했다고 보도함.
- 이번 현지지도에는 최룡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 집무 건물에 위성안테나 11개(1/7, 교도통신)

- 김정일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에 적어도 11개의 위성 안테나가 세워져

- 있다고 교도통신이 캐나다의 중국어 군사전문지 ‘칸와디펜스리뷰(漢和防務評論)’ 1월호를 인용, 1월 7일 보도
- 칸와디펜스리뷰는 평양역 북쪽에 위치한 김정일 위원장의 85호 집무실이 있는 사각형 모양의 건물과 김 위원장의 의무실, 15호 관저, 노동당 중앙선전부, 기쁨조로 불리는 여성들의 가무가 공연되는 8호 연회장 등을 찍은 위성사진을 1월호에 게재함.

● **日식물학자 선물 베고니아…김정은 ‘우상화꽃’?(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8일 일본의 식물학자 가모 모도테루씨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진귀한 식물’을 선물했다고 전함.
- 북한은 1988년 2월 김정일 위원장의 46회 생일 때 우상화 꽃인 ‘김정일화(花)’(베고니아과 다년생 식물)를 처음 공개했는데, 이 꽃을 선물한 당사자가 바로 가모씨로서 김정은 생일에 맞춰 같은 베고니아를 선물한 것을 놓고 앞으로 김정은을 상징하는 ‘우상화 꽃’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김일성 주석의 경우 1965년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당시 수카르노 대통령로부터 식물학자 분트가 육종했다는 난(蘭)과 열대식물을 선물받아 ‘김일성화’로 정함.

● **김정일 “쌀밥·고깃국 유훈 관철하겠다”(1/9, 노동신문)**

-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쌀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와집’으로 요약되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며 주민생활 개선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 노동신문은 1월 9일 ‘새로운 승리에로 부르는 전투적 기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작년 현지도길에서 주민생활 개선에 대해 한 발언을 소개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사상적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군사 면에서도 강국 지위에 올라섰지만 인민생활에는 걸린 것(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며 “수령님(김일성)은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은 이어 “나는 최단기간 안에 인민생활 문제를 풀어 인민들을 남부

- 럽지 않게 잘 살도록 수령님의 유훈을 반드시 관철하고자 한다”라고 강조
-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작년 정초부터 원산과 대안, 흥남 등 경제부문을 찾은 것도 주민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
- 신문은 또 “지금 우리 당은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웅대한 구상과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김 위원장의 결심이라고 주장

● 北 김정은, 83년생 아닌 84년생(1/10,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거명되고 있는 김정은의 실제 생년월일이 지금까지 알려진 83년 1월 18일이 아닌 84년 1월 8일로 밝혀졌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0일 보도
- 북한 정권에 밝은 소식통이 김정일 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의 실제 생년월일이 84년 1월 8일이며 따라서 올해 26세라고 증언
- 신문은 김정일 위원장 역시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면서 생년월일을 1941년 2월 16일에서 1942년 2월 16일로 변경했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보도
- 이는 1912년생인 김일성 주석과 30년차가 난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김 주석이 70세였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40세가 되도록 생년월일을 1년 늦추면서 후계자로 부상했다는 것임.
- 따라서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2012년에 북한이 32년만에 당 대회를 열어 ‘강성대국의 대개막’을 선언하면서 김정은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30세 등장’을 부각하기 위해 김정은의 생년월일을 다시 82년생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전함.
-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 ‘은하수’ 관현악단의 여성보컬 노래 ‘축배를 들자’를 방송했고, 로동신문도 ‘향도의 당을 위해!’라는 제목의 ‘정론’ 말미에 “...조선의 무궁변영한 미래를 위해 축배, 축배를 들자”고 썼으나 김정은은 거명하지 않음.
-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자사가 입수한 북한군 관련 내부분견에 ‘김정은 대장동지’, ‘신성(新星) 대장군’, ‘20대 장군’ 등으로 김정은을 묘사해 그를 후계자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작업이 부각됐다고 보도함.

■ 김정일동향

- 1/4 재령광산 현지지도(1/4, 중통)
- 1/5 근위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 관하 구분대 시찰(1/5, 중방)
- 1/5 故박기서 영전에 화환 전달(1/6, 중방)
- 1/7 완공단계에 들어선 예성강청년2호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1/7, 중통)
- 1/10 평남 평원군 남산리 거주 「류남호」 할머니에게 100돌 생일상 전달(1/10, 중방)
- 1/10 새로 꾸려진 강동 약전기구공장 현지지도(1/10, 중통)

■ 기타(대내 정치)

- 「새해 공동사설」과업 관철 平南道와 자강도 군중대회, 13 평성시와 강계시에서 각각 진행 (1/4, 중통)
- 강원도, 1.4 김정일의 원산청년발전소 현지지도 기념 보고회 진행(1/5, 중방)
- ‘희천속도는 오늘의 대고조진군의 위력한 추동력’ 강조(1/6, 노동신문)

나. 경제

● 라선시 개방특구 가능성 관측(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북한 최초의 경제자유무역역지대인 라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했다고 전함.
- 정령은 “라선시를 특별시로 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라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올해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은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 활동을 적극 벌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외무역 활동을 강조함.
- 앞서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달 1991년 12월 라선시를 경제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한 이래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하고 라선대흥무역회사 등을 현지지도
- 이 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라선대흥무역회사의 수산물종합기공장, 축양장, 술기공장 등을 둘러보고 수출품 생산 및 수출실태를 파악한 뒤 “대외활동을 진공적으로 벌여 대외시장을 끊임없이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

● 北…주요 도매시장 잇달아 폐쇄(1/6, 좋은벗들)

- 북한 당국이 지방의 대규모 도매시장을 잇달아 폐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
- 좋은벗들은 소식지에서 “북한 당국이 작년 12월30일 내각 조치로, 올해 3월 말부터 청진 수남 시장의 운영 관리를 중지해 사실상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지난해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평안남도 평성시장과 더불어 북한의 대표적 도매시장인 수남 시장은 건설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함경북도 도당이 청진 수남구역 추목동과 청남동 사이에 조성돼 있는 시장을 허물고 현대적 감각의 공원과 살림집을 지을 계획이라고 전함.
- 좋은벗들은 “청진시 주민의 40% 이상이 수남 시장에 매달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이 폐쇄되면 그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면서 “수남 시장에서 장사하며 살아가는 세대들은 벌써부터 어떻게 벌어 먹고 살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함.
- 이 단체는 또 “추평 시장은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복잡해 사기, 강도 등 범죄도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며 “올해 1분기 폐쇄 준비에 들어가 청진시 수남 시장이 완전히 없어진 뒤 2분기에 폐쇄될 예정”이라고 덧붙임.

■ 기타(대내 경제)

- 성진제강연합기업소, 1/3 홍석형(咸北道黨 책임비서/ 보고) 등 참가下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쫓기모임 진행(1/4, 중방)
- 개성공단 최초 호텔 ‘한누리’ 3월 개장(1/7, 연합뉴스)
- 국가과학원 양어과학연구소, 우량품종의 ‘이육은붕어’ 새로 육종(1/7, 중통)
-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며 신심 드높이 앞으로’(1/9, 노동신문)

다. 군사

● 北탱크부대, 남한 공격 ‘가상훈련’, 김정일 참관(1/5,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위원장이 새해 첫 군부대 시찰로 ‘근위서울류경수제105탱크(탱크)사단’을 찾아 남한 지역 공격 상황을 상징한 가상 훈련을 지켜본 것으로 나타남.
- 조선중앙TV는 5일 김정일 위원장의 탱크사단 시찰 뉴스를 전하면서 모두

59장의 사진을 내보냈는데, 그 중 4장에 남한 지명과 고속도로 명칭, 구간 거리 등이 선명하게 쓰인 표지판 옆을 탱크가 달려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음. 구체적으로 한 사진에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부산 374km’와 ‘김해’, 다른 사진에는 ‘전라남도’와 ‘호남고속도로’, 또 다른 사진 2장에는 ‘부산’, ‘창원’, ‘삼량’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보임.

기타(대내 군사)

- 미국의 올해 『벵커 버스터』 무력증강 움직임은 “우리(北)에 대한 적대의식의 산물이며, 선제공격기도의 발로” (1/8, 노동신문)

라. 사회·문화

● 北…개성공단 상품 주민공급 예정(1/5, 좋은벗들)

-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을 주민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주장
- 좋은벗들은 소식지에서 “북한 중앙당(노동당)이 올해 1~3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한국 상품을 국영상점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주민 수요에 맞춰 국가 부담으로 국영상점을 통해 상품을 공급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전함.
- 그러나 좋은벗들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상품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개성공단 물건을 구입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北노동신문 책임주필에 김기룡 임명(1/7,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의 사장격인 ‘책임주필’에 2000년 8월 이후 조선중앙통신사 사장을 맡아온 김기룡이 임명된 것으로 7일 확인
-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새해를 맞아 지난 5일 대사관에서 북한 ‘보도부문’ 인사들을 초청해 연회를 개최한 소식을 전하면서 “김기룡 노동신문사 책임주필, 리해룡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강창림 조선중앙방송

- 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보도부문 일꾼(간부)들이 초대됐다”고 보도
- 노동신문사 기자출신인 그는 1989년 중앙통신사 사장에 임명됐다가 1996년 해임됐으나 2000년 8월 다시 중앙통신사 사장에 복귀했고 이번에 북한 제1의 선전매체인 노동신문 수장으로 자리를 옮김.
- 2007년 2월 임명된 전임 김종협 노동신문 책임주필의 거취는 확인되지 않음.

● WHO, 北에 신종플루 백신 47만 5천 명분 제공(1/7, 자유아시아방송(RFA))

-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달 중 북한에 신종플루 백신 47만 5천 명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함.
- WHO 동남아시아 사무소의 칸칭 림파카나랏 박사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달 중 북한에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선진 9개국으로부터 기부 받은 백신 47만 5천 명분을 처음 지원한다”며 “북한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먼저 접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그는 또 “약속대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백신이 잘 접종되면 예정된 2차 백신이 지원될것”이라며 “2차 지원 대상은 임산부, 5세 이하 어린이, 위험군 환자 등으로 북한 인구의 약 8%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 그는 이어 “WHO 평양사무소가 직접 배분 과정을 감시하진 않지만 북한 보건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약속된 수혜 그룹에 백신이 제공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北 월드컵 8강신화 주역들 ‘정신력’ 강조(1/7, 조선신보)

- 북한 축구팀이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것을 계기로 북한 전역에서 축구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며 1966년 잉글랜드대회 8강 신화 주인공들의 와이드 인터뷰 기사를 실었음.
-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에서 북한 축구팀이 ‘죽음의 조’라는 G조(브라질, 포르투갈, 코트디부아르)에 속한 것을 오히려 ‘환영’한다면서 북한 특유의 ‘정신력’에 의한 16강 진출에 기대감을 나타냄.

● 北…신종플루 치료제 태부족(1/8, 좋은벗들)

- 남한이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을 지원했음에도 북한에서는 치료약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짐.

- 소식지를 통해 ‘평양의 의료일꾼’ 말을 인용해 “평양에서 신종플루가 계속 퍼져 남한으로부터 지원받은 치료제를 평양의 발병 지역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면서 “지방까지 돌아갈 만큼 의약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지방에 내려간 의약품도 도당 간부 등에게 먼저 가 주민들은 아직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전함.

● **北신문 미래 위해 축배…김정은 생일 후계암시?(1/8,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이 8일 ‘향도의 당을 위해!’라는 제목의 ‘정론’ 말미에 “위대한 태양의 모습, 백두영장의 모습으로 찬란할 조선의 무궁변영한 미래를 위해 축배, 축배를 들자”라고 일종의 ‘건배사’ 제안
- 북한 당국이 아직 김정은 후계를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대신 ‘대표 언론’ 격인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의 생일을 경축하면서 권력 세습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줌.
- 노동신문 정론에는 비슷한 맥락의 문구가 여러 곳 눈에 띄며, 예컨대 “축포의 대시위는 향도의 당을 따라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밝아오고…(중략)…알게 하는 민족사적인 대경사였다”는 대목은 작년 김일성 생일(4월 15일)과 노동절(5월 1일)에 평양 대동강 유역에서 펼쳐진 ‘야회축포(불꽃놀이)’ 행사를 찬양한 것인데, 이들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당사자가 김정은으로 알려짐.
- 북한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도 이날 2면과 3면에 걸쳐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가는 주체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등의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기타(대내 사회·문화)

- 평양연극대학 청소년영화창작단, 기록영화(대를 이어 복수하리라) 제작(1/4, 중통)
- 필리핀서 침몰한 北선박서 마약 발견(1/7, VOA)
- 북, 축구·바둑 우수선수 선정(1/7, 중통)
- 주체98(2009)년 바둑 최우수선수와 감독으로 조선바둑협회 선수 ‘리광혁’과 감독 ‘리봉일’ 선정(1/7, 중통)
- 올해 첫 체육의 날을 맞으며 성·중앙기관 일꾼들의 집단달리기 개최(1/10, 중통)

2 대외

● 北김책공대 총장, 1월 말 방미 예정(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최고의 이공계 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 홍서헌 총장이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함.
-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에번스 리비어 회장은 RFA와 인터뷰에서 “현재 김책공대 홍 총장 일행의 미국 비자 발급 문제가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방문이 실현되면 이 들은 뉴욕 주의 시러큐스대학에 주로 머물 예정이며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뉴욕에서 이들과 특별한 행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
- 그는 이어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2008년 평양 공연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추진돼 온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과 관련, “북한 측은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을 원하고 있고 북한과의 이러한 교류가 미북 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직 특별한 진전 사항은 없다”고 말함.
- 미국 시러큐스대학은 2001년부터 정보기술(IT) 부문을 중심으로 김책공대와 교류해 왔으며, 두 대학 학자들은 수차례 상호 방문을 통해 공동 연구 사업을 진행했음.

● 北…태국 대사에 안성남 임명(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태국 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로 안성남이 임명됐다”고 밝혔으나 그의 약력 등은 언급하지 않았음.
- 안성남은 1996년 북한의 4자회담 대표단에 포함됐고, 1998년에는 외무성 북미국장으로서 북한의 ‘큰물피해 대책위원회’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바 있음.

● ‘담배밀수’ 北외교관 항소…보석도 기각(1/9, 미국의 소리(VOA))

- 담배 밀수 혐의로 스웨덴 법원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 부부가 항소했다고 보도
- 이들 부부는 작년 11월 러시아 담배 23만 개비를 자동차에 숨긴 채 스톡홀름에 들어갔다 밀수입 혐의로 당국에 체포

- 이들은 재판에서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스웨덴 1심 법원은 자국 주재 외교관이 아니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VOA는 전함.

● **北고려항공 5년째 유럽취항 금지(1/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고려항공이 국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2006년부터 5년째 유럽 노선에 취항이 금지됐다고 보도
- 유럽연합이 최근 발표한 취항금지 항공사 명단에 고려항공을 포함시킴에 따라 이 항공사는 올해도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 취항할 수 없게 됨.
- 유럽연합위원회 교통에너지부 공보관은 RFA에 “고려항공이 안전성 향상을 위한 뚜렷한 조치나 노력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럽연합 안정성 검사 당국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취항금지 배경을 설명

● **EU, 北 장성택·김영춘 등 제재대상 지정(1/10, 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매제이자 실세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 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을 제재대상 인물로 지정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음.
- 10일 EU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EU는 지난달 22일 브뤼셀에서 열린 환경장관회의(환경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對) 북한 제재 ‘규정(Regulation)’ 개정안을 승인
- 규정은 회원국 정부, 개인, 법인을 망라해 EU 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규범으로 국내법적 편입절차 없이 각 회원국 실정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지님.
- 대북 제재 규정 개정은 작년 7월 열린 EU 외무장관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는 별개로 EU 자체 대북 제재에 나선다는 ‘공동입장’을 채택한 후속 조치임.
- 개정된 규정에는 ▲입국·통과 금지 ▲자산 동결 ▲역내 송금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대상으로 기존의 개인 5명, 법인 8개 이외에 13명의 개인과 법인 4개가 추가됐는데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이자 실세들이 포함된 점이 주목됨.
- 추가된 13명의 개인 가운데는 장성택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이외

- 에 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김동운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 실장’, 전병호 노동당 군수비서 등이 주목됨.
- 또 영변원자력연구소, 련광무역회사 등 4개 법인이 대량파괴무기(WMD) 등에 연관된 혐의로 제재대상 법인으로 추가 지정
- 일각에서는 EU가 연말연시 휴가철에 접어든 12월22일에, 그것도 외무장관회의가 아닌 환경장관회의에 규정 개정안을 끼워넣어 ‘조용히’ 처리한 것은 제재의 강도와는 사뭇 다르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소극적 행보를 했다고 해석

기타(대외)

- 미국은 총기살인, 자살, 금융위기 등 “인권문제가 심각한 인권사각지대”(1/4, 평방)
- 방글라데시 공산당 맑스레닌주의중앙위 총비서 등, 새해 즈음 自國 주재 북한대사관 방문 (1/5, 중방)
- 北 장용철 駐네팔 대사, 1/2 駐在國 수상「마다브 꾸마르」면담(1/6, 중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태국주재 北 특명전권대사로 ‘안성남’ 임명(1/7, 중통)
- 김영일(내각총리), 1/6 再任된 로므니아 수상에게 축전(1/7, 중통)
- 일본의 과거죄행에 대한 인정과 배상은 “역사적 책임, 법적·도덕적 의무”라고 경고(1/8, 평방)
- ‘美-日 핵밀약문서’의 발견은 ‘비핵화3원칙’의 허위기만성을 드러낸 증거(1/9, 노동신문)

3 대남

● **北노동신문, 남북 당국간 대화 재차 촉구(1/8, 노동신문)**

-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한 당국에 대해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
- ‘북남관계 개선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관계를 강조한 대목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은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북남 공동선언들을 부정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남북대화의 전제로 6.15와 10.4선언의 이행을 꼽음.

- 남측의 ‘선(先) 비핵화 진전’ 요구에 대해 “핵문제를 북남관계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과 같은 행위는 본질상 북남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위기속에 몰아넣기 위한 것으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

● **北노동신문 올해 남북관계 우려(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통일부의 작년 대북정책 평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시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올해 남북관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 이날 ‘시대는 겨레를 과감한 통일진군으로 부른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얼마 전 통일부 당국자들 속에서 지난해를 ‘남북관계에서 원칙을 지킨 한해’라는 등의 평가가 나왔다”며 이것은 “남조선 당국이 올해에도 북남관계 개선을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대결로 줄달음칠 것이라는 우려를 품게 하고 있다”고 말함.
-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는 응당 결실을 봐야 한다”며 남한 당국에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비핵·개방·3000 같은 반통일대결정책을 전면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
- 노동신문은 이날 ‘민족적 화해와 협력은 통일의 선결 과제’라는 제목의 논설에서도 남북간 화해·협력을 역설하면서 “북남관계 개선을 진실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협애한 대결관념을 버리고 개별적인 주의주장이나 당리당략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그러나 이같은 입장 천명이 “우리의 선의와 이량에 동족대결책동으로 대답하는 (남측의)망동까지 묵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판”이라며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지만 우리 체제까지 헐뜯으며 대결 소동을 일으키는 호전광들에게는 절대 관용과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기타(대남)**

- MBC방송 사장 등 일괄사표 제출 관련 南 집권세력의 “비열하고 끈질긴 언론 장악 책동”이라고 주장(1/5, 평방)

- 6.15북남공동선언 발표 10돌 즈음… “전민족적 범위에서 자주통일 기운과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자고” 선동(1/6, 중통)
- ‘6.15북남공동선언은 조국통일 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1/7, 평방)
- 남 국방부장관 신년사발언…“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동족대결책동”으로 비난(1/9, 민주조선)

01.11-01.17

1월

3주차

1. 대내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김정일, 정보통신 장비공장 시찰(1/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리모델링을 마친 강동 약전기구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생산라인을 둘러본 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사업은 물론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과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모범”이라며 “이들의 훌륭한 모범을 모든 단위들에서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고 말함.
- 김 위원장은 또 “공장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공장 지도일꾼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에 맞게 생산, 기술발전, 후방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실리있게 진행한 결과”라고 평가했다고 통신이 밝힘.
- 김 위원장의 이번 현지지도에 동행한 간부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 北김정일, 군부대 양돈장 잇달아 시찰(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제534부대 산하 ‘10월7일 돼지공장(양돈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
- 이 통신은 지난 12일에도 김 위원장이 북한군 제313대연합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돼지공장을 시찰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돼지우리와 고기가공공장, 부산물가공장 등을 돌아본 후 “10월 7일 돼지공장은 군인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후방기지의 하나”라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축산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임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하루빨리 마련해주자”고 말한 것으로 통신은 밝힘.
- 이번 현지지도에는 북한군 대장인 현철해, 리명수 등 군대 지휘간부들과 노동당의 김기남 중앙위원회 비서, 김경희 경공업부장 등이 동행함.

● **北, 김정일 생일에 미국인 방북 허가(1/16, 자유아시아방송(RFA))**

-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미국인 관광객의 북한 방문이 처음으로 허용된다고 전함.
-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북한전문 '아시아태평양여행사'의 월터 키즈 대표의 말을 인용, "미국인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김 위원장의 생일 축제 기간인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북한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힘.

■ **김정일동향**

- 1/13 평양역 등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종업원들에게 「감사」 전달(1/13, 중방)
- 1/14 평양시 만경대구역 당상1동 유남호 할머니에게 100돌 생일상 전달(1/14, 중방)
- 1/15 통일애국투사 손성모의 80번째 생일상 전달(1/15, 중방)
- 1/17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훈련 참관(1/17, 중방)

■ **기타(대내 정치)**

- 재령광산 종업원들, 김락희(黃南道黨 책임비서) 등 참가下 김정일 말씀 관철 쫓기모임 진행(1/12, 중방)
- 희천발전소 건설자들, 김정일 현지지도 말씀 관철 쫓기모임 진행(1/12, 중통)
- 새해 공동사설 관철 선전화 전람회,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1/13, 중방)

나. 경제

● **北-中 민간교역, 화폐개혁 이후 '올스톱'(1/12, 연합뉴스)**

- 북한의 화폐개혁 단행 이후 북-중 간 민간 교역이 사실상 올스톱 됨.
- 12일 중국 단둥(丹東)과 연변(延邊)의 대북 무역상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1일 북한이 화폐 개혁을 전격 단행한 이후 지금까지 한 달여간 북한과의 민간 교역이 전면 중단된 상태

● **北, 외화사용 엄격 단속...사용처 제출요구(1/14,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지난해 11월 말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후 외국인에 대해서도 환전 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북한 내 외화 사용을 철저히

- 단속하고 있다고 북중 무역업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전함.
- 지난해 말 북한 라선시를 방문했던 한 무역업자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외화 사용이 금지됐고 외국인은 모두 은행 등에서 환전을 하도록 의무화함.
 - 또 환전을 위해서는 은행 등에 가서 신청용지에 이름과 소속, 여권번호 등 개인 정보와 소지한 외화 금액을 적고 전액을 북한 새 화폐로 교환해야 한다고 이 업자는 말함.
 - 귀국 시에는 재차 은행 등을 방문, 남은 북한 화폐를 모두 외화로 바꿔야 하고, 특히 이때는 어디서 식사를 하고 얼마를 지불했는지,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등 상세한 사용처를 적어 내도록 북한 당국은 요구하고 있음.

● 北, 노동정량법·농장법 등 7개 법률 제정(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노동정량법 등 7개 법률을 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을 인용해 전함.
- 이번에 만들어진 법률은 노동정량법 외에 농장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자연보호구법, 수출품원산지법, 선원법임.
- 중앙통신은 “노동정량법에는 노동정량의 제정과 적용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규제되어 있고, 농장법에는 농장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중앙통신은 또 “수출품원산지법에는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사업에서 지켜야 할 법적 요구가, 자연보호구법에는 자연보호구의 설정과 조사·관리에서 지켜야 할 법적 요구가, 상수도법과 하수도법에는 상하수도 시설의 건설과 관리 운영, 생활용수의 생산과 공급, 이용, 버림물(오수)의 처리에서 나서는 질서상의 문제들이, 선원법에는 선원의 양성과 등록, 기술자격 심사에서 나서는 원칙들이 각각 규제되어 있다”고 설명함.
- 통신은 이번 법 제정 의미에 대해 “농장사업을 개선하고 노동의 효과성을 높이며 대외경제무역을 발전시키고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면서 “또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며, 선원대열을 튼튼히 꾸려 배의 관리와 항해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구축됐다”고 덧붙임.

● 北, 황해북도 ‘신평금강명승지’ 개발(1/15, 조선신보)

- 북한이 황해북도 신평군 신평읍에서 동남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신평금강명승지’를 개발 중이라고 보도
- 조선신보는 ‘신평금강명승지’에 대해 예전부터 경치가 아름다워 사람들이 ‘작은 금강산’이라고 불려온 신평군 도화리 도화동 일대로, 마식령산맥 남부에서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은 “아호비령산줄기를 구성하는 희량산, 생왕산, 만년산을 비롯한 높은 산지의 골짜기를 따라 펼쳐져 있다”고 설명함.
-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신평금강명승지’ 개발에 착수한 이후 현재 약 5km 구간의 관광도로 노반작업이 끝난 상태고, 내년 중 탐승로, 휴식장, 전망대, 매점 등의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함.

■ 기타(대내 경제)

- 黃南, 平南, 咸南 등지의 농업근로자들, 거름생산과 흙보산비료 공급, 농기계 수리정비를 통한 새해 농사준비에 박차(1/12, 중방)
- 최근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주름방지효과를 내는 「은하수살결물, 은하수크림」 등 기능성 화장품 신규개발 생산성과 보도(1/15, 중방)

다. 군사

● 北국방위, 南 ‘급변계획’ 비난…‘성전 개시’(1/15, 조선중앙통신)

- 우리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행동 계획을 최근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북한의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보복 성전”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비난
- 북한 국방위가 1998년 최고권력기관으로 된 이후 국방위 또는 국방위 대변인 명의로 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 북한 국방위는 15일 대변인 성명에서 “보도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 공화국에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부흥’이라는 것을 완성해 놓았다고 한다”며 ““비상통치계획-부흥’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전복을 기도한 남조선 당국의 단독 반공화국 체제전복 계획”이라고 주장
- 이어 “우리 혁명의 최고 수뇌부와 사회주의 제도를 어찌해보려는 남조선 당국의 도발 계획이 완성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조건(상황)에서,

- 청와대를 포함해 이 계획 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한 남조선 당국자의 본거지를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 보복 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
- 특히 “이 성전은 우리 혁명적 무장력을 포함해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총동원되는 전민족적이고 전면적인 정의의 투쟁으로 될 것”이라고 밝혀 군사적 도발과 테러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
 - 성명은 또 “남조선 당국이 저지른 반공화국 죄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6자회담이나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남한을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임.
 - 이와 함께 성명은 “‘비상통치계획-부흥’을 꾸며낸 본산지인 남조선의 현 통일부와 국정원을 즉시 해체하고 무엄한 대결계획 작성의 주모자들을 민족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엄벌에 처하는 응분의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

● 北, 국방위 성명 주민들에겐 함구(1/16, 연합뉴스)

-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15일 남한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에 대해 ‘보복성전’을 다짐하는 등 전례 없이 강경한 대남비난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북한은 이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음.
- 북한은 15일 오후 6시8분 해외로 타전되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자비한 타격으로 반공화국 모략소굴을 송두리째 날려보낼 거족적인 성전을 개시할 것이다’는 제목의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처음 내보냄.
- 이어 30여 분 후인 이날 오후 6시44분에는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을 통해서만 성명 내용을 보도
- 이후 평양방송은 같은 날 오후 8시10분과 16일 오전 7시10분에 각각 성명 내용을 다시 방송
- 그러나 북한주민들이 청취할 수 있는 대내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물론 조선중앙TV도 이 성명 내용을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음.

● 北육해공군 ‘무력시위’…김정일 참관(1/17,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방송

이 17일 보도

- 이번 훈련 참관은 지난 15일 국방위원회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의 급변 사태 대비 계획을 비난하며 ‘보복 성전’을 거론한 후 첫 ‘무력시위’ 성격을 띠는 점에서 주목
- 김 위원장이 1991년 12월 인민군 최고사령관, 1993년 4월 국방위원장에 잇따라 오르면서 군통수권을 장악한 이래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참관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인민군의 대규모 합동훈련을 북한 언론이 소개한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
- 이번 참관에는 리용무·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각 국방위 위원 겸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국방위 위원 겸 군 총참모장, 최태복·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당중앙위 책임간부와 군부대 지휘관들, 국방공업 부문 일꾼과 노동자·기술자들, 사회 책임일꾼 등이 대거 동행
- 훈련장에서 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 지휘부 성원들과 육해공군 및 각 병종 사령관, 군 장성들이 김 위원장을 영접했다고 방송했으나, 정확한 훈련 장소와 일시는 언급하지 않음.

● 北 ‘무력시위’서 240mm 방사포 사진 공개(1/17,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켜본 가운데 진행된 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훈련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4장만 공개
- 1장뿐인 훈련 사진에는 240mm 방사포 차량 10여대가 나란히 서서 30도가량으로 발사대 각도를 세워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음.
- 나머지 김 위원장이 들어가 있는 사진들은 육해공군 및 병과별 사령관들과 함께 훈련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
- 사진에서는 김 위원장의 뒤편으로 멀리 바다가 보여 해안가 훈련장에서 항공기 공습, 함포 사격, 지상포의 사격 훈련이 입체적으로 진행됐음을 짐작하게 함.

라. 사회·문화

● 유니세프, 5년 만에 北 영양상태 조사(1/12, 미국의 소리(VOA))

-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는 지난해 9~10월 북한 주민들의 영양상

태 등을 5년 만에 대규모로 조사했으며, 오는 6월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유니세프 평양사무소의 비자야 라즈반다리 소장이 말한 것으로 VOA방송이 12일 전함.

- 작년 12월 초 부임한 라즈반다리 소장은 VOA와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유니세프 평양사무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10월20일까지 북한 내 10개 도, 300개 지역의 7천500 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종합지표 조사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라며 “일반 가정과 가임기 여성, 5살 이하 어린이 등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살펴본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6월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힘.

● **IFRC, 北 폭설 재난 징후 없어(1/12, 미국의 소리(VOA))**

- 국제구호기구인 국제적십자연맹(IFRC)이 북한에서 폭설로 인한 재난징후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VOA방송이 12일 전함.
- IFRC 동북아총괄사무소의 프랜시스 마커스 대변인은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 내의 혹독한 기상 상황에 관한 보고들은 있지만 재난 수준에 도달했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적절히 대응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또 “북한에서 겨울 폭설은 꽤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각급 지역의 적십자 위원회는 폭설에 대한 재난 대비책도 세워놓았을 것”이라고 덧붙임.
- 미 항공우주국(NASA)이 지난 8일 공개한 인공위성 사진에는 북한의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가 온통 흰색으로 보여 북한에도 폭설이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 마커스 대변인은 이어 “IFRC가 북한에서 펼치는 재난 대비·대응 활동은 각급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각 지역의 재난 위험을 판별해 대응책을 세우고, 특히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 내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결정한다”고 전함.
- 그는 IFRC의 올해 대북사업에 대해 “북한주민 800만여 명에게 계속 기초약품을 제공하고 진료소와 후송병원, 인민병원 등 각급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차별화된 약품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밖에 북한의 지역공동체들에 식수 시설과 화장실을 추가로 지어줄 계획”이라고 덧붙임.

기타(대내 사회·문화)

- 2009년 10대 최우수선수(男 레스링, 양경일 등) 및 감독(리창중, 레스링 등) 선정(1/11, 중통)
- 체육과학정보수집·연구 및 보급기지인 체육과학도서관 개관(1/12, 중통)

2 대외

가. 일반

● 北, 당국제부장에 김영일 외무성부상 임명(1/14, 조선중앙통신)

- 공식이던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에 외무성의 중국 담당 김영일 부상이 임명된 것으로 14일 확인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노동당 국제부가 주북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신년 연회를 개최한 소식을 전하면서 “김영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성남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관계부문 일꾼들이 참가했다”고 보도
- 당 국제부장은 김양건 현 국방위원회 참사 겸 당 통일전선부(통전부)장이 2007년 초 통전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최근까지 줄곧 공식으로 있던 것으로 알려짐.
- 김 신임 국제부장은 1945년생으로 평양외국어대학 불어과를 졸업했으며 1975년 당 국제부 지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 외교부(현 외무성) 부부장, 리비아와 튀니지 대사를 지내는 등 외교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임.
- 초기 경력에서 보듯이 원래 ‘아프리카통’이었으나 2000년께 외무성 중국 및 아시아 담당 부상으로 임명되고 2003년 베이징 북핵 6자회담 1차 회의에 북측 수석대표로 나선 이후 ‘중국통’으로 분류됨.

● 中, 나진항 통한 동해 진출 초읽기(1/15, 연합뉴스)

- 두만강 유역을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중국이 북한 나진항을 통한 동해 진출을 바짝 서두르고 있음.
-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는 15일 “조만간 훈춘-나진항 통로가 열리고 중국의 나진항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힘.

- 훈춘시 통상관리판공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미 북한의 승인을 얻었고 중국 중앙정부의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국무원 최종 승인까지 받게 될 것”이라며 “나진항 이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전함.
- 이에 앞서 중국 다롄(大連)의 창리(創立)그룹은 지난해 10월 북한으로부터 나진항 1호 부두 개발 및 전용권을 따내 나진항 진출 길을 열었음. 창리그룹은 나진항 부두 개발 대가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훈춘시 팡촨(防川)과 마주한 북한 함경북도 은덕군 원정리에서 나진항을 잇는 도로를 신설해주기로 북한에 약속하였으며, 이어 최근에는 훈춘시가 팡촨과 원정리를 연결하는 두만강 다리를 보수하기로 북한과 합의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지난해 12월 나선시 경제특구를 방문, 대흥무역회사 등을 현지 지도하면서 “나선시는 중요한 대외무역기지”라며 “대외시장을 끊임없이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北과학자 2명, 네덜란드서 농업박사 과정(1/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농업과학자 2명이 네덜란드 바게닝겐 대학에서 감자 재배를 전공으로 농업박사 과정을 밟는다고 RFA이 15일 전함.
- 이 대학 국제식물연구소의 마틴 용스마 박사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농업과학원의 30대 과학자 두 명이 대학에서 진행하는 박사 과정 수업을 듣는다”며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감자 신품종 개발을 위해 장기간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인데 북한 과학자들이 정규 박사 과정을 밟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힘.
- 용스마 박사는 이어 “필요한 비용은 유럽연합(EU)이 지원하는데 향후 3년간 미화 56만 달러 정도가 예산으로 책정됐다”며 “처음 1년은 네덜란드에 머물며 기본적인 박사수업을 받고, 그 후로는 북한의 토양과 환경에 맞고 병충해에도 강한 감자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북한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공동연구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中, 나진항 이어 청진항 진출 본격화(1/17, 연합뉴스)**

- 중국이 나진항 부두 사용권 확보에 이어 청진항 진출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북한을 통한 동해 루트 다각화와 대북 교역 확대에 의욕을 보임.
- 대북 소식통은 17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시는 노후한 투먼-

청진항 구간 철도를 보수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면서 “투먼시가 170km에 이르는 이 철도 보수를 위해 북한 측에 1천만 달러를 장기 차관 형식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전하면서, “오는 4월부터 보수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함.

-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정부도 지난 14일 열린 ‘창지투(長吉圖, 창춘-지린-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 전망 계획 지도소조’ 제1차 회의에서 투먼-청진항 철도 보수 계획을 공개했다고 연변 소식통들이 전함.
- 중국 다롄(大連)의 창리(創立)그룹이 지난해 10월 훈춘-나진 구간 도로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나진항 1호 부두 전용권을 확보한 데 이어 지린(吉林)성도 지난해 11월 나진항을 중계무역과 보세, 가공 수출이 가능한 국제 물류기지로 합작 개발키로 북한과 합의함으로써 중국의 나진항 진출은 이미 가시화됐지만 청진항 진출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기타(대외)

- 北외무성, 1/11 6.25전쟁 60주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회담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하는 성명 발표(1/11, 중통)
- 日 위안부제도...과거청산만이 재생의 마지막 기회 주장(1/12, 민주조선)
- 北, 미국인 여행제한 해제 검토(1/13, VOA)
- 김영남, 駐北 적도기네 대사의 離任 예방 및 담화(1/14, 중통)
- 김영남, 1/14 대지진 피해를 본 아이티공화국 대통령에게 위문전문(1/14, 중통)
- 中훈춘, 탈북자 단속 ‘국경순찰대’ 결성(1/15, 연합뉴스)
- 北 장춘근 駐인도네시아 대사, 1/11 駐在國 인민협상회의장 의례방문(1/16, 중방)
- 駐쿠바 北대사관, 1/8 쿠바 혁명승리 51돌 즈음 연회 마련(1/21, 중방)

나. 6자회담(북핵)

● 北, 정전협정당사국 평화협정회담 제의(1/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11일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힘.
- 외무성 성명은 “위임에 따라” 이같이 제의했다고 밝혀, 제안 내용이 북한 최고기구인 국방위원회 또는 최고통치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정임을

시사함.

- 성명은 ‘정전협정 당사국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작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위해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짐.
- 성명은 또 “애초에 평화협정은 핵문제와 관계없이 자체의 고유한 필요성으로부터 이미 체결 되었어야 했고, 조선반도에 일찍이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 되었더라면 핵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평화협정을 뒤로 놓고 핵문제를 먼저 논의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
- 성명은 이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공동성명에 지적된대로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조미(북미) 회담처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힘.
- 성명은 특히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 자체도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성명은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라다면 더 이상 자국의 이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함.

● 주중 북한대사, 평화협정 당사자 美·中 거론(1/12, 교도통신)

-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가 12일 북한 외무성의 전날 평화협정 회담 제안과 관련, 회담에 참여할 정전협정 당사자로 미국과 중국을 거론했다고 교도(共同) 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그는 특히 한국의 참여에 대해서는 “휴전협정에 반대해 조인하지 않고 현재도 (한국이 협정에) 반대하는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말해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함.
- 최 대사는 이날 베이징 북한대사관에서 교도통신, 로이터통신 등과 가진 이례적인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해제되고 평화협정 회담 제안이 수락되면 곧바로라도 6자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함.

● 北 유엔대사 “제재 풀리면 회담 복귀”(1/13, 연합뉴스)

- 신선희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12일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모든 제재가 풀려야만 6자회담과 평화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신 대사는 이날 AP, DPA 통신 등 일부 외신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제재는 북미 간 불신의 상징”이라면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재 조치 해제를 요구했다고 이들 외신은 전함.
- 특히 신 대사는 전날 북한 외무성이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6자회담과 병행해 평화 협정을 위한 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힘.
- 신 대사는 정전협정 당사국들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작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위해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를 거론한 바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6자회담 참여국들임.
- 신 대사는 미국이 평양의 최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 측이 대화를 위해 자리에 앉도록 설득해야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우리는 제재가 풀리면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며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회담은 모든 제재 조치들이 우선 종식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말함.
- 북한 외무성 성명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강조했을 뿐 미국의 대북 제재는 언급하지 않았었음.
- 그는 특히 “평화 협정은 올해 체결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DPA 통신은 전함.

● 北, 美에 평화회담 형식 결정 요청(1/13, 연합뉴스; 1/16 민주조선)

-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이 6자회담 틀 내에서 이뤄지든, 별개로 진행되는 형식은 미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힘.
-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12일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회담은 6자회담 내에서 혹은 그것과 별개로 열릴 수 있다”며 “우리는 미국에 평화회담 형식에 대해 결정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힘.

- 김 대사는 또 “남한 당국이 평화협정 회담을 여는 것에 동의할지 모르겠다”면서 “북한과 미국이 평화회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 북·미 간 추가 고위급 대화 추진 의사를 시사
- 김 대사는 이어 “6자 회담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풀리면 내일이라도 재개될 수 있다”면서 6자회담 선결 조건은 대북 제재 해제라는 북측 주장을 되풀이함.
- 앞서 북한은 11일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정상화되려면 북·미 간 신뢰가 조성돼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평화협정부터 체결돼야 한다”며 평화협정 회담을 제안했음.
- 민주조선은 16일 북한과 미국간 신뢰관계 조성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며 건설적인 대안은 없다”며 평화협정 체결을 거듭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 신문은 이날 ‘조미(북미)관계의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댈 때가 됐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조미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신뢰조성에서 근본적 혁신이 일어난다”며 “지금은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댄으로써 조미 적대관계 청산에서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

● **조선신보, 평화협정·핵·6자 ‘합리적연계’ 주장(1/14, 조선신보)**

-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최근의 북한 외무성 성명과 관련, “전쟁 구도의 해소와 비핵화 실천, 6자회담 재개를 합리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힘.
- 조선신보는 ‘전쟁상태 종식을 위한 주동적인 제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9.19공동성명의 첫 머리에 명시된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입각한다면 서로의 견해를 능히 일치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혀 6자회담 재개와 평화체제 및 비핵화 논의를 연계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함.
- 조선신보는 이어 “미국은 오늘도 조선(북)의 적대적 교전일방이고 조·미 두 나라는 기술적으로 의연히 전쟁상태에 있으며, 위성 발사를 둘러싼 긴장과 대립, 미국이 주도한 2009년의 제재가 그에 대한 증명자료”라며 “조미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지 않는 한 6자회담이 재개돼도 다시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조선은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

기타(6자회담(북핵))

- “평화적 핵 활동은 모든 나라들의 자주적인 권리”라며 이란 핵개발 지지(1/11, 중방)
- 中, 6자 조속재개 촉구…공동노력 강조(1/12, 연합뉴스)
- 애슈턴, 對北정책, 아직 신중히 검토 안해(1/12, 연합뉴스)

3 대남

● 두만강 월북 한국인 정신질환전력 40대(1/11, 연합뉴스)

- 지난 8일 중국 옌벵(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에서 두만강을 건너 월북한 한국인은 정신질환 경력이 있는 40대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11일 “월북한 한국인은 40대의 권모 씨로 확인됐다”고 전함.
- 그는 “권씨가 정신질환을 앓았던 전력이 있는 것 같다”며 “따라서 북한에서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임.
- 권씨는 지난 8일 오후 옌지(延吉)국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투먼에서 훈춘(琿春) 방면으로 2km 달리다 갑자기 차에서 내린 뒤 강물이 언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넘어갔음.

● 北, 南에 대북전단 살포자 처벌 요구(1/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3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하면서 남한 당국에 주동자 처벌을 요구
-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은 이날 전화통지문을 보내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이 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반공 광증에 들떠 수십만 장의 삐라를 우리측으로 날려보내는 난동을 부렸다”면서 “남측 당국은 반공화국 삐라 살포 난동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행위이고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는 대역죄라는 것을 시인하고, 이러한 행위를 감행한 극우보수 단체들을 즉시 해산하고 주범들을 엄벌에 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통지문은 또 “우리 군대는 북남관계 개선이 아무리 소중하고 절실하다 해도 우리 수뇌부의 절대적 권위와 사회주의 조국의 존엄을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

는 털끝만치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앞에서는 대화와 관계개선을 떠들면서도 뒤에서는 북남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는 남측 당국의 도발적인 뼈아픈 살포행위에 대해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北, 26~27일 금강산·개성관광 접촉 제안(1/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14일 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제안함.
- 북한 측은 통지문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지구관광이 1년 6개월이나 중단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26일과 27일 금강산에서 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실무접촉을 갖자”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매체 속 대남기조는 ‘안갯속’(1/17, 연합뉴스)**

-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15일 남한의 급변사태 대비계획 보도를 내세워 ‘보복성전’을 선언한 후 북한 주요 매체에서 대남 언급이 사라져 주목됨.
- 17일 연합뉴스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비롯한 주요 신문과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등 방송, 통신을 모니터링한 데 따르면 신년 공동사설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줄곧 강조하던 북한 언론들이 16일부터 대남 관련 뉴스 보도를 일제히 중지함.
- 일례로 노동신문은 16일자 8면 중 7면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돼지농장 방문 기사와 사진을 싣는 데 할애했고 17일자에서도 대남 기조를 드러내는 기사를 전혀 게재하지 않았으며, 대외용인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와 주간지 통일신보만 16~17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

■ 기타(대남)

- “온 민족의 우리민족끼리 기치아래 민족대단합을 통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 주장(1/11, 중방)
- 南 제1야전군의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훈련’(1.1) 再次 비난(1/12, 노동신문)
-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시킨 것 관련 비난(1/12, 평방)
- 南 세종시 수정안 공식발표 관련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져들고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野黨 등 비난 논평 보도(1/16, 중방)

01.18-01.24

1월

4주차

1. 대내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신문, 내부 적들과 강하게 투쟁해야(1/18,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18일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사회주의 내부의 계급적 원수(원수)들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반(反)사회주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설에서 “사회주의 제도에 반감을 품고 있는 착취 계급의 잔여분자들과 제국주의자들에게 매수되어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기 위해 음모로 양으로 책동하는 자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에 말려들어 사상정신적으로 변질된 자들, 썩어빠진 부르주아 생활양식을 내부에 끌어들이는 자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쪼먹는 자들은 모두 사회주의의 적”이라고 강하게 비판
 - 신문은 “이런 자들과 날카로운 투쟁을 벌여야 사회주의 진지를 고수하고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함.
 - 신문은 이어 “제국주의는 사회주의 나라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을 주되는 공격목표로 정하고 비열한 모해와 중상, 회유와 기만, 위협 공갈과 압력 등 갖은 악랄한 책동을 다하고 있다”면서 “제국주의자들의 동맹자,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임.
- **北김정일, 함경남도 생산시설 현지지도(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흥남제련소와 흥남대흥수산기업소, 서중수산사업소 등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흥남제련소에서 생산공정을 둘러본 뒤 “제련소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것과 기술개선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모든 생산공정을 보다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 위에 올려세우는 것”이라고 말함.
 - 김 위원장은 이어 흥남대흥수산기업소에서 “가까운 연간에 도달해야 할 수산

- 물 생산목표를 정해주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음.
- 그는 또 서중수산업소를 방문해 축양장(양어장)과 부두 등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고 “물고기 생산을 늘리는 동시에 잡은 물고기를 축양장에서 얼마간씩 길러 공급하면 인민들이 언제나 펄펄 뛰는 생선을 먹을 수 있다”며 양어사업의 중요성을 강조
 - 김 위원장의 이날 현지지도에는 태중수 함남도 당 책임비서와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등이 동행

● 北김정일, 중앙재판소 등 시찰(1/2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최고재판기관인 중앙재판소 청사와 새로 건설된 법정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
- 새로 만들어진 중앙재판소의 ‘연혁소개실’에 들러 “중앙재판소는 계급투쟁의 무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로 강화 발전되었다”고 말했으며, 새로 지은 법정을 둘러본 후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전함.
- 중앙재판소를 시찰한 것은 지난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 1기’ 출범 이후 처음
- 지난해 11월에도 인민보안성(우리의 경찰청) 본부를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시찰한 바 있음.
- 이날 “우리의 사회주의 법은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추동(推動)하는 힘있는 수단일 뿐 아니라 경제 문화건설에서 커다란 조직동원적 작용을 하는 위력한 무기”라면서 “사회주의 헌법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일층 강화하여 우리의 국가 사회제도를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강성대국 건설 위업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
- 또 “사회주의 법을 구현하기 위한 법무생활을 강화하자면 사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중앙재판소를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높은 책임감을 안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과 생명 재산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함으로써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공명정대한 우리 법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함.

- 중앙재판소 시찰에는 김병률 소장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및 1부부장들이 동행
- 한편, 김 위원장은 평양 밀가루가공공장과 룡성식료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중앙통신이 이날 전하였고, 최영림 평양시 당 책임비서,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이 동행

■ 김정일동향

- 1/18 조선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1/18, 중통)
- 1/20 철도과학분원 철도차량연구소 과학자들의'축반이'재료 연구 완성과 이를 생산에 도입한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기술자-노동자들에게도 감사 전달(1/20, 중방)
- 1/20 흥남제련소와 흥남대홍수산업소·서중수산업소 현지지도(1/20, 중통)
- 1/20 故 옥봉린(黨중앙위 후보위원, 김일성정치대학 연구사) 영전에 화환 전달(1/20, 중통)
- 1/22 국립민족예술단 공연 관람(1/22, 중통)
- 1/23 새로 건설된 법정과 중앙재판소 청사 현지지도(1/23, 중통)
- 1/23 평양밀가루공장 및 룡성식료공장 현지지도(1/23, 중통)

■ 기타(대내 정치)

- 김일성의 광복의 천리길 85돌과 김정일의 광복의 천리길 답사길 개척 35돌 기념 중앙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1, 중통)
- 새해 김정일의 현지지도는 “전체 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 한다”며 전체 노동계급의 총공세 고무추동(1/21, 중통)
- 과학, 보건, 상업, 문화예술부문 단위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종업원들 편지 호응 궤기모임 각각 진행(1/21, 중방)

나. 경제

● 농업성국장, 올해 종자혁명 역점(1/18, 조선신보; 조선중앙방송)

- 북한 농업성의 장학수 국장이 올해 농사의 역점사업으로 종자혁명을 꼽음.
- 장 국장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농업 증산의 열쇠는 종자혁명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는데 있다”며 “지난해 전투 기간에 벼 종자와 강냉이(옥수수) 종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맞는

다수확 우량종자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힘.

- 그는 “당면하여 남새(채소)종자 생산과 모 윽기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지난 해 생산한 종자를 잘 정선하고 보관했다가 전국의 국영 및 협동농장에 공급 하기 위한 준비사업도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함.

● **北에선 일소 죽으면 ‘낭패’…3개월 무보수(1/18, 자유북한방송)**

-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이 18일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 이면을 엿볼 수 있는 북한 ‘행정처벌법’ 해설서를 일부 공개함.
- 예컨대 해설서 51조(영농질서를 어긴 행위), 54조(수산물질서를 어긴 행위), 46조(공동재산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속여 가진 행위)의 처벌 대상을 공개함.
- 이 해설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일소가 죽으면 관리하던 사람이 대개 3개월 이하의 무보수 노동에 처해지고, 잘못이 중하면 3개월 이상의 무보수 노동을 각오해야 하며, 북한 당국이 수산업 분야의 질서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46조로 보아, 국가나 사회단체의 재산을 빼돌리는 경제 분야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퍼져 있음을 시사
-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행정처벌법은 형법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지만 경제문화나 공동생활 질서를 경미하게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됨.

● **北 국영상점 ‘복직’…제품 계속 댈 수 있나?(1/18,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이 종합시장을 폐쇄한 후 물건을 사려는 주민들로 국영상점이 복직 거리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8일 전함.
- 조선신보는 르포성 기사에서 “평양 시내 백화점들이 정초에 첫 봉사를 한 때부터 10여 일이 지났으나 손님들의 발길은 끊임이 없고, 출납소 앞에는 순번을 기다리는 손님들의 줄이 길게 뻗어 있다”고 소개
- 국가 공급으로 운영되는 국영상점의 일종인 북한의 백화점에 이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에 대해 이 신문은 “누구나 백화점과 같은 국영봉사망에서 공업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이 강구됐으며, 시장에서는 농토산물만 판매하도록 했다”고 설명
-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은 지난 12일 소식지에서 “북한 내각이 14일부터 시장관리 운영을 농민시장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으며, 농민시장에서는 농산

- 물과 토산물만 거래하고 중국 상품이나 국내산 공업제품은 팔 수 없도록 했다”고 전함.
- 평양역전백화점의 리숙희 지배인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중전에는 도매소에 요구해도 상품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백화점에서 팔린 만큼 새 상품이 들어온다”면서 “각종 상품의 생산이 크게 장성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말함.
 - 역전백화점에서 인기 있는 제품은 평양 선교편직공장에서 생산된 스웨터, 아동복, 팬티, 러닝셔츠와 자강도의 공장에서 생산한 외투, 양복, 솜옷, 치마 등인데, 특히 55원짜리부터 950원대 고급제품까지 파는 머리핀 매대에 젊은 여성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소개함.
 - 이 신문은 “2002년 7월에 정해진 가격에 준해 상품가격이 재조정됐는데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품들은 중전보다 가격이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 北, 라선특별시에 첫 남북합작 기업 승인(1/19,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북한 최초의 경제자유무역지대인 함경북도 라선 특별시에 18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합작기업 설립을 승인했음.
- 그동안 남한 기업이 라선 지역에서 수산물 임가공 사업을 한 경우는 더러 있었으나 남북합작기업의 현지설립은 이번이 1호임. 북한은 개성공단과 달리 북한 측 기업들도 자리한 라선에 남한 기업의 진출을 막아왔음.
- 농·수산물 통조림 가공 및 무역을 주로 하는 업체인 (주)매리의 정한기 사장은 19일 “북한 측 개선총회사와 남북합작 농수산물 가공 법인인 ‘칠보산매리합작회사’에 대한 기업창설 승인을 지난해 12월 18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로부터 받았다”고 밝힘.
- 이 승인날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1년 12월 라선시가 경제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곳을 현지지도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날로, 당시 김 위원장은 “대외시장을 끊임없이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북한 당국은 이어 지난 4일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 시킴.
- 칠보산매리는 자본금 750만 달러로 남측 매리와 북측 개선총회사가 각각 6대 4로 투자하며 수산물과 농토산물을 재료로 통조림 생산가공 및 수출판매 사업을 할 예정임.

- 북한 합작법에는 원래 북한 측 투자가가 생산 및 경영을 전담하도록 돼 있으나 정 사장은 이례적으로 칠보산매리의 ‘법정대표(대표이사)’로 위임받았음.

● 北→中 곡물주문 급증…北 식량사정 안 좋은 듯(1/19, 자유아시아방송(RFA))

- 쌀이나 밀가루를 사려는 주문이 최근 북한 내부로부터 변경의 중국 상인들한테 쇄도하고 있다고 전함.
- 이 방송은 “북한과 변경 무역을 하는 중국 상인들한테 들어오는 쌀이나 밀가루 같은 곡물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다른 상품 주문은 거의 끊겨 중국 상인들이 심한 불경기를 겪고 있다”고 전함.

● 北, 무역기관 집중 검열(1/19, NK지식인연대)

- 북한 당국이 무역의 국가 독점과 외화 회수를 위해 외화별이를 하는 무역기관들을 집중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탈북 지식인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19일 ‘북한 현지 통신원’의 전언을 인용, “국방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3월까지 외화별이 기관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찰소 검열을 진행한다고 한다”며 “국방위원회의 지휘 아래 군부의 외화별이 기관은 군 검찰이, 일반 기업은 각 지방 검찰이 검열을 하고 있다”고 밝힘.

● 北, ‘시장 연계’ 무역회사 통폐합(1/20, 좋은벗들; NK지식인연대)

- 북한이 종합시장을 폐쇄한 데 이어 시장 상품의 주요 공급원인 중소 무역회사들을 통폐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는 외국산 곡물이나 제품의 음성적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각종 재화의 공급과 분배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20일 소식지에서 “규모가 작은 무역회사들이 없어지거나 더 큰 단위에 병합되는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며 “이미 상당수 회사들이 해체됐고 (시장의) 개인장사꾼과 연계 가능한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회사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고 전함.
- 이 소식지는 이어 “중앙당이 지난 5일 군부 산하 무역회사들을 모두 해산시키라는 방침을 내려보내 지방의 군부대가 운영하는 무역회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단, 무역성에서 직접 관할하는 외화별이 단위들은 외국과 무역이

- 허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 소식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무역회사 간부와 연계된 정치적 범죄 증가 ▲무역회사들의 목표 미달 ▲무역회사와 개인 장사꾼 사이의 연계 행위 등을 꼽았음.
 - 소식지는 평양의 한 간부 말을 인용, “지방마다 식량이나 상품을 무역으로 사들여 판매하면 시장 운영을 막을 수 없다”며 “무역회사를 막아 시장을 금지한 뒤 국영상점 판매와 분배를 통해 새로운 경제질서를 잡으려는 것”이라고 전함.
 - 한편 탈북 지식인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19일 ‘북한 현지 통신원’의 전언을 인용, “국방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3월까지 외화벌이 기관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찰소 검열을 진행한다고 한다”며 “국방위원회의 지휘 아래 군부의 외화벌이 기관은 군 검찰이, 일반 기업은 각 지방 검찰이 검열을 하고 있다”고 밝힘.

● 北, 국방위 결정으로 ‘국가개발은행’ 설립(1/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0일 국가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하며 국가정책에 따르는 중요 대상들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할 ‘국가개발은행’ 설립 방침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또 “대외경제협력기관으로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투자유치 및 자금원천을 보장하는 경제연합체로 활동”하게 될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본부는 평양에 두기로 함.
- 중앙통신은 이날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회 1차회의가 열렸다고 이 자리에서 국방위원회 결정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함에 대하여’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조정위원회를 설립함에 대하여’가 전달됐다고 밝힘.
- 통신은 ‘국가개발은행’에 대해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할 수 있는 현대적 금융규범과 체계를 갖추고 국가정책에 따르는 중요 대상들에 대한 투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함. 또 이 회의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령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활동을 보장할 데 대하여’가 전달됐다고 통신은 전함.
-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장으로는 김양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 위원장(국방위원회 참사 겸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상임부이사장 겸 총재로는 재중동포 박철수를 선출했다고 통신은 말함.
- 통신에 따르면, 이사회는 국방위, 내각, 재정성, 유관부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됨.
-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규약초안,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재정예산안, 국가개발은행설립준비위원회 가동에 관한 결정서를 비롯해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사업과 관련한 안건들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학자, 화폐개혁으로 재정적 토대 마련(1/23, 조선신보)**

-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장이 작년 11월 전격 단행된 화폐개혁의 목표가 재정 확충에 있음을 언급
- 김철준 소장은 23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작년에) 국내에서 화폐교환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됐다”며 “화폐교환으로 하여(인해) 사회주의 경제관리원칙을 더 잘 구현할 수 있게 됐고 인민생활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힘.
- 김 소장은 “지난 해는 2012년구상의 실현에서 전환적 국면이 마련된 해로 역사에 아로새겨졌다”며 “농업부문에서는 수확고가 높은 종자들이 개발됐고 알곡을 기본으로 하는 두벌, 세벌농사와 감자농사, 콩농사에서 좋은 성과들이 이룩됐다”고 평가

■ **기타(대내)**

- 평양제1백화점에서 1.1 오전 중 155대 등 국내산 TV(삼일표 : 14, 21, 29인치, 다박솔 : 21인치 반평면형) 판매 증가 및 연간 30만대 양산체제 돌입 등 김병관 지배인 자랑(1/18, 조선신보)
- ‘예성강청년2호발전소’ 1호 물길굴 공사 완공(1/20, 중방)
- 北 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회 제1차 회의,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진행(1/20, 중통)
- 北컴퓨터과학연구소, 평양농업대학 과학자들, 숫자조종 파종기 개발 도입(1/20, 중방)

다. 군사

● 北, 합동훈련 때 전투기 10여 대 동원(1/18, 연합뉴스)

- 북한군은 지난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한 육해공군 합동훈련 때 전투기 10여 대 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보 당국의 한 소식통은 18일 “북한군은 평양 인근 서해안 지역에서 지난 15일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관측됐다”며 “훈련에는 전투기 10여 대와 함정, 방사포(240mm) 등이 동원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힘.
- 북한군은 당시 전투기 등을 이용한 폭격과 방사포 발포 등 실제 화력을 동원한 합동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공군은 열악한 에너지 사정에도 작년 말부터 전투기의 주·야간 협동대지훈련 및 원거리 비행훈련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 北무기수출, 유엔 제재로 90% 감소(1/23, 미국의 소리(VOA))

- 유엔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기수출이 90% 가량 줄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옴.
- 세계적인 군사문제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시몬 웨제만 선임연구원은 23일 VOA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어 북한의 무기 수출입이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견을 전제로 “북한의 무기수출은 90% 이상 감소했다”고 밝힘.

● 북한군 총참모부, 선제타격론은 선전포고(1/24,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총참모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김태영 국방장관의 북한의 핵 공격시 선제타격 발언과 관련, “선제타격론을 우리(북)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단호한 군사적 행동”을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성명은 “국방장관의 선제타격 폭언으로 지금 조선(한)반도에서는 언제 6.25의 참변이 되풀이될지 모를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해 우리 혁명무력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면서 이 같이 밝힘.
- 이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남조선 괴뢰당국의 그 어떤 시도

- 에 대해서도 우리 혁명무력은 즉시적이고도 단호한 군사적 행동으로 지휘의 중심을 비롯한 중요 대상물들을 송두리째 들어낼 것”이라고 위협
- 또 김 국방장관이 “또다시 ‘선제타격’ 폭언을 공공연히 늘어놓은 것은 그 어떤 실언이 아니라 북남관계 개선을 달가워하지 않는 괴뢰당국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괴뢰들의 반북대결책동을 우리는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기타(대내 군사)

- 군인건설자들,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 진행(1/21, 중방)
- 푸에블로호사건(1968.1.23) 은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 金父子의 빛나는 戰果”라고 선전(1/23, 중통)

라. 사회·문화

● 北김정일, 신제품 ‘평양주(酒)’ 최고로 평가(1/19, 조선신보)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대동강식료공장에서 생산되는 ‘평양주(酒)’에 대해 “지금까지의 술 가운데 제일 괜찮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도
- 이 공장에서는 ‘평양주’(알코올 30도, 40도 2종)와 ‘평양소주’(25도)가 생산되는데, 작년 9월 김 위원장이 이 공장을 시찰하고 ‘평양주’를 맛본 후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함.
- 신문은 2008년 봄 공사를 시작해 1년 반 만에 완공된 이 공장에 대해 “(김 위원장이) 직접 공장 터를 잡아주고 막대한 자금과 건설역량도 보내 국내 최상급의 본보기 주류생산기지로 꾸려주었다”면서 앞으로 생산량을 늘려 북한 주민에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금강산, 묘향산 등의 명승지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소개

● 北, 인권상황 여전히 끔찍(1/21, 휴먼라이츠워치(HRW))

- 북한이 작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조문을 넣었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국제인권감시단체인 HRW가 20일 평가함.

- HRW는 이날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발표한 2010 세계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헌법개정은 열악한 인권기록에 대한 계속되는 국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이미지 개선용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 HRW는 “헌법 개정을 통한 인권에 대한 립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은 여전히 끔찍하다”면서 “북한에는 야당과 자유언론, 종교 자유가 없으며 임의 체포와 구금, 재소자 학대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
- 또 북한은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 만 명을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붙잡아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시키고 있으며 국가재산을 훔친 시민을 ‘반사회주의 범죄자’로 몰아 주기적으로 공개 처형하고 있다고 전함.

● **獨, 北영화관계자 베를린영화제 초청(1/21, 자유아시아방송(RFA))**

- 독일이 북한의 영화 관계자들을 내달 11일 개막하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했다고 전함.
- 라이문트 비르데만 한국 주재 독일문화원장은 RFA와 인터뷰에서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북한의 조선영화수출입사를 초청했다”며 “이번에 북한 영화가 상영되지는 않지만 북한 대표단이 현대 영화의 흐름을 보고 자료도 수집해 9월에 열릴 평양국제영화제를 준비하는데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함.
- 조선영화수출입사는 영화의 수출과 수입 외에 다른 나라 영화회사와 합작, 주문제작, 기술협조 등 교류업무를 수행하는 북한 유일의 국영 영화사임.
- 비르데만 원장은 또 “올해 제12차 평양국제영화제에 독일도 참가할 계획”이라면서 “또 독일학술교류처의 지원을 받아 북한 의학계 전문인들을 위한 독일어 강좌나 대학 강연, 도서관이나 현대 미디어 산업 분야의 교류 등에 대해 북한과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매체, ‘수령복, 장군복’ 또 강조(1/22,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 북한 매체들은 22일 고 김일성 주석이 10대 초반에 걸었다는 이른바 ‘광복의 천릿길’ 85주년을 맞아 “대를 이은 수령복, 장군복”과 “만경대혈통, 백두의 혈통”을 언급하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을 암시
- 노동신문은 이날 ‘강성변영의 오늘과 잇닿은 혁명의 천릿길’이라는 광복의 천릿길 85주년 관련 기사에서 “이 시각 온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긍지로 뚫어번진다”고 강조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전함.

- 리용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1비서도 이날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열린 ‘전국 학생청소년들의 광복의 천릿길 답사 행군 출발모임’에서 “만경대혈통, 백두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휴대전화 가입자 9만 명 돌파(1/22, 블룸버그통신)

-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9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됨.
- 22일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만 1천800명이었음.
- 지난해 9월 기준 7만여 명, 11월에 8만여 명이었음을 감안해볼 때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오라스콤과 북한 당국이 공동 투자한 합작회사 ‘고려링크’는 2008년 12월부터 3G 방식의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했음.
- 오라스콤은 추후 4년간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북한에서는 통화량만큼 나중에 요금을 내지 않고 매번 선불카드를 구입해 휴대전화를 쓰고 있음.

● 北, 만포 ‘세검정’ 복원 중(1/22, 조선신보)

- ‘관서8경’의 하나로 일제 때 소실된 북한 자강도 만포시의 ‘세검정’이 복원되고 있다고 전함.
- 조선신보는 “1938년 일제 침략자들이 세검정을 불태워 터자리만이 남아 있었는데, 작년 6월 세검정 터가 있던 만포시 세검동에서 복원작업이 시작돼 올해 안에 공사가 끝날 예정”이라고 밝힘.
- 조선신보는 관서8경 가운데 평양 ‘연광정’, 성천 ‘강선루’, 안주 ‘백상루’, 영변 ‘약산동대’, 선천 ‘동림폭포’, 의주 ‘통군정’, 강계 ‘인풍루’ 등 나머지 7곳은 원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함.

● 北지원 신종플루백신, GSK 加공장서 전량제조(1/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에 지원할 신종플루 백신 47만5천명분이 영국

- 제약회사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SK)의 캐나다 공장에서 전량 제조되고 있다고 RFA이 22일 보도
- WHO는 “이처럼 백신 제조사가 한 곳일 경우, 수혜자인 북한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약 방법과 대처법 등에 적응할 필요가 없어 예방접종 과정이 훨씬 간편해진다”고 밝힌 것으로 RFA가 밝힘.
 - GSK 캐나다 지부 측은 북한에 제공될 백신을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정확한 선적 일정과 계약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RFA가 전함.

기타(대내 사회·문화)

- 조선기록영화촬영소, 기록영화 ‘인민사랑의 등산길을 따라’ 제작(1/18, 중통)
- 새해 공동사설을 반영한 우표(묵음전지 1종)와 동물들을 형상한 우표(개별우표 4종) 발행(1/19, 중통)

2 대외

가. 일반

● **北·中, 올해도 관계발전(1/20,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 양측이 올해도 양국관계의 강화와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
-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친선모임에서 최진수 북한 대사는 “조·중 친선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조선 당과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며 “새해에도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강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전함.
- 이날 모임에 참석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류홍차이(劉洪才) 부부장은 “올해에도 쌍방이 긴밀히 협조하여 중·조선친선협조관계를 한 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류 부부장은 류사오밍(劉曉明) 현 북한 주재 중국대사의 후임으로 내정돼 평양에 부임할 것으로 알려짐.

● **北-우크라이나 업체 泰압류 무기 책임(1/21, AP통신)**

- 지난달 태국에서 압류된 북한산 무기는 평양 소재 무역총회사가 발송하고 우크라이나의 '에어로트랙'이라는 업체가 수취할 예정이었던 화물로 알려짐.
- AP통신은 20일 두 업체가 이란 테헤란의 메흐라바드 공항이 행선지인 해당 무기 운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화물 운송장에는 북한의 무역총회사가 송하인, 에어로트랙이 수하인으로 기재돼 있다고 전함.
- 통신은 또한 이 무기를 운반한 승무원들이 카자흐스탄의 항공화물 업체인 '이스트윙' 소속이라면서 대가만 지불하면 어디든 화물을 실어나르는 운송회사 탓에 무기 밀거래를 막으려는 국제적 노력이 좌절되고 있다고 지적
- 이스트윙의 알렉산더 지코프 대표는 이에 대해 소속 직원들이 억류될 당시 무급 휴가 중이었다면서 자사 항공기가 무기 선적에 연루됐는지 몰랐다고 말함.
- 이스트윙과 화물기 임대 계약을 맺은 무역업체 '에스피(SP)'의 유리 룬요프도 북한산 무기 운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의 에어로트랙 측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 무기 밀수를 기도했다고 주장함.

● **泰, 압류 북한 무기 처리지침 유엔에 요청(1/22, 연합뉴스)**

- 태국 정부는 지난달 초 북한산 무기를 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억류했던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와 화물에 대한 처리 지침을 유엔에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
-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이날 “북한산 무기의 처리 방안을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에 발송했다”며 “현재 유엔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 태국 당국은 지난달 12일 로켓 발사대와 로켓 등 6억 바트(약 210억원) 상당의 무기 40t을 수송중이던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를 억류한뒤 무기를 압류하고 승무원 5명을 구금

● **반기문, 북한에 로버트 박 석방 촉구(1/22,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북한에 대해 지난해 12월 불법 입북한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을 석방해줄 것을 촉구함.
- 마틴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은 이날 반기문 사무총장은 북한이 로버트 박의 가족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청에 부응해 그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함.

- 미국인 북한 인권운동가인 로버트 박(29)은 지난달 25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나서 두만강을 건너 무단 입북했다가 북한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음.

● **北대표단, 투자유치차 네덜란드 방문(1/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고위 관리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달 네덜란드를 방문한다고 RFA이 22일 전함.
- 네덜란드의 정보기술 자문회사 ‘GIP 컨설팅사’의 폴 치아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 대표단이 다음달 네덜란드에서 대북 투자설명회를 갖는다”며 “네덜란드 기업만 대상으로 한 비공개 설명회인데 투자 분야는 정보기술(IT), 섬유, 농업, 광물, 재생에너지, 관광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유럽기업, 대북투자 축소, 중단 이어져(1/23,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럽 기업들이 작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 이후 대북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다고 RFA이 23일 전함.
- 평양에서 외국기업의 대북투자를 주선하고 있는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의 마이클 헤이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봄 이후로 유럽 기업의 대북투자가 크게 줄었다”며 “일부 기업은 투자를 주저했고 다른 기업은 투자규모를 줄였으며 어떤 기업은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힘.
- 그는 북한의 화폐개혁이 대북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 “외국기업의 대북투자에 변한 점은 없다”며 “화폐개혁과 관련한 뉴스만 접한 일부 기업인들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외환으로만 거래하기 때문에 화폐개혁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

■ 기타(대외)

- 외무성, 새해 즈음 박의춘(외무상/연설) 등 참가下 駐北 러시아 대사관 성원들을 위한 연회 개최(1/19, 중방)
- 이탈리아 국회의원 대표단, 귀국(1/21, 평방)
 - 김영남, 1/21 이탈리아 국회의원 대표단과 담화 - 이용철 黨 부부장 배석
- 루마니아 대통령, 김영남의 대통령 再選 축전에 대한 1/15 답전(1/21, 평방)

- “日本은 솔직한 과거청산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持續 강조(1/20, 노동신문)
- 駐말타 北대사 한대성, 1/15 同國 대통령 접견(1/20, 중방)

나. 6자회담(북핵)

● 北, 제재 풀기 전 6자회담 못가(1/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와 대북제재 해제에 앞서 6자회담에 먼저 복귀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정면 거부
- 북한은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6자회담이 다시 열리려면 회담을 파탄시킨 원인이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돼야 한다”며 “우리가 제재 모자를 쓴 채로 6자회담에 나간다면 그 회담은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평등한 회담이 아니라 ‘피고’와 ‘판사’의 회담으로 되고 만다”며 선(先) 제재 해제를 요구를 되풀이함.
- 담화는 또 “자주권을 계속 침해당하면서 자주권을 침해하는 나라들과 마주 앉아 바로 그 자주권 수호를 위해 보유한 억제력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지 않는다”고 강변
- 북한이 지난 11일 내놓은 평화협정 회담 제안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제재의 적절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고 언급했고,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북한이 우리에게 와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얘기하고, 9.19 공동성명 하의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6자회담 복귀가 우선임을 강조
- 북한 외무성 대변인담화는 이와 관련, 자신들은 미국 측 사정을 고려해 6자회담에서 비핵화 논의를 선행시키는 노력을 6년 이상 기울였지만 평화협정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면서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앞서 비핵화를 진척시키는 방식은 실패로 끝난 것이며, 신뢰 없이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기초가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실천경험이 보여주었다”고 주장함.
- 담화는 또 “우리는 6자회담을 반대하지 않으며 지연시킬 하등의 이유도 없다”면서 “당사국들이 경험과 교훈에 기초한 우리의 현실적 제안을 받아들여 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北신문, 평화협정 체결시 비핵화 빨리 추동(1/19, 노동신문)**

- 북한 노동신문이 19일 논설을 통해 “서로가 불신을 풀고 마음을 합쳐 평화로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때만 회담들도 순조롭게 열리고 비핵화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어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9.19 공동성명에도 언급되어 있는 만큼 실천적 요구에 부합되게 순치를 바꾸어 해결하면 될 것”이라며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더 이상 자국의 이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전쟁과 평화라는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긴다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北 김영남, 6자회담 복귀 3조건 제시(1/23, 연합뉴스)**

-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로 ‘미국·중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안전보장(체제보장)에 관한 미국과의 양자 협의’,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지이(日本經濟)신문이 23일 베이징발로 보도
- 니혼게이지이신문에 따르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이탈리아 의원단과의 회담에서 이렇게 밝힘.
- 김 상임위원장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복귀의 세 가지 전제조건을 열거한 뒤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말함.

3 대남

● **北노동신문, 북남관계 南당국에 달려(1/18,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8일 논설에서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관계개선을 위한 길에 주저없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

- 제목부터 ‘북남관계는 개선되어야 한다’로 잡은 이 논설은 지난 15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남한 정부의 급변사태 대비계획 보도와 관련, 대변인 성명을 내고 대남 ‘보복 성전’을 언급한 후 처음 남북관계에 대해 입장을 보인 것임.
- 신문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가 악화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남조선 당국의 구태의연하면서도 반통일적인 대결책동 때문”이라면서 “지난해 북남 사이에 그 어떤 온전한 대화도, 협력과 교류도 없었던 것은 남조선 당국의 관계개선 의지 결여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지적
- 신문은 이어 “(남한의) 민간단체들이 북남 관계 해결을 위해 나서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우회적으로 풀릴 수 있다”면서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북남관계는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함.
- 한편 북한 당국의 대외홍보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은 이날 논평에서 국방위 대변인 성명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 뒤 “북남관계 개선이나 화해.협력은 철저히 상대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사태 추이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며 노동신문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침.

● 개성회의 北대표, 南 ‘대비계획’ 항의했다(1/22, 우리민족끼리)

- 북한이 지난 19~21일 개성에서 열린 해외공단시찰 평가회의에서 일부 남한 언론에 보도된 급변사태 대비계획에 대해 남측에 항의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22일 보도함.
- 이번 회의에 참석했던 북한 측 대표는 우리민족끼리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접촉(평가회의)에서 남조선 당국이 우리를 반대하는 도발적인 ‘부흥계획’을 완성해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키고 북남관계 개선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한데 대해 언급했다”고 말함.
- 이 북한 측 대표는 또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관련, “우리가 해외경제특구 공동참관을 통해 요해한데 의하면 해외특구의 경우 200~300달러에서 500달러 수준인데 개성 근로자는 57달러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용돈도 못되는 보잘것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힘.
- 이 북한 측 대표는 이어 남측 당국이 개성지구 활성화에 관심이 없음을 이번 회의에서 분명히 알았으며, 만약 개성지구가 깨지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전함.

● 北 ‘3통협의’ 군사실무회담 제안(1/22, 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26일 개성공단 통행·통관·통신 등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22일 제안함.
-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 측은 오늘 오후 4시께 3통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열자고 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상좌 명의로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제의해왔다”고 말함.
-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지난 2008년 10월2일 대북 전단살포 문제 협의를 위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이후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임.

● 정부, ‘군사회담’ 2월 1일 이후 추진(1/24, 연합뉴스)

- 정부는 북한이 제안한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관련 군사실무회담을 2월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이후에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 관계자는 24일 “2월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잡혀 있고, 거기서 3통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 군사회담을 여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군사실무회담을 하더라도 일단 2월1일 회담을 지켜본 뒤에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함.
- 앞서 북한은 남북이 ‘3통’ 등 개성공단 현안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2월 1일, 개성)에 합의한 다음 날인 지난 22일 ‘3통’ 해결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26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안
- 이와 함께 정부는 개성·금강산 관광을 위한 실무접촉도 개성공단 실무회담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26~27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안

■ 기타(대남)

- 南 야외기동훈련, 사이버사령부 창설과 국방부장관의 신년기자회견을 비난(1/19, 노동신문)

01.25-01.31

1월

5주차

1. 대내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김정일, 주1회꼴 軍양돈장 시찰...군대식량 걱정?(1/26, 연합뉴스)

- 새해 들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활동이 작년보다 더 활발해져 주목됨.
- 김 위원장은 26일 현재 모두 14회의 공개활동을 벌였는데, 이는 1998년 ‘김정일 체제 1기’ 출범 이후 가장 공개활동이 많았던 작년 동기(9회)보다도 56%나 늘어난 것임.
- 분야별로는 산업 시찰 등 경제 부문이 7회로 ‘군 관련’(6회)을 앞섰고, 기타 분야로 중앙재판소를 한 차례 시찰했으나 외국인사 접견과 같은 ‘대외활동’은 한 건도 없었음.
- 김 위원장은 올해 첫 공개활동으로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장을 찾아가 작년 부터 부쩍 높아지기 시작한 경제에 대한 관심이 여전함을 보여줌.
- 김 위원장은 작년 3월, 9월에도 이 발전소를 시찰, 군인건설자들의 공사 속도를 ‘희천속도’로 명명하고 주민들에게 따라 배울 것을 독려
- 이밖에 그가 현지도한 경제 분야는 황해남도 재령광산과 황해북도 예성강 청년2호발전소 건설장, 함경남도 흥남제련소와 평양밀가루가공공장, 평안북도 락원기계연합기업소 등임.
- 경제 분야보다 횟수는 적었지만 ‘군 분야’는 여전히 김 위원장의 주요 관심사였음.
- 김 위원장은 군부대 가운데 처음으로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탱크)사단’ 관하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를 시찰한 데 이어 북한군 고위 간부들을 대동하고 전투기와 함정, 방사포 등이 동원된 육해공 합동훈련을 참관함.

● 北김정일, 평안북도 신설 도로 시찰(1/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에 새로 만들어진 도로들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하였으나, 일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 김 위원장은 도로들을 둘러본 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토관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조국강토를 후대들에게 물려주

- 자”고 말함.
- 그는 이어 “국토관리사업은 국토와 자원, 자연환경을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적극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당, 전군, 전민이 이 사업을 계속 즐기치게 내밀어야 한다”고 덧붙임.
 - 김 위원장의 이날 시찰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와 노동당 중앙위 부장 및 부부장이 동행함.

● **北김정일, 향산호텔 현지지도(1/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리모델링을 마친 향산호텔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정확한 시찰 날짜는 밝히지 않음.
- 묘향산에 위치한 향산호텔을 찾아 식당, 침실, 연회장 등을 둘러본 뒤 “하나의 큰 호텔 건설과 맞먹는 방대한 개건(리모델링)공사를 4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끝낸 것은 기적”이라며 공사에 참가한 군인들을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들인 주규창, 리제강, 리재일, 한광상 등이 동행

● **北김정일, 향산호텔서 軍공연 관람(1/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리모델링을 마친 향산호텔에서 군 청년기동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
- 앞서 30일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리모델링을 마친 향산호텔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해, 김 위원장은 이 호텔에 머물면서 선전대를 불러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보임.
- 이날 공연관람에는 현철해·리명수 군 대장,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주규창·리제강·리재일·한광상 당 제1부부장이 동행

■ **김정일동향**

- 1/25 조선인민군 제567대연합부대 돼지공장 현지지도(1/25, 중통)
- 1/25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및 낙원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1/25, 중통)
- 1/26 9월제철종합기업소와 덕현광산 현지지도(1/26, 중통)
- 1/27 평안북도내 새로 건설된 도로 시찰(1/27, 중통)

- 1/30 개건된 향산호텔(묘향산 소재) 현지지도(1/30, 중방)
- 1/31 조선인민군 청년기동선전대 공연 관람(1/31, 중방)
- 1/31 조선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1/31, 중통)

기타(대내 정치)

-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총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6, 중통)
- 흥남제련소·흥남대흥수산기업소·서중수산사업소,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궐기모임 각각 진행(1/28, 중방)
- 北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김영일(내각총리, 보고) 등 참가下 진행(1/29, 중통)
- 北, 1/25 北-中 국경지역을 통해 비법 입국한 “미국인 1명을 억류중이며, 현재 해당기관에서 조사중”(1/28, 중통)
- 신의주시, 1/30 김평해(평북도당 책임비서, 기념보고)참가下 김정일의 평안북도 현지지도 10돌 기념 보고회 개최(1/30, 중방)

나. 경제

● 조선신보, 北경제부흥, 평화로운 환경 절실(1/25, 조선신보)

-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부흥은 평화로운 환경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60년째의 종전, 조선의 평화협정회담 제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나온 북한 외무성의 평화협정회담 제안은 “조선(북)의 수뇌부가 최근 조미관계의 전과정을 총화(결산)한 것이고, 오랜 교전국과의 최후담판을 상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신문은 이어 “교전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총부리를 먼저 내리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전쟁과 평화라는 조미의 근본 문제에서 안일한 양보나 판단실수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며 “불신에 갇히면 외교관은 말을 해도 군대는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지적
- 신문은 또 “유관국들의 요구를 고려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전략적 결단 없이 평화협정 회담을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비핵화 실현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임을 거듭 강조
- 신문은 말미에 북한 지도부가 “60년째의 종전으로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다”며 “조선의 호소는 진심”이라고 덧붙임.

● 北 공식환율 무력...평양 호텔 환율 널뛰기(1/26, 연합뉴스)

- 북한이 화폐개혁의 후속 조치로 이달 1일 공식 환율을 고시했지만 평양 시내 호텔 등에서 적용되는 환율은 아직 정상 거래가 어려울 만큼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전해짐.
- 평양 사정에 정통한 서방 외교관은 26일 연합뉴스 기자와 전화인터뷰에서 “평양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따르면 이달 초 북한 조선중앙은행이 1유로당 138원으로 환율을 고시했는데 며칠 후 호텔 등에서 1유로당 4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며칠 만에 1유로당 51원으로 올랐다”면서 “북한 내 환율은 아직 매우 들쭉날쭉하고 불분명한(fuzzy)한 상황”이라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심지어 외국인 방문객들이 묵는 평양 고려호텔에서는 지난 22일 1유로당 51원에 환전했다가 불과 몇 시간 뒤 다른 외국인에게 1유로당 120원에 바꿔준 일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최근 들어서는 환율뿐 아니라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기차역 주변의 국영상점에서조차 값을 매기지 못해 그냥 물건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면서 “평양의 외국인 거주구역인 문수동의 단 하나 있는 슈퍼마켓도 외화사용이 금지된 1월초 폐쇄됐다가 18일에야 문을 열었다”고 말함.
- 그는 또 “지난주 외국인 방문객들이 만수대예술극장 내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고 유로화를 건넸더니 점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나서 그냥 유로화를 받았다고 한다”며 외국인에 대한 외화사용 금지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함.

● 北, 물가 폭등...주민들 망연자실(1/26, 좋은벗들)

- 작년 11월말 화폐개혁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난 최근 쌀값 등 북한 내 물가가 연일 폭등세를 보여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전함.
- 이 단체는 소식지에서 “쌀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가장 상승 폭이 큰 함경북도 청진시의 경우 이달 15일 kg당 240원에서 20일 280원, 21일 오후 350원, 22일 오후 650원으로 1주일 새 거의 3배로 올랐다”면서 “특히 24일에는 청진 수남시장에서 쌀값이 kg당 1천100원까지 치솟았다”고 밝힘.
- 소식지는 이어 “22일 현재 평양을 비롯해 황해북도 사리원, 황해남도 해주, 강원도 원산, 평안남도 평성, 평안북도 신의주 등 주요 도시 쌀값이 일제히

- kg당 300원을 넘어섰다”며 “청진에서는 상인들이 쌀을 팔지 않은 채 가격만 올리고, 주민들은 감히 사려고 하지도 못하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말함.
- 소식지는 또 “이처럼 물가가 폭등하자 새 경제관리 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도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모든 물가가 올라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운데다 장사를 못하게 해 끼니벌이 할 방법이 없어지자 주민들의 아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함.
 - 특히 각종 물품을 비싸게 되팔아온 ‘되거래 장사꾼’(중개업자)들의 경우 “쌀 가격이 80~90원 할 때만 해도 이윤을 남기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1월 들어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폭등하자 더 이상 물건을 사들일 여유가 없어졌다”고 소식지는 말함.
 - 소식지는 암시장 환율과 관련, “미화는 평양, 신의주 등에서 이미 달러당 420원까지 올랐는데 조만간 600원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나돈다”고 전함.

● **北조선대풍그룹, 3월 인터넷에 사업공개(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당국이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설립 방침을 밝힌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 오는 3월 인터넷에 사업 계획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
- 이 그룹은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하며 국가정책에 따르는 중요 대상들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할’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 ‘국가개발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관으로, 이 은행에 대한 투자유치 및 자금원천을 보장하는 경제연합체임.
- 베이징에서 활동 중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관계자는 28일 “홈페이지 개설 작업을 진행 중이며 3월에는 인터넷을 통해 대풍그룹의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은 유한공사 형태로 집행과 대외협력 업무를 맡고 국가개발은행은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할 수 있는 현대적 금융 규범과 체계를 갖춰 국가정책상의 중요 투자업무를 담당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대풍투자그룹의 이사장으로는 김양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국방위원회 참사 겸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상임부이사장 겸 총재로는 재중동포인 박철수씨가 선출됐으며 이사회는 국방위, 내각, 재정성, 노동당

- 유관부서, 조선아태평화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됨.
- 중국의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지난 22일 (북한의)국가개발은행이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투자건설 업무를 보증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 그룹이 중국 금융기구로부터 용자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함.
- 또 국가개발은행은 주주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은행의 주식 지분 21%를 국제 투자자들이 보유토록 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임.

● **대북교역 창구 中단둥 무역 회복세 뚜렷(1/28, 연합뉴스)**

- 중국의 최대 대북 교역 창구인 단둥(丹東)지역의 무역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압록강일보는 28일 단둥해관 자료를 인용, 세계 금융 위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외 무역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던 단둥이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보도함.
- 지난해 4분기 단둥해관의 무역 규모는 4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출액은 3억 9천6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7% 증가했으며 수입은 7천400만 달러로 32.6% 늘었음.
- 무역 방식으로는 북한을 오가는 보따리 무역상들에 의한 변경 소규모 무역액이 1억 2천200만 달러로 43.4%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일반 무역은 2억 2천200만 달러로 6.7% 증가했으며 보세무역은 9천100만 달러로 14.6% 늘었음.
-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무연탄에 대한 북한 당국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4분기 단둥의 최대 수입 상품은 의류와 의류 부품이 차지했으며 최대 수출품은 전자기계 제품이었음.

■ **기타(대내 경제)**

- 평양산원 개원(1990.7.30) 30돌을 계기로 보건성 등 성, 중앙기관의 후원아래 지난해부터 내외부 등 개건 현대화(제약생산시설등) 공사진행 중(1/26, 조선신보)
-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긴잔광형광체'(도로표식판, 가로등, 각종계기 등 이용) 개발 보도 (1/27, 중통)
- 도시경영성 주관下, 전국의 오수정화장 설비현대화 추진中(1/30, 조선신보)

다. 군사

● 북, 백령도 근해에 항행금지구역 선포(1/26,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5일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해상 2곳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
- 군 관계자는 26일 “북한이 지난 25일부터 3월29일까지 서해 백령도 동방 해상 1곳과 대청도 동방 해상 1곳에 각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면서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항행금지구역 선포 의도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힘.
- 항행금지구역이 선포된 백령도 동방 1곳과 대청도 동방 1곳은 모두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걸쳐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함.
- 정보 당국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항행금지구역 선포는 작년 12월21일 NLL 남쪽 해상에 선포한 ‘평시 해상사격구역’과 연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남 위협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북한 해군사령부는 작년 12월21일 서해 NLL 이남 해역에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한 바 있음.

● 北 NLL북측지역에 포사격…南 경고사격(1/27, 연합뉴스)

- 북한이 27일 오전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의 북한쪽 해상 2곳으로 해안포 30여발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즉각 경고사격을 가했음.
- 합참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이 오늘 오전 9시 5분부터 10시 16분까지 해안포 30여 발을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NLL 해상으로 발사했다”며 “탄착지점은 전날 북한이 선포한 2곳의 항행금지구역 내이며 NLL로부터 북한 해상 1.5마일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함.
- 그는 “우리도 백령도 해병부대에서 사거리 3~4km의 별컨포 100여 발로 경고사격을 했다”면서 “북한이 포사격을 했을 당시 물기둥 20~30개가 솟아 올랐다”고 전함.
- 북한은 옹진반도에서 백령도와 대청도 동방 항행금지구역 내에 각각 20여분, 30여 분에 걸쳐 포를 발사함. 북한이 NLL을 향해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그는 “오전 9시 5분께 북한이 발사한 포가 날아오면서 레이더에 포착됐다”면

서 “NLL 이북 지역에 탄착지점이 형성되어 오전 9시 35분부터 세 차례 경고 통신을 했다”고 설명

● **北총참모부, 서해상 포사격 계속될 것(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총참모부는 27일 서해상에서 실시한 포실탄 사격훈련을 확인하면서 “서해전연 해상에서 우리 인민군 부대의 포실탄 사격훈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총참모부는 이날 보도를 발표하고 “27일 오전 조선 서해 해상에서 연례적인 포실탄 사격훈련을 진행했다”며 “우리 측 수역에서 조선인민군 부대들이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논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
- 보도는 또 “조선 서해 전연해상에는 오직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을 뿐”이라며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함.
- 그러나 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에서 실탄 사격훈련에 대응해 남한군이 사거리 3~4km의 별컨포 100여 발로 경고사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북한은 25일부터 3월29일까지 서해 백령도 동방 해상 1곳과 대청도 동방 해상 1곳에 각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으며 이곳은 모두 NLL에 걸쳐 있음.
- 북한군은 통상 3월 말까지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 서해NLL 쪽으로 또 포사격(1/27, 연합뉴스)**

- 북한이 27일 오전에 이어 오후 3시 25분부터 수십 발의 해안포를 또 발사함.
- 합참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북한쪽 해상으로 수십 발의 해안포를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힘.
- 군은 오후 3시 35분께 해상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두 차례 경고통신을 함.
- 북한은 해안포를 1회 사격 때 5~10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짐.
- 합참 관계자는 “발사된 포탄이 NLL을 넘어오지 않아 경고사격은 하지 않았다”며 “포탄은 NLL로부터 2.7km 떨어진 북한 해상으로 떨어졌다”고 설명

● **北, NLL해상사격 ‘29일까지’로 일방 통보(1/28, 연합뉴스)**

- 북한이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해안포를 잇따라 발사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 측이 오는 29일까지 해상 사격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됨.
- 군과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상 백령도와 대청도 동부 지역 NLL 인근 해상에서 지난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5일간 해상사격을 실시하겠다고 러시아 해상교통 문자방송인 나브텍스(NAVTEX)를 통해 통보
- 북한은 백령도 동부 NLL 인근 해상에는 25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항행금지구역으로 선포했으며, 대청도 동부 해상에 대한 항행금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았음.
- 이와 함께 북한은 항행금지구역에 대한 좌표도 제시함.
- 국립해양조사원은 “북한에서 나브텍스를 통해 해상사격구역과 항행금지구역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니 항해선박 및 조업어선들에게 주의하도록 알려주기 바란다”고 밝힘.

● **북, 이틀째 포사격…연평도인근 북측 지역(1/28, 연합뉴스)**

- 북한은 28일 이틀째 서해상과 서해 육상지역에서 10발 가량의 포사격을 한 것으로 확인됨.
-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전 8시 10분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북쪽 북한 지역에서 5~6회, 오후 2시께 3~4회 각각 포성이 청취됐다”면서 “이날 최대 10회 가량 포성이 들렸다”고 밝힘.
- 합참의 설명으로 미뤄 북한은 모두 10발 가량의 포사격을 한 것으로 추산됨.
- 그는 “포사격으로 인한 물기둥이 관측되지 않았고 멀리서 포성이 들린 점으로 미뤄 북한 내륙에 인접한 해상이나 육상에서 포사격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오후 2시 30분 이후에는 아무런 특이동향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오전 8시가 조금 넘어 연평도 앞 북한 쪽에서 포성이 울렸다”면서 “안개로 육안 관측은 어렵지만 해안포 5~6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북한은 지난 25일 백령도와 대청도 동방 NLL 인근을 해상사격 구간으로 통보했으나 연평도는 제외됨.

- 군 관계자는 “북한은 연평도 인근 북한 해상으로 포사격 훈련을 자주한다”면서 “이번에도 훈련 일환일 수 있지만 전날 집중적인 포사격 일환일 가능성도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
- 북한은 작년 초에도 연평도 북방에 있는 북한의 대수압도 해상으로 1천여 발의 포사격 훈련을 했음.

기타(대내 군사)

-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군비경쟁이 조성되는 것은 미국의 침략과 전쟁정책 때문”이라고 비난(1/28, 노동신문)
- 日 비핵3원칙 위반, 역대 집권계층의 핵무기 보유 합법화·정책화 발언 등 동북아시아에서의 핵위협 조성행위 비난(1/28, 노동신문)

라. 사회·문화

● WHO, 北개성서 신종플루 3명 처음 발생(1/2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개성시에서 신종플루 확진환자 3명이 처음 발생했다고 RFA가 26일 세계보건기구(WHO)를 인용해 전함.
- WHO 측은 RFA와 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개성과 신의주에서 신종플루 확진환자 5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알려왔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이제껏 신종플루 환자가 한 명도 없었던 개성시 거주자였다”면서 “개성시 환자는 21살, 23살 여성과 15살 소년이고, 신의주 환자는 12살, 15살 소년”이라고 밝힘.
- 이 방송은 이어 “북한은 아직 WHO가 제공한 30만여 개의 타미플루를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신종 플루 대응체계가 안정적이고 치료도 잘 이루어 이번엔 추가 발생한 환자 5명 중 신의주의 12세 소년을 제외하고 이미 모두 회복됐다”고 설명
- 방송은 또 “이번 5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북한의 신종플루 환자는 모두 19명으로 집계됐지만 아직 사망자는 없다”고 덧붙임.

● 北토플점수, 세계평균보다 7점 낮아(1/28, 자유아시아방송(RFA))

- 2005년 이후 북한 국적자들의 토플(TOEFL) 점수가 다소 좋아졌으나 아직도 세계 평균보다는 7점(120점 만점 기준) 낮다고 RFA이 27일 전함.

- RFA는 TOEFL시험을 주관하는 미국 ETS사 자료를 인용, “온라인 시험방식이 도입되고 만점이 120점으로 바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북한 국적 응시자들의 토플 점수는 평균 69점이었으나 2008년에는 72점으로 높아졌다”고 밝힘.
- RFA는 이어 “2008년 북한 응시자들의 점수는 읽기 17점(세계 평균 19.4점), 말하기 18점(〃 19.3점)으로 세계 평균보다 각각 1.3점 낮았고, 작문은 19점으로 1.5점 떨어졌다”면서 “합산 점수도 세계 평균(79점)보다 7점 낮았다”고 말함.
- 이 방송은 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 응시자와 한국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각각 69점, 72점으로 3점 차이였으나 2007년에는 69점과 77점으로 8점까지 벌어졌다”면서 “2008년에는 북한 72점, 한국 78점으로 6점 차이가 됐다”고 덧붙임.

● 北, 南지원 타미플루 출처 숨겨(1/3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우리 정부가 지원한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약의 출처를 숨기고 있다고 미국의 RFA이 30일 보도
- “북한 보건당국은 병원 의사들에게 신종플루 치료제가 한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 들여온 거라고 주민들에게 알려줄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덧붙임.
- 우리 정부는 지난 달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을 육로를 통해 북한에 지원했으며, 북한은 지난 19일 “타미플루 30만명분과 리렌자 8만명분을 평양과 각 시도에 골고루 분배했으며 나머지는 비축하고 있다”는 내용의 분배보고서를 우리 측에 보내옴.

● 北김책공대 대표단 뉴욕서 아바타 관람(1/31, 연합뉴스)

- 미국 시러큐스 대학과의 학술 교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북한 김책공업중학대학 홍서현 총장과 현학봉 외무성 부국장 등 북측 대표단 일행이 30일(현지시간) 저녁 뉴욕에서 영화 아바타를 감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24일 뉴욕에 도착해 곧바로 시러큐스로 간 이들 일행은 그곳에서 첨단 정보 기술 등과 관련된 학술 세미나를 가진 뒤 29일 뉴욕으로 돌아와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사학과 교수,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도널드 그레그 명예

회장 등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 최근 북·미간 대화 움직임과 관련해 현 부국장 등 대표단이 미국 국무성 관계자 등과 만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곳 외교관들은 “학술 교류 목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 접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현 부국장은 미국과 직접 대화할 만한 직책에 있지도 않다”고 말함.
- 북한 최고의 이공계 대학인 김책공대는 2001년부터 정보기술(IT) 부문을 중심으로 시러큐스대와 교류해 왔으며, 두 대학 학자들은 수차례 상호 방문을 통해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해옴.

기타(대내 사회·문화)

- 체육지도자, 2009년 유도 최우수선수(남: 김철수, 여: 림윤희, 4.25체육단소속) 및 우수선수(남: 김경진, 여: 조성희 등) 선정 발표(1/26, 조선신보)
- 체육신문 창간 60돌 기념보고회 진행(1/28, 중통)
- 평양무용대학, 국내 첫 발레극장 건설중(1/28, 중통)

2 대외

가. 일반

● 연해주 홈페이지 남북한 광고 ‘나란히’(1/25, 연합뉴스)

- 러시아 극동 프리모르스키(연해주) 주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rimorsky.ru>)에 남한과 북한의 배너광고가 동시에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음.
- 25일 주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남한과 북한의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인터넷 배너광고가 연해주 주 정부 홈페이지 우측 배너 코너에 공동으로 게재되고 있음.
- 남한의 배너는 우측 상단에서 7번째, 북한의 배너는 13번째에 배치됐으며 배너 광고료는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 ‘내 나라’라는 이름의 북한 배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활동소식과 더불어 정치, 관광, 무역 등을 소개하고 있고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등 8개 외국어

- 로 번역된 웹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음.
- 이와 관련, 주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는 “북한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연해주 주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배너광고가 게재됐다”며 “그러나 한국총영사관이 한러 간 교류 및 교역규모 등을 감안해 남북한이 동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요청, 남북한 배너광고가 동시에 게재되게 됐다”고 했음.
 - 이 관계자는 “북한의 배너광고는 당초 한글로만 구성된 것이어서 연해주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1천 명 가량의 북한 노동자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다양한 외국어로 볼 수 있는 남한의 배너광고가 게재되자 북한도 외국어 서비스가 보강된 배너로 교체했다”고 덧붙임.

● **北대풍그룹 박철수 ‘싱가포르 접촉’ 증개?(1/27,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설립한 국가개발은행의 대외 창구 기능을 하는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상임부이사장 겸 총재를 맡은 재중동포 사업가 박철수씨가 작년 남북정상회담 물밑 접촉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져 그에 대해 관심이 쏠림.
- 27일 북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박 총재는 작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로 알려짐.
- 한 대북소식통은 “박 총재가 작년 가을 조용히 한국에 들어와 임태희 장관을 만나 싱가포르 접촉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
- ‘임태희-김양건 회동’으로 본격화된 남북 간 정상회담 논의가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총재가 작년 12월 비밀리에 방한해 남측에 정상회담과 관련한 수정 제의를 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음.
- 북한은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발표하면서 투자유치는 박 총재가 이끄는 조선대풍국제그룹이 담당한다고 밝히고 그를 ‘박철수’로 밝혔음.

● **北의 ‘두 얼굴’…포사격 하며, 미군 유해발굴 제안(1/28, 연합뉴스)**

-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역에 포사격을 한 북한이 같은 날 유엔사 측에는 2005년부터 중단됐던 미군 유해발굴을 재개하자고 제안함.

- 유엔군사령부 관계자는 28일 “북한군과 유엔사 간의 실무급 접촉이 어제 판문점에서 열렸는데 북한 측이 미군유해 발굴 재개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면서 “앞으로 추가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한편 미국 국방부의 모린 슈먼 대변인은 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엔사와 북한 인민군이 26일(미국시간) 판문점에서 실무급 회담을 열고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번 실무회담은 한반도 정전협정의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고 북한 측이 먼저 제안했다”고 말함.
- 그는 그러나 “회담에서 무엇이 결정됐는지 아는 바 없고 후속 실무회담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임.
- 미국은 1996년 이후 북한 내 미군유해 200여 구를 찾아했지만 2005년 안전상 이유로 발굴사업을 중단했음.

● **北통신, 불법입국 미국인 1명 억류(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불법 입국한 미국인 1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밝힘.
- 이 통신은 “25일 조(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비법 입국한 미국인 1명이 억류됐다”며 “현재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전함.
- 그러나 중앙통신은 이 미국인의 신원과 입북 동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北, 미국인여행자 연중 입국 허용(1/2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미국인 여행자에 대한 입국 기간 제한을 완전 해제했다고 RFA이 29일 전함.
- 북한은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처음 시작한 2002년부터 공연 기간인 8월부터 10월 초까지만 미국인 여행자의 방북을 허용해 왔음.
- 북한 여행 전문인 미국 일리노이주 아시아태평양여행사의 월터 키츠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 최대 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가 미국인 관광객이 연중 아무 때나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면서 “머지 않아 입국 경로 등에 대한 제한까지 풀리면 새로운 관광지와 여행상품의 개발로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이어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에 맞춰 미국인 관광객을 처음 초청해 내달 16일부터 20일까지 북한을 여행할 수 있다”면서 “4박

5일로 묶여 있는 북한 내 체류기간 제한은 아직 풀리지 않았고, 중국에서 기차로 국경을 넘어 북한까지 여행하는 상품도 승인되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도 며칠 뒤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임.

● 스티븐스, 한반도 돌발사태 대응준비 갖춰(1/29, 연합뉴스)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29일 “미국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인 돌발사태에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함.
-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 기우회 조찬강연에서 대북관계와 관련,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굳건하고 명확하다”며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고립과 제재로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밝힘.
- 그는 이어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동의했다”며 “북한의 핵에 대한 야심이 국제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함.
- 또 “미국은 북핵 문제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도 탈북 주민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스티븐스 대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미군기지 이전이 한국의 기업, 시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준다는 사실 알고 있다”며 “이전 절차를 가속화하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北, ‘포사격’하면서 평화협정 거듭 요구(1/29, 노동신문)

- 북한이 연이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수역에 포사격을 퍼부으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음.
- 노동신문은 29일 ‘평화협정 체결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평화협정 협상의 시급한 개최는 조선반도의 긴장한 정세의 요구로 보나, 조선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의 시기성으로 보나, 현 국제정세 발전의 흐름으로 보나 적절하고 합당하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또 “불신의 악순환을 깨고 신뢰를 조성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가 내놓은 평화협정 체결 제안의 취지”라며 “정전협정 당사국

- 들이 이런 취지를 옹계 인식하고 평화협정 협상탁(협상테이블)에 나와 앉기만 해도 신뢰 출발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이어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북미) 사이에 신뢰가 조성돼 적대관계가 가셔지고 비핵화는 추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며 “유관국들은 평화협정 제안을 받아들이는 용단을 내려야 하며 이것을 외면하면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한편 북한의 대외적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서해 포사격 첫날인 27일 “미국이 조선(북)의 6자회담 복귀를 바라다면 어떻게든 불신 해소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당사국들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마주앉기만 해도 신뢰의 출발점은 마련된다”며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강조

● **北, 미국인 추가억류 공식 통보(1/30, 연합뉴스)**

- 북한이 미국인 추가 억류 사실을 미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미 국무부가 29일 밝힘.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뉴욕채널을 통해 이 같은 억류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함.
- “중국을 거쳐 북한에 지난 25일 들어간 미국 시민을 억류하고 있다고 북한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면서 “북한에서 우리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이 미국인에 대한 영사적 접근을 추진중”이라고 말함.
- 하지만 그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의 이름이나 신원에 대해서는 북측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함.
-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25일 조(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비법 입국한 미국인 1명이 억류됐다”면서 “현재 해당기관에서 조사중”이라고 보도
- 북한의 이번 확인으로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은 지난 크리스마스 때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미국 국적의 한국계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을 포함해 2명으로 늘어남.

● **北고려항공 평양-선양노선 잠정 운항중단(1/28, 연합뉴스)**

- 중국 선양(瀋陽)과 평양을 오가는 북한의 고려항공 노선이 승객 감소로 운항이 잠정 중단됨. 고려항공 선양지점 관계자는 28일 “지난 27일부터 선양-

- 평양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며 “다음 달 20일 이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힘.
- 고려항공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각각 왕복 1회 선양과 평양을 오가는 노선을 운항해왔음. 고려항공 측은 운항 중단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승객 감소로 고전해왔으며 지난 13일과 16일에도 승객이 없어 비행기가 뜨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해마다 12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일상적인 외국인 관광을 중단시키기 때문에 승객이 감소, 종종 결항하는 일이 있었지만 아예 한 달 가까이 운항을 중단한 것은 최근 수년간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음.

● **태법원, 北 무기 수송 승무원 구금 연장(1/29, 연합뉴스)**

- 태국 법원은 북한산 무기를 운송하다 억류된 화물기 승무원들에 대한 구금 기간을 내달 12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힘.
- 지난달 체포된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출신 승무원 5명은 불법무기 소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금 허가는 12일마다 연장되어야 하며, 이번 다섯 번째 연장임.
- 피사완프라칸 검사는 이 사건을 법정에서 다루지 결정하는 데에 적어도 1주일 이 더 필요하다며 내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기소할지,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할지 등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태 압류 북한 무기 최종 목적지는 이란(1/30, 연합뉴스)**

- 북한산 무기 40여t을 운송하다 지난달 12일 태국 당국에 억류된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의 최종 목적지는 이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태국 정부의 비밀 보고서를 인용, 30일 보도
- 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억류된 화물기의 최종 목적지는 이란 수도 테헤란의 마흐라바드 공항이고 무기를 선적한 업체는 북한의 ‘조선기계산업’(Korea Mechanical Industry)인 것으로 드러남.
- 이 보고서는 또 억류된 화물기에 로켓 49개와 로켓 발사대 1대, 폭약 도화선 세 상자, 로켓 추진식 폭탄 등이 실려 있었다고 밝힘.
- 유엔 주재 태국 대표단의 폰프롬 핏클라이 대변인은 북한산 무기에 대한 보고

서를 지난달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기타(대외 일반)

- 中 『류효명』 駐北 대사, 1/26 최태복·김기남(黨비서)과 離任 담화(1/26, 중통)
- 美대북인권특사, 재미 이산가족 상봉 지원(1/28, 연합뉴스)
- 中,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해야 한다(1/28, 연합뉴스)
- 北-베트남 외교관계 설정 60돌 즈음 ‘사진전시회 및 영화감상회’, 1/26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전영진(대외문화연락처 부위원장) 등 참가下 진행(1/26, 중통)
- 김영남, 駐北 덴마크 대사(「폴 오스카르 게오르그 호이네스」) 신인장 접수(1/27, 중통)
- 駐北 인도 대사, ‘공화국의 날’ 즈음 박길연(외무성 부상)·전영진(대외문화연락처 부위원장) 등 초청下 연회 개최(1/27, 중방)
- 北 외무성, 박의춘 외무상 등 참가下 駐北 중국 대사관 성원들 위한 연회 개최(1/27, 중·평방)
- 駐北 베트남대사, 1/28 北-베트남 외교관계설정 60돌 즈음 연회 마련(1/28, 중통)
- 일본의 과거 강제연행, 위안부 범죄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사과 및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촉구(1/29, 중방)

나. 6자회담(북핵)

● 유엔 고위급 인사 2명 내달 9일 방북(1/31, 연합뉴스)

- 유엔 고위급 인사 2명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특사 자격으로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유엔 고위 관계자가 31일 밝힘.
- 이번에 방북하는 유엔 인사는 린 파스코에 정무담당 사무차장과 김원수 사무총장 특보 겸 비서실 차장
-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엔 최고위급인 정무담당 사무차장의 방북은 그동안 중단됐던 유엔과 북한 간 고위급 대화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방북단은 북측 고위 인사들과 만나 북핵 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특사 방북 이후 유엔과 북한 간 고위급 채널이 완전히 복원되면 반 총장이 직접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
- 유엔은 지난 코피 아난 사무총장 시절 모리스 스트롱을 대북 특사로 임명한

바 있지만, 스트롱 특사가 유엔의 ‘석유-식량 프로그램’과 관련한 비리 연루 의혹으로 2005년 7월 물러난 뒤 유엔의 대북 고위급 대화채널은 중단됨.

기타(6자회담(북핵))

- ‘핵문제 근원은 끝나지 않은 전쟁’(1/26, 조선신보)
- ‘미국에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회담의 조속한 시작’ 촉구(1/26, 조선신보)

3 대남

● 北, 개성회의서 법률제도문제 제기, 北매체(1/25, 우리민족끼리)

- 북한이 지난 19~21일 개성에서 열린 해외공단시찰 평가회의에서 개성공단의 법률 제도상의 문제를 남한 대표단에 제기했다고 밝힘.
- 우리민족끼리는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법률제도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북남실무접촉(평가회의)에서 우리 측은 개성공단의 특수성과 관련해 법률 제도와 그의 완성에서 제기 되는 문제들도 제기했다”고 전함.
- 이 사이트는 “개성공업지구사업에서 나타나는 엄중한 위법 실태와 관련해 현실에 맞게 공업지구에 행정 및 사법기구를 내오고, 법집행에 대한 감독통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법제 정비사업을 강화하고 공업지구법을 국제적 관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정 보충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지적
- 사이트는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공업지구사업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바로 잡고 공업지구사업을 북남관계 개선과 협력사업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개성공업지구의 법률문제나 세척작성사업에서 기업과 해당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협상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주장함.

● 평화협정, 한반도 대결 허무는 기점(1/30, 조선신보)

- 북한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고 있는 조선신보는 30일 “평화협정 협상은 조선반도(한반도) 대결구도를 허물고 북남공동선언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

- 하는 기점이 될 수 있다”며 평화협정 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 ‘자주통일의 국제환경 조성’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북한)은 미국과 진행해온 양자대화 경위와 유관국 요구까지 고려해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
 - “그러나 남측에서 체제대결 세력이 정책 기초를 준 시점에서 조선으로서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보복성전’을 언급한 지난 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의 배경을 설명
 - 신문은 “북측은 특히 통일부, 국정원 등 대북관련 당국이 북남관계 개선을 막고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던지려 하는 데 대해 엄중 경고를 하고 있다”며 “체제대결은 북남관계의 극한점이자 전쟁이라는 것이 조선의 관점이고, 평화냐 전쟁이냐, 통일이냐, 분열이냐를 묻는 국방위 대변인 성명은 남조선 당국의 명백한 대답을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

● **北매체, 개성임금 ‘용돈론’ 연일 부각(1/30, 연합뉴스)**

- 북한이 이를 앞으로 다가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앞두고 연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보도를 쏟아내며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음.
- 북한 언론매체들은 개성에서 해외공단시찰 평가회의가 끝난 지난 21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성공단에 관한 북한 당국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전함.
- 북한이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57.881달러인 최저임금 문제, ‘근본적이며 선차적’이라는 수식어를 달아가며 이를 당국간 논의에서 최우선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언론들은 한결같이 현재 임금을 “말이 임금이지 용돈도 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돈”이라고 ‘용돈론’을 부각시키며 남한 당국을 압박
- 매체별로는 대외용인 우리민족끼리가 개성공단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음.
-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2일 해외공단시찰 평가회의 북측 단장 인터뷰 기사를 실은 것을 시작으로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개성공단 북한 사법권 확대, 세율 인상, 개성공단관리위에 북측 참여 등 내용을 각각 별도의 시리즈물 기사로 잇따라 내보냄.
- 이밖에 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등도 해외공단시찰

평가회의와 앞으로 이어질 실무회의 소식을 비교적 상세히 전함.

- 보도형식 면에서 보도 논평, 관계자 대담(인터뷰), 경제전문가 시론, 해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성공단 소식을 다루고 있어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케 함.

■ 기타(대남)

- 최근 통일교육 발간책자...‘관계개선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통일 소동’(1/26, 평방)
- 北『軍총참모부』, 1/27 서해상에서 “연례적 포실탄 사격훈련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군부대들의 포실탄 사격훈련이 계속될 것”(1/27, 중통)
- 6.15, 10.4선언의 기치 하...‘통일 운동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1/30, 노동신문)

02.01-02.05

2월

1주차

1. 대내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김정은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명령(2/1,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 김정은에 대한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모든 해외공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날 오전 제3국 주재북한 대사관의 한 소식통으로부터 “아침 독보(讀報)시간을 통해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지시문을 전달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힘.
- 이어 “내년부터 김정은의 생일 1월8일을 ‘국가최대의 명절’로 지정할데 대한 지시문도 함께 받았으며, 이같은 지시문이 해외의 모든 북한 대사관에 전달됐다고 이 소식통이 말했다”고 덧붙임.

● 김정일, 집권후 1월중 방문활동 최다(2/3, 연합뉴스)

- 지난 한달간 25회 공개활동, 군부대 8회 방문
- 국방부측은 고위당정회의의 북한동향 보고에서 “1998년 김정일 체제 1기 출범 이후 1월중 방문활동이 최다 수준”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함.

■ 김정일동향

- 2/1 제630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2/1, 조선중앙통신)
 - 현철해, 리명수(인민군 대장) 등 군 지휘부 수행
- 2/2 베트남 공산당 창건 80돌 즈음 농 득 마잉 총비서에게 축전(2/2, 중통)
- 2/3 김정일, 전국 청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 답사 행군 참가자들에게 선물 전달(중방)
 - 김중린(당 중앙위 비서), 이용철(청년동맹 1비서), 박도춘(자강도 당 책임비서) 등 참가
- 2/3 김정일, 함경남도 금야군 원평대흥수산업소 현지지도(2/3, 중통; 중방)
 - 김경희(당 중앙위 부장), 이제강, 이제일, 전일춘, 한광상(당 중앙위 제1부부장등) 동행

기타(대내 정치)

- 유엔 사무차장·총장특보 9일 방북(2/1, 중앙일보)
-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제41차 전원회의(평양) 개최(2/2, 조선중앙방송)
 - 올해 공동시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년동맹 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
- 당의 ‘선군혁명영도업적’ 지속 발전 강조(2/2, 노동신문 사설)
- 평화협정 체결 제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주장(2/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위원장 영도업적을 체득하기 위한 전국연구토론회(인민문화궁전) 진행(2/4, 조선중앙방송)
 - 최태복(당 중앙위 비서) 등 참가

나. 경제

● 北 김정일, 인민들 강냉이밥 제일 가슴아파(2/1, 노동신문 정론)

- 북한 노동당 기관지로 북한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노동신문이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상을 걱정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잇따라 소개
- 정론에서 김 위원장이 “아직 우리 인민들이 강냉이밥을 먹고 있는 것이 제일 가슴아프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에게 흰 쌀밥을 먹이고 밀가루로 만든 빵이랑 칼제비국(칼국수)을 마음껏 먹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 수령님 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우리 인민을 강냉이밥을 모르는 인민으로 세상에 내세우자”고 말했다고 보도

● 北 식량난 심각…함남서 아사자 속출(2/2, 좋은벗들)

-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은 2일 소식지에서 북한 노동당의 실태조사 자료를 인용, “북한 내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곳이 함경남도 단천시인데 올해 1월 초부터 26일까지 단천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가장 많이 나왔다”며 “단천시의 각 인민반마다 굶주림 때문에 일하러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망자도 하루에 1~2명씩 나왔다”고 전함.
- 이처럼 상황이 심각하자 북한 노동당은 1월 중순께 주민생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이런 소동이 벌어지자) 단천시 시당이 중앙당에 직보를 올렸고 지난달 26일 중앙당에서 ‘단천시 농장들에 2호미로 저장해둔 벼 중에서 1천t을 배급으로 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단천시당은 1월 하순 당장 생계가 어

- 려운 세대를 중심으로 배급을 서둘렀다”고 밝힘.
- 소식지는 또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함남도 단천시에서 한국전쟁 참전자 등 일부 주민들이 시당 건물 앞에 모여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고 하는 지금 돈교환(화폐개혁) 이후 다 굶어죽게 생겼다”면서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고 전함.
 - 또 “지난달 20일 인민무력부에서는 후방총국 국장급 지휘관과 군 간부, 내각 일꾼이 참석한 가운데 군량미 확보 회의가 열렸다”면서 “이 회의의 주요 요지는 농사한 알곡을 다 털어서라도 군대 식량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임.

● 北, 화폐개혁 주도 노동당 간부 경질(2/2, 연합뉴스)

- 북한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丹東)의 대북 무역상들은 2일 “화폐 개혁 이후 시장이 가동되지 않아 물가가 치솟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잇따르면서 화폐 개혁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화폐 개혁을 주도한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경질됐다는 얘기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파다하다”고 말함.

● 北, 지난해 대중 무역 7년 만에 감소(2/2, 니혼게이지아이신문)

-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전년에 비해 4.0% 줄어들면서 7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세관총서의 무역통계를 인용, 지난해 북·중 간 무역액이 26억8천76만달러로 집계됐다고 이같이 보도

● 북한 동해서 ‘명태’ 대신 ‘멸치’(2/2, 조선신보)

-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류 변화로 북한 동해에서 한류에서 사는 명태가 자취를 감추고 난류성 어종인 멸치가 많이 잡히는 것으로 전함.
- 악화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홍수산기업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어로체계의 과학화, 원양어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평안북도에 있는 북중기계연합기업소에 냉동설비 제작을 지시했으며 이곳 관계자들이 대홍수산기업을 찾아와 냉동설비와 설계도면을 보고 돌아갔다고 신문은 전함.

- **中→北 사치품수출 증가세…유엔제재 ‘무색’(2/4, 미국의 소리(VOA))**
 - 유엔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사치품 수출은 줄지 않아 작년에 월평균 미화 1천1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보도
 - 특히 북한이 중국에서 들여온 사치품 중에는 철갑상어알과 바닷가재, 고급 자동차와 TV·컴퓨터·비디오, 양주·담배 등 기호품, 가죽제품, 의류 등이 포함

- **北 노동당 조직정비…민심, 후계 ‘토끼잡기’?(2/4, 연합뉴스)**
 - 최근 북한 노동당이 주요 경제·대외 부서장을 잇따라 교체해 주목됨.
 - 당의 핵심 경제부서인 계획재정부, 재정경리부, 39호실의 책임자가 사실상 교체됨.

- **김책공대 대표단, 방미 마치고 귀국(2/4, 조선중앙통신)**
 - 시러큐스대학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김책공업대학 대표단이 4일 귀국했다고 보도
 - “체류 기간 대표단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두 대학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확대하는 문제들을 토의했으며 일련의 합의를 이룩했다”고 전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음.

- **北 ‘계획경제 복원’ 공언…민심에 백기 드나(2/4, 연합뉴스)**
 - 지난달 중순을 기해 주요 도시의 종합시장을 모두 폐쇄했던 북한 당국이 최근 시장거래를 다시 전면 허용해,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전 분위기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대북소식통은 이어 “시장뿐 아니라 문을 닫았던 외화상점들도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당국이 정한 환율과 실제 환율의 차이가 너무 커, 당국 환율대로 외화를 북한 돈으로 바꿔 외화상점 물건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전함.

-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결의 위반 4건 보고(2/5, 미국의 소리(VOA))**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 사례가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4건 보고됐다고 보도
 -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에르투그를 아파칸 위원장이 안보리 의장에게 제

출한 보고서를 인용, “4건의 제재 결의 위반사례가 각각 지난해 8월 14일, 10월 12일, 12월 23일, 12월 28일자로 접수됐다”고 전함.

- 아파칸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대북제재위가 “위반 사례 4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7인 전문가그룹’의 지원과 기술을 활용해 계속 조사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위반 사례를 보고한 나라들이 관련 정보를 비밀로 해줄 것을 요청해 구체적인 나라 이름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힘.

● 울산서 북한 모래수입 11개월만에 재개(2/5, 연합뉴스)

- 북한 모래수입업체인 울산시 남구 매암동 수양광업(주)(대표 박성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울산항 일반부두에서 울산선적 태천1호가 북한 장전항 앞 바다의 해저 모래를 수입하기 위해 출항함.

■ 기타(대내 경제)

- 조총련, ‘90일 운동(2.10-5.10)’을 힘차게 벌리기 위한 집행위원회를 각 지역본부들이 개별 진행(2/1, 조선신보)
- 미 의회조사국보고서, ‘북-경협자금 70억 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2/1, 한국경제)
- 4.15 기술혁신 돌격대 운동 개시 30돌 기념 중앙보고회 개최(2/3, 조선중앙통신)
 - 주체철 생산체제 완성, 공장·기업소의 CNC화 등의 기술혁신 성과 주장
 - 새 기록 창조를 위한 대정적 기술혁신운동을 벌려 전 단위에서 생산과 건설을 강조
- 북 쌀값 10배로 폭등, 신의주서도 굶어죽어...(2/3 동아일보)
- 북 시장 마비...단속원-주민 곳곳 충돌, 화폐개혁 후 극심한 혼란(2/3, 동아일보)
- 北보위부 엄경철, 일제 비밀수입 주도(2/3, 산케이신문)
-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대비약 속도로 ‘희천속도’를 강조(2/4, 노동신문)
 - ‘희천속도’를 김정일이 강성대국으로 내달리는 대진군속도, 대비약속도라고 명명하였으며, 김정일의 ‘불면불휴’의 강행군이 희천속도 창조의 근본원천임을 강조
- 평양시 가로등 현대화 사업 본격 추진 보도(2/4, 조선신보)
 - 가로등 중앙조종체계 수립, 나트륨등·무전극방전등으로의 교체 등을 소개
- 농근맹 중앙위 제59차 전원회의 개최(2/5, 조선중앙방송)
 - 공동시설 관철 과업 토의 및 결정서 채택, 한경성(농근맹 중앙위원장) 등 참석
- 화폐개혁 후 금지했던 북한 시장 다시 열림, 데일리NK(2/5, 중앙일보)
- 김정일 자금담당 김동운 해임설...후임 전일춘(2/5, 동아일보, 서울신문)

다. 군사

기타(대내 군사)

- 미 국방부 보고서: 북, 10년 내 핵탄두 ICB(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전망(2/3, 중앙일보)

라. 사회·문화

● 北 예술계, ‘사상교육용’ 외국고전 각색 활발(2/1, 조선중앙통신)

-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음악당에서 당·정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이 시연됐다면서, ‘이고리 모이세예브명칭 국립아카데미민속무용단’의 수석 지휘자인 아나톨리 니키토비치 구시가 지휘를 맡는 등 러시아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이 공연이 이뤄졌다고 보도
- 이 작품이 “나라를 위해 유익한 일을 많이 해야 할 청년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파멸시키는 귀족층의 부패한 생활과 러시아 봉건사회의 불합리성을 폭로·비판하고 있다”고 소개
- 외국 유명 고전을 주민사상교육 목적의 오페라 등으로 각색하는 북한 예술계의 ‘북한식’ 창작 활동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 활기를 띠고 있음.

● 북한에도 e북이…‘미래2.0’ 처음 확인(2/4, 자유북한방송)

-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전자책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최근 외국의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했다면서 북한의 전자책 시스템 ‘전자서고 미래2.0’을 4일 연합뉴스에 공개
- 이 시스템에는 정치, 문학 등 분야의 도서 1천500여권과 약 35만건의 정보가 수록돼 있는데, 북한 현대문학을 비롯해 상당 부분은 아직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로 추정
- 왼쪽의 분류 항목에는 ‘주체사상’, ‘문학작품’, ‘조선노래집’, ‘글쓰기 참조’, ‘문학대사전’, ‘조선말대사전’, ‘상식대사전’ 등이 나열돼 있는데 이를 클릭하면 다시 하위 목록이 펼쳐지는 방식
- ‘미래2.0’은 수록된 책, 노래 가사, 사전 등의 내용을 각종 키워드로 검색하는 기능도 갖춘.

기타(대내 사회·문화)

- 전국적인 원격 의료봉사체계 확립 보도(2/4,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영상협의체계 완성, 의료 정보DB화, 렌트겐 진단협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전반적 무상치료제에 의한 전국적인 먼거리 의료봉사의 실현 주장

2 대외

가. 일반

● 北, 로버트 박 석방 결정...억류 42일만(2/5, 조선중앙통신)

- 작년 12월 25일 두만강을 건너 무단 입북한 재미교포 대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씨를 석방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 그러나 박씨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풀어줄지는 밝히지 않았다.
- “해당 기관에서 북부 국경을 통해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하였던 미국 공민 로버트 박을 억류하고 조사한 결과, 미국 공민은 조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다”면서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심심하게 뉘우친 점을 고려해 해당 기관에서 관대하게 용서하고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힘.

기타(대외)

- 김영남, 주북 폴란드 특명전권대사 ‘에드워드 삐뜨쥐크’ 신임장 접수(2/1, 조서중앙통신)
-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냉정적 사고방식이라고 비난(2/1, 노동신문)
- 泰압류 북한 무기 최종목적지 확인안돼, AP통신(2/1, 연합뉴스)
- 伊, 북한으로 갈 음향·영상기기 압수(2/2, 연합뉴스)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비난(2/3, 노동신문)
- 북 외무성, 김정일 생일 즈음 주북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과 친선모임 개최(2/4, 조선중앙통신)

나. 6자회담(북핵)

기타(6자회담(북핵))

- 北, 시리아에 핵 관련 합금제조 기술 제공, 니혼게이자이신문(2/1, 연합뉴스)
- 비핵화 첫 공정은 미국과의 신뢰구축, 마음놓고 발걸음 떼기 위한 선결조건임을 주장(2/2, 조선신보)

3 대남

● 北, 동·서해 항행금지구역 추가설정(2/1,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31일 서해상 4곳과 동해상 1곳에 추가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짐.
- 군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31일 오전 7시부터 2일 오후 8시까지 서해 교동도 서방 5.8마일 해상과 평북 철산군, 평북 선천군 앞 서해상 4곳과 함남 금야군 앞 동해상 1곳 등 5곳에 각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

● 개성공단 실무접촉 결과 보도(임금인상 정당성 강조)(2/2, 조선중앙통신)

- 근로자의 노임 인상과 토지임대료 문제를 선 협의할 것을 제기하였고, 남측은 3통문제의 선해결을 주장하였다고 보도
- 임금인상은 공단사업 및 전망 관련 ‘관건적이며 초미의 문제’라고 강조
- 향후 실무접촉에서 근로자 숙소건설, 임금인상에 대해 협의하고, 3통문제는 군사실무회담에서 다루기로 하였다고 보도

● 北 신문, 금강산관광재개, 북남관계 돌파구(2/3, 노동신문)

- 금강산관광 사업이 재개되면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데서 돌파구가 열리게 된다”고 밝힘.
- 노동신문은 ‘현실은 북남협력 활성화를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남조선 당국의 북남관계 개선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며,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전함.

● 개성공단 임금 ‘200달러 이상’ 요구(2/3, 우리민족끼리)

- 이번 실무회담에 참석한 북측 대표는 3일 북한의 온라인매체 ‘우리민족끼리’와 인터뷰에서 “공업지구 근로자들의 현재 노임 수준은 하루 2,3달러 정도로, 사실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보잘것 없는 것”이라며 “지난 접촉에서 공업지구 근로자들의 신발, 의류 등을 제외한 생계비가 120달러 이상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근로자 노임이 적어도 200달러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또 다시 천명했다”고 말함.

● 남한 집권세력, 평화협정 체결 반대 비난(2/4, 노동신문 논평; 평방)

- “북한의 성의있는 제안을 핵문제를 걸고 부정하는 것은 도리어 핵문제 해결에 장애를 조성하는 근시안적인 망동”이라면서 비난
- 남한 집권세력의 평화협정 반대 목적은 “핵문제 해결이 아니라 외세와 야합하여 북을 무력으로 침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
- 북침전쟁 도발책동, 선제타격 발언, 급변사태 대비 등을 언급

■ 기타(대남)

-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폭언은 북침전쟁정책의 반영이라고 주장(2/1, 노동신문)
- 남북정상회담, 남 하반기-북은 상반기 선호, 국군포로·납북자 의제화 이견(2/1, 국민일보)
- 남북정상회담, D-day 저울질...장소는 북·제3국 유력(2/1, 서울경제)
-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보안법과 남한당국의 반통일 대결정책을 비난(2/2, 노동신문 사설)
- 북 ‘선임금인상’ 논의 고집, 개성공단 회담 합의 실패(2/2, 국민일보)
 - 3통은 군사실무 회담서...숙소 등은 추가 협의기로 함.
- 북, 서해4곳·동해1곳 항행금지구역 추가 선포(2/2, 동아일보)
- 6.15, 10.4선언에 기초하여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2/3, 노동신문)
- 북, 백령·대청도 해상 2곳 또 사격구역 설정(2/4, 한국일보)

02.06-02.15

2월

2주차

1. 대내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노동당 창당 65주년 ‘당 구호’ 발표(2/6, 조선중앙통신)

-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는 2월 3일 창당 65주년을 앞두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촉구하는 공동구호 240여개 발표
-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올해 대고조진군의 총적 투쟁방향이요 하며 2010년을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피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해야 한다고 지적
- 공동구호는 ▲김일성 주석에 대한 충성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단결 ▲정신력 강조 ▲인민생활향상 ▲경제 4대선행부문 강화 ▲경제관리 개선 ▲과학 발전 ▲사회생활 향상 ▲군 강화 ▲국방공업 발전 ▲당과 정권의 역할 강화 ▲조국통일 등의 분야로 나뉘어 제시
- 구호 중 120여개가 경제발전과 관련된 것이어서 올해 경제회생에 올인하고 있음을 재확인, “우리 당을 백두의 혁명전통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전도양양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자!”는 대목이 포함돼 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후계구도 구축작업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

● 北김정일 생일…식량난속 기념행사 ‘요란’(2/10, 연합뉴스)

- 김정일 위원장의 68회 생일(2.16)을 맞아 북한 곳곳에서 청소년, 학생 ‘충성 맹세 모임’, 업적 연구토론회, 우상화 영화상영, 체육대회 등 각종 기념행사 진행
- 북한 언론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관련 행사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
- 생일 전날인 15일 중앙보고대회를 비롯, 제14차 김정일화(花) 축전, 경축무도회, 음악무용종합공연, 제19차 백두산상 국제휘거(피겨)축전(15~17일), 수중발레(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시범경기 등 진행
- 노동신문은 설 당일인 14일 김 위원장 생일 관련 글들을 게재, 생일 행사들인 ‘김일성화, 김정일화’ 전시 현황과 백두산 인근 삼지연에서 열리고 있는 ‘2.16 경축 얼음조각 축전’을 크게 소개(얼음축전은 이번이 처음)

● 北 원산시 야경 띄우기...‘김정은 업적’(?)(2/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설을 맞아 “원산시에 황홀한 불야성이 펼쳐졌다”며 “평양의 하늘가에 터져올랐던 축포의 불꽃(축포야회)이 고스란히 내려앉은듯하고, 전설의 신비경 같다”고 자랑
- 작년 12월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해 북한 언론은 지난 한해를 “변이 난 해”로 주장하면서 그 성과의 하나로 ‘원산의 불야성’과 평양의 축포야회를 꼽고 이를 북한의 ‘밝은 미래’와 연결시키고 있음.
- 원산시 야경 공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 경제부문 첫 공개활동으로 원산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면서 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야경을 새롭게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1, 2단계로 나눠 진행돼 작년 말 모두 끝냄.
- 원산 시내 불장식(네온사인)을 띄우는 배경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이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옴.

■ 김정일동향

- 2/5 北-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체결 10돌 즈음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 공연 관람(2/5, 중통)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정각(軍 총정치국 제1부국장), 최태복·김기남(黨 비서들), 김경희·장성택·김양건(黨 부장들), 강석주(외무성 제1부상) 등 함께 공연 관람
- 2/8 현대적으로 꾸러진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지지도(2/8, 중통)
 - 태중수(함경남도총 책임비서), 김경희·장성택(黨 부장들), 주규창·이제강·이재일·전일춘(제1부부장들) 동행
- 2/8 왕가서 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 접견 및 만찬(2/9, 중통·중방)
 - 김영일·김양건(黨 부장), 류효명(駐北 中 대사) 참석
- 2/9 2.8비날론연합기업소 再次 방문 및 최상의『특별감사』전달(2/9, 중통)
 - 김영일(내각 총리), 태중수(咸南道黨 책임비서), 김경희·장성택(黨 부장) 등 黨책 임간부들 동행
- 2/15 은하수관현악단의 설명절음악회를 관람(2/15, 조선중앙방송)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정각(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인민군 총참모장) 등 군관계자와 노동당 최태복·김기남(비서), 김경희(경공업부장), 장성택(행정부장), 김영일(국제부장), 김양건(통일전선부장), 강석주(외무성 제1부상) 등이 동행

나. 경제

● 김일성의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창조 5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2/8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태복 노동당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당, 정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보도
-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이란 1960년 김 주석이 당시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를 현지지도하면서 만들었다는 북한식 대중지도 방식임.

● 中, 나진항 진출...‘내친김에 평양까지’(2/12, 연합뉴스)

- 동해 진출을 위해 북한 나진항을 거점항구로 개발키로 한 중국이 연변(延邊)-평양 간 관광루트 개설에도 의욕을 보임.
- 연변조선족자치주는 훈춘에서 북한 나진과 평양, 판문점에 이르는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키로 했다고 12일 밝힘.

● 北 장성택, 화폐개혁 혼란 수습 주도(2/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 “1월말께 장성택 행정부장의 주재 하에 경제 전문가 수십명이 강원도 원산시 모처에 모여 며칠간 회의를 했다”며 “화폐개혁 이후 민심이반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보도하며,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화폐개혁 이후 사회·경제적 혼란을 수습하는 주역을 맡고 있다고 밝힘.
- 회의에는 “평양 인민경제대학과 강원도 원산경제대학 등의 박사급 경제전문가들과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지배인,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지배인 등 경제실무 전문가 수십명이 참가했다고 한다”면서 “회의 직후 경제 전문가들로 ‘긴급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안다”고 전함.
- 경제정책의 방향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처럼 시장방식이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원칙의 틀 안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을 모도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함.

기타(대내)

- 北 기계공업부문,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 생산에 도입 보도(2/5, 중통)
- 北 중앙식물원, '뇌성나무'를 조선의 기후풍토에 적응시키는 성과 이룩 보도(2/5, 중통)
- 개성도시건설사업소 등 개성시내 일꾼-근로자들이 32종 3만1,000여점의 중소농기구들을 농촌에 지원하는 등 농촌지원사업 성과 보도(2/8, 중통)
- 지영일(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北은 △라선시의 특별시 지정 △국가개발은행 설립 △유럽위원회의 1,100만유로 규모 對北투자계획 △프랑스특사 방북 △北-美 과학관여연합 대표단 방북 등 “인민생활향상 뿐 아니라 대외경제사업도 중요시하고 있다”는 내용 掲載(2/10, 조선신보)
- 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길이 빛나라 불멸의 영도자육이여’ 준공식(2/11, 중통)
- 백제룡(江原道黨 책임비서) 등 참가下원산청년발전소에서 진행(2/12, 중통)
-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사업소 일꾼들, 2.11 대계도간석지 건설장에서 10만산 대밭파 진행(2/12, 중통)
- 농업기계화연구소 과학자들, ‘벼수직파기계’(정보당 벼 수확고 20% 향상, 1일 2~3정보 파종 가능) 연구 도입 보도(2/11, 중통)
- 北 올 식량 턱달치(129만톤) 부족...(2/10, 동아일보)
 - 정부, 작년 411만톤 생산 추정, 올해 수요 540만톤에 턱없이 北측선 501만톤 생산 주장
- 김영일 내각총리 화폐개혁 혼란 사과, 좋은벗들(2/10, 동아일보)
- 화폐개혁 이후 신권가치 두 달 새 1/10로 떨어져, 요미우리신문(2/10, 세계일보)
- 北, 무역회사에 식량수입 독려, 좋은벗들(2/10, 세계일보)
- 北·中, 6자·외자유치 ‘투트랙’ 접근(2/14, 연합뉴스)
 - 北조선대풍투자그룹 움직임 주목
 - 北, 中 대북투자 유치...中, 北 6자회담 복귀 유도
- 北원동연, 최근 中서 외자유치 활동(2/15,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통일 원동연 통일전선부(통전부) 부부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 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지난 6일 베이징(北京)을 방문, 일주일 상 머물면서 외자유치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짐.
- 北, 외자 100억달러 유치...내달 평양서 조인식(2/15, 연합뉴스)
 - 대풍그룹에 정통한 소식통 밝혀...北 GDP 70% 육박 ‘초대형’ 외자 유치 성사
 - 왕자루이 방북시 조율...6자회담 복귀 빨라질듯

다. 군사

● 北 김정일, 군사력만이 인민생활 담보(2/12,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초 남한 공격상황을 상징한 ‘근위서울류경수제 105탱크사단’의 가상훈련을 참관하면서, 막강한 군사력을 담보로 경제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북한 언론이 12일 보도
- 노동신문은 ‘백두산총대바람으로 10월의 승리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위원장이 당시 “적들이 우리를 어찌보려고 기회를 노리는 조건에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강국을 건설하자고 해도 막강한 군사력의 담보가 있어야 한다”며 “선군의 위력으로 대고조를 일으키자는 것이 나의 의도”라고 말했다고 보도
- “경공업과 농업 활성화의 열쇠도, 인민생활 향상의 근본원천도 선군에 있고, 총대에서 쌀도 전기도 천도 기계도 쏟아져 나온다고 우리는 주저없이 선언한다”고 강변

라. 사회·문화

● 탈북 난민 美입국 4개월째 전무(2/10, 미국의 소리(VOA))

- 미국 정부의 ‘2010 회계연도’가 시작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한 명도 없었다고 보도
- 미국 국무부의 난민 입국현황 보고서를 인용, “미국 정부가 지난해 9월 태국에서 탈북자 1명을 수용한 이후 탈북자 입국이 넉 달째 전무한데 이런 현상은 2007년 9월 이후 처음”이라고 밝힘.

■ 기타(대내 사회·문화)

- 北, 제21차 동계올림픽(2.12~28, 캐나다 밴쿠버)에 고현숙(여자속도빙상), 리성철(남자 피겨) 등 선수 2명 파견 예정(2/5, 조선신보)
- 北유별미(8)양이 제56회 슈만 국제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조 1등상과 특별상을 받았다고 보도(2/9, 조선중앙TV)
- 北 중앙식물원 국제친선식물관, 겨울베고니아와 엽자화품종의 식물 등 외국에서 보내온 선물식물 성과적으로栽培(2/10, 조선중앙통신)
- 北 고고학자들, 평양시 승호구역 리천리 일대에서 단군시기 집자리유적(남북길이 10.6~

- 10.8m, 동서넓이 6.15~6.3m, 단검·창끝·도끼 등 발굴) 새로 발굴(2/10, 조선중앙통신)
- 北, 외국인 관광 두달만에 허용, RFA(2/10, 국민일보)
 - 북한관광 전문인 중국 고려여행사의 사이먼 카커털 대표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관광객들과 함께 주말인 오는 13일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해 평양과 개성, 묘향산 등을 여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탈북여성, 100만원에 인신매매, 북·중 국경경비원 중개, 아시히신문(2/12, 국민일보)
- 北선수단 입촌식 돌연 취소(2/12, 서울신문)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5일 평양대극장에서 조총련 금강산가극단 단장인 리룡수를 단장으로 하는 ‘2.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을 만나 환담(2/15, 조선중앙통신)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등이 배석

2 대외

가. 일반

- 발레리 수히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조-(북)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체결 10주년을 맞아 연회 마련(2/8, 조선중앙방송)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궁석웅 외무성 부상, 오룡철 무역성 부상,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연회에 초청(함경북도 청진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
 - 北 중앙신문들, 개인필명의 글들을 통해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체결』 10돌 즈음 “兩國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나가려는 것은 정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입장”이라고 강조(2/9, 조선중앙통신)

[유엔 특사 방북 관련 보도]

- 北방송, 유엔사무총장 특사 평양 도착 보도(2/9, 평양방송)
 -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특사인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과 그 일행이 9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평양방송이 이날 오후 보도
 -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꾼과 주조(주북) 유엔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가 사무차장 일행을 맞이했다”고만 보도

- **北 외무상, 유엔 사무총장 특사 만나(2/10,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외무상이 1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유엔 사무총장 특사인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 일행을 만나 담화했다고 보도

- **방북 유엔 대북특사, 김영남 면담(2/11,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유엔 사무총장 특사인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 일행을 만나 담화했다고 보도
 - 통신은 또 별도 기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유엔 사무총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구두친서와 선물을 보내왔다고 파스코 특사가 이를 김영남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힘.
 - 박길연 외무성 부상과 제롬 소바주 유엔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UNDP) 상주대표가 배석
 - 파스코 특사 일행은 이날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등을 참관했으며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

- **유엔 특사, “北, 6자회담 복귀 준비안됐다”(2/11,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특사인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12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북한측은 대북제재 등의 조건 때문에 6자회담에 돌아올 준비가 안됐다고 말했다”고 전함.
 - 방북결과 설명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6자회담이 전제조건없이 열려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고 말함.
 - 북한측 인사는 “모두 유엔의 대북제재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북한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라는 점을 북측에 전했다”고 밝힘.
 - 파스코 특사는 이날 오후 평양 순안공항에서 3박4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평양발로 보도

● 中 조직부장, 북중관계 발전은 전략적 방침(2/13, 조선중앙통신)

- 중국 리위안차오(李源朝) 정치국 위원 겸 공산당 중앙조직부장이 북중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밝힘.
- 리 부장은 11일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기념 경축연회에 참석해 “조선(북) 동지들과 함께 각 분야의 협조와 교류를 확대, 심화시키고 전통적인 중·조선선에 끊임없이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친선협조관계의 보다 아름다운 앞날을 창조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

● 北 김계관, 中과 비핵화 촉진방안 논의(2/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13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김계관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우다웨이 (武大偉) 중국 정부 조선반도문제 특별대표의 초청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고 소개
- 그는 “방문 기간 쌍방 사이에 조(북)·중관계와 평화협정 체결, 제재 해제, 6자회담 재개 등 신뢰를 조성해 조선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됐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김계관 외무성 부장은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 영어동시통역사인 최선희씨 등과 함께 9일부터 4박5일간 머물며 중국 정부의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로 임명된 우다웨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릴레이 회담을 가짐.

● 北 김영남, 대화·협상으로 북미 적대관계 종식(2/15,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앞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힘.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8회 생일을 맞아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 높이 나라들 사이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
- 남북관계와 관련,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추종하고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일 것”이라고 강조

기타(대내동향)

- 『제14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 1/31~2/2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진행(2/5, 평양방송)
- 駐적도기네 北대사 김춘봉, 2/1 駐在國 정부수상 의례 방문(2/5, 조선중앙통신)
-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2/2 ‘2.16경축 김정일화전전시회’ 中國 심양에서 개최(2/6, 조선중앙통신)
- 駐나이지리아 대사에 정확세 임명,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2/6, 평양방송)
- 中 외교부, 새해 즈음 自國駐在 北 대사관 성원들과 친선모임 진행(2/7, 조선중앙통신)
- 미국의 대만에 대한 64억 달러 규모의 무기판매 결정으로 미·중 사이 군비경쟁과 정치군사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외신보도 인용 보도(2/8, 조선중앙통신)
- 泰, 北무기 운송 승무원들 불기소 결정(2/11, 연합뉴스)
승무원은 본국 송환, 무기는 계속 압류
- 美 “현 시점에서 김계관 방미논의 없다”,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2/13, 연합뉴스)
- 담배밀수 北외교관 항소심서도 유죄, 자유아시아방송(2/13, 연합뉴스)
- 北, “발굴유해 가져가라”…美에 제의(2/14, 연합뉴스)
- 北 관리, 러시아에 망명 요청, 교도통신(2/15, 연합뉴스)
 -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우수리스크 지역을 통해 밀입국했다 붙잡힌 북한 관리(남. 40, 과거 북한 내 산업 관련 기관에서 근무)가 최근 러시아 정부와 유엔난민 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망명을 요청

나. 6자회담(북핵)

- 北 노동신문, 평화협정 우선체결 재차 강조(2/7,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이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한 후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절박한 요구’라는 개인 필명 논설에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조선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밝힘.

- 현 시기 한반도의 전쟁재발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급선무는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

[中 왕자루이 방북 관련 보도]

● **中 왕자루이, 평양 도착…방북일정 돌입(2/6, 조선중앙통신)**

- “왕가서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표단이 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으나 도착 이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왕 부장은 2004년 1월과 2005년 2월, 2008년 1월, 2009년 1월 방북했을 때마다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했고, 특히 작년에는 해외인사로는 처음으로 김 위원장이 와병에서 회복된 이후 직접 만나기도 했음.

● **방북 中대표단, 노동당 국제부와 회담(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측에서 김영일 부장을 비롯한 국제부 일꾼들이, 중국 측에서는 왕 부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참석했다고 보도
- 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당 활동 정형(상황)을 통보하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문제와 호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어 전담 통역이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김성남)으로 승진 기용된 것으로 나왔으며, 조선중앙TV는 이날 왕 부장 일행이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

● **中 왕자루이, 北 최태복과 회담(2/8, 조선중앙통신)**

-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겸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왕 부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과 회담했다고 영문기사로 짧게 보도
- 왕자루이 부장은 “김정일의 영도밑에 조선인민이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강조
-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의사 표명

- 이와 관련 최태복 비서는 “양국각 전통적 우의는 고귀한 자산”이라면서 “올해 중국에서 개최되는 엑스포와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언급(2/8, 신화통신)

● **中 왕자루이, 삼지연악단 공연 관람, 만수대거리 살림집 참관(2/8, 조선중앙TV; 평양방송)**

- 북한을 방문 중인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7일 동평양 대극장에서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 작년 말 완공돼 입사를 마친 ‘북한판 뉴타운’인 만수대거리 살림집과 대동강 과수종합농장, 만경대혁명학원 참관을 평양방송이 보도

● **北 김정일, 왕자루이 면담(2/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일 저녁 방북중인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면담하고 만찬도 함께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새벽 보도
- 왕 부장은 김 위원장에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구두친서’와 대표단이 준비해온 선물을 전달했으며, 김 위원장은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후 주석에게 보내는 인사를 전한 뒤 왕 부장과 “친선적인 담화를 했다”고 통신은 소개했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음.
- 김영일 당 국제부장과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류사오밍(劉曉明) 주북 중국 대사가 배석했으나 북핵문제와 대미외교를 총괄하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은 배석하지 않음.
- 왕 부장은 9일 오전 역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공항을 통해 귀환

● **북-중 회담 사흘째…실무협의를 듯(2/11,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은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중 사흘째인 11일에도 6자회담 재개방안을 논의하는 회담을 이어감.
-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현재 베이징에 머무르고 있다”며 “김 부상은 중국 정부의 한 반도 사무 특별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고 확

인, 이어 “우 특별대표와 김 부상이 이미 회담을 열어 북중 관계와 북핵 6자회담 및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함.

기타(6자회담(북핵문제))

- 중국 왕자루이 방북 관련 보도기사
 - 北, ‘외교 이벤트’ 공세, 경제 상황 급박한 듯(2/8, 동아일보)
 - 北, 中보따리 보고 큰 거래 시도할 듯(2/8, 국민일보)
 - 왕자루이 이번에도 ‘6자’ 해결사?(2/8, 세계일보)
 - 위기때마다 中특사 방북 회담재개 이끌어, 일각선 양국 우호증진차원 방문 신중론도…
 - 왕자루이 만난 김정일, ‘후진타오 구두친서’ 받아(2/9, 국민일보)
 - 北 6자회담 복귀·中 경제지원 논의한 듯, “친선적인 담화”…6자 복귀 시기 전담설도
 - 왕자루이, 최태복 북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최고인민회의 의장)와 회담(2/9, 경향신문)
- 중국이 10일 북핵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63) 전 외교부 부부장을 한반도 특별대표에 임명(2/10, 연합뉴스)
- 방중 김계관-우다웨이(한반도 특별대표)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 논의(2/10, 동아일보)
- 중·북·유엔 긴박한 특사외교…접점찾기 빨라진다(2/10, 국민일보)
 - 왕자루이, 의장국 체면 세우려 북설득 팔견어/김계관, 실무자와 전격 방중 본격협약 암시/파스코, 3박4일 평양 머물며 현안 집중논의

3 대남

● 北 “체제전복 책동 강력조치할 것”, 인민보안성·국가안전보위부 ‘연합성명’ 발표 (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는 8일 ‘연합성명’을 발표,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 체제 전복 시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온갖 적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혁명강군의 총대는 물론 인민보안 및 안전보위군의 모든 역향과 수단이 총동원될 것”이라고 밝힘.
- 양대 공안기관인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의 연합성명을 낸 것은 처음
- 남측의 체제전복 시도 사례로 “서해 ‘북방한계선’고수를 노리는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모험적인 군사적 준동”, “전연(전방)과 해안, 국경지역을 통해 감

행하고 있는 분별없는 ‘대북내부교란’ 작전”, “반공화국 뼈라 살포 행위가 전방에서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온갖 정탐역량과 수단이 투입된 체제 전복 책동이 우리나라 주변으로부터 내륙지대 깊이까지 뻗치고 있는 것”을 꼽음.

● **北방송, 남 무성의로 금강산 실무회담 결렬(2/8, 조선중앙방송)**

- 개성에서 열린 개성-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간 실무회담이 “남측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아무런 합의도 이룩하지 못했다”고 비난
- 북측이 개성관광과 금강산관광을 각각 3월1일과 4월1일 재개하자는 합의서 초안을 제시했지만 “남측이 그 무슨 3대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개할 수 없다고 하는가 하면 그 무슨 묵념을 하는 추태를 부리는 등 매우 오만무례하게 놀아대며 문제토의에 고의로 복잡성을 조성했다”고 주장
- 방송 말미에 남북이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 문제를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임.

● **北주간지, 개성공단 임대료 인상 요구(2/14, 통일신보)**

-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는 개성공단 토지임대료가 “1m²에 4달러도 안되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인상해야 한다”며 “남측이 북남관계를 새롭게 계산하고자 하는 조건에서 개성공단도 응당 ‘새판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보도
- 통일신보는 13일 “토지를 50년간 임대해주면서도 임대료가 이렇게 저렴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해외 경제특구들에 대한 (남북)공동참관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남측이 토지임대차계약의 완료를 운운하지만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50년으로 여전히 유효하며, 만약 남측 주장대로라면 남조선의 토지공사는 토지임대차계약의 완료에 따라 개성공단 개발업자의 지위를 내 놓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함.

■ 기타(대남)

- 남북 오늘 ‘정부 대 정부’ 금강산 회담(2/8, 중앙일보)
 - 현정부 들어 처음...통일부·아태, 관광 중단 19개월 만에 재개 논의

02.16-02.21

2월

3주차

1. 대내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노동당 중앙위·중앙군사위 공동구호(2·3發表) 관철 평양시 군중대회, 2·13 김일성광장에서 진행(2/13, 조선중앙방송)**
 - 최태복·김중린(黨비서), 양형섭(상임위 부위원장), 곽범기(내각부총리), 최영림(평양시당 책임비서/보고), 장인수(평양시당 비서/사회) 등 참가

- **김정일 생일(2/16) 경축 중앙보고대회, 4·25문화회관에서 진행(2/15,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경축보고), 전병호, 김영춘, 이영무, 오극렬, 이용호, 김정각, 김일철, 최태복, 김국해, 김중린, 김기남, 양형섭, 최영림, 김영대(사회민주당 위원장), 유효명(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이기석(총련 중앙상임위 부의장), 최은복(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의장) 등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미 간의 적대관계 종식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
 - “자주·평화·친선의 기치 높이 나라들 사이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힘.

- **노동신문, 김정일 생일 사설, “절대 믿고 따르라”(2/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선군조선의 광명한 앞길을 밝히는 태양”이라고 찬양하면서 주민들에게 김 위원장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것”을 촉구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의 68회 생일인 이날 ‘당의 두리(주위)에 일심단결하여 인민의 이상 이 꽃피는 미래에로 신심 드높이 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 “수령 결사옹위는 민족번영의 생명선”이라면서 “전체 인민군 장병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김정일)께서 이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이 세상 끝까지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
 - 신문은 또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의 권위와 안녕을 모든 사업과 생활의 첫

자리에 놓고 삶의 순간순간을 수령 결사옹위 정신으로 수놓아가야 한다”며 ‘절대적 충성’을 독려

- 이어 김정일 위원장의 왕성한 공개활동을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 걸음 백 걸음으로 내달리는 비약의 정신”이라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장군님의 강행군 보폭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분발을 요구

● **北, 이름에 ‘정은’ 뜻써…김정은 우상화 신호?(2/17, 자유북한방송)**

- 북한 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3남 김정은과 이름이 같은 주민들에게 ‘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
- ‘함경남도 단천 통신원’의 전언을 인용해 “각 급 당위원회와 보안서, 주민등록 기관들이 ‘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개명을 지시하고 있다”면서 “단천에서도 이름이 ‘정은’인 주민 20~30명이 개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힘.
- 북한은 1974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됐을 때도 1~2년 후 동일한 주민 이름의 일제 개명을 추진, 성과 이름이 똑같은 경우는 물론 성이 다른 ‘정일’이라는 이름까지 모두 바꾸도록 함.

● **北김정일, 보위부 공연 관람…후계 선봉 힘신기?(2/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첩과 주민 사찰을 주업무로 하는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의 예술선전 공연을 관람해 주목
- 김 위원장이 우동측 보위부 수석부부장(국방위 위원 겸직)의 수행을 받으며 인민군 제10215군부대(보위부의 대외 명칭)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
- 작년 4월 보위부 예술선전대 공연을 처음 관람했고 이번이 두번째

● **공동구호 관철 도(道)군중대회(2/21, 조선중앙통신)**

- 당창건 65주년에 즈음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구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도 군중대회가 열렸다고 보도
- 군중대회에는 지방 당·정권·경제기관·근로단체의 책임일꾼, 각 계층 근로자, 청년학생이 참가

● 北강능수 전 문화상, 노동당 부장 임명(2/21, 조선중앙통신)

- 지난달 중순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 강능수 전 문화상이 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21일 확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민보안성협주단의 첫 공연 관람을 수행한 인물을 거명하면서 “부장들인 김경희, 장성택, 강능수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의 책임 간부”라고 밝힘.
- 앞서 조선중앙방송은 지난달 1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안동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장을 문화상에 임명했다며 강 전임 장관에 대해 “다른 직무에 조동(이동)됨에 따라 문화상에서 해임했다”고만 전함.

■ 김정일동향

- 2/15 은하수관현악단의 설명절음악회 관람(2/15, 조선중앙통신)
 - 김영춘(인민무력부장/차수),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대장), 리영호(총참모장/대장), 최태복·김기남(黨비서), 김경희·장성택·김영일·김양건(黨부장), 강석주(외무성 제1부상) 등과 함께 관람
- 2/17 공훈국가합창단 및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2/17, 조선중앙통신)
 - 김영춘(軍 차수), 김정각·이영호(軍 대장들), 우동측(국방위원회 위원), 최태복·김기남(黨 비서들), 김경희·장성택·김영일·김양건(黨 부장들) 등 동행
- 2/18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관람 및 『감사』전달(2/18, 조선중앙통신)
 - 공훈국가합창단 공연관람시(2/17 보도) 동행한 軍 · 黨 주요 간부들 동행
- 2/20 황해북도 송림시 소재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2/20, 조선중앙통신)
 - 최룡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주규창(군수공업부) · 리제강(조직지도부) 당 제1부부장이 동행

■ 기타(대내 정치)

- 김정일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2/11 백계룡(강원도당책) 참가下 원산유리병공장·구두공장·화학공장·농업종합대학에서 진행(2/12, 조선중앙방송)
- 2.8비날론연합기업소, 2/12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쉼기모임 진행 및 김정일이 보낸 ‘특별감사와 선물’ 전달(2/13, 조선중앙방송)
- 김영남·김영춘·김기남, 2/15 在日조선인예술단과 평양대극장에서 담화(2/15, 조선중앙통신)
- 권력기구도 개편(2/18, 매일경제,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 통일부 권력기구도 발간 ‘노동당 전문부서 21개⇒18개’

- 복원된 노동당 경공업부장/南국보법철폐 대책위 폐지/북 군부 '대남통' 김영철, 공작 총책으로, 대남 경험기구 '민경협' 건재

나. 경제

● 北식량난 심각...‘아사자발생, 급속히 전역 확산’(2/16, 좋은벗들)

-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지난달 중순 이후 아사자 발생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좋은벗들’은 16일 소식지에서 북한 중앙당 간부의 말은 인용,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아사자 발생이) 함경남도 단천, 함경북도 청진, 평안북도 신의주 순으로 많았는데 현재는 평안남도 평성과 순천이 가장 많고 함경남도 함흥·단천, 함경북도 청진 순”이라면서 “1월 중순 이후 아사자 발생이 전역으로 퍼지면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함.
- 소식지는 또 평안남도 평성시 간부의 전언이라면서 “국가조치(화폐교환) 이후 새 화폐를 많이 풀어준 농민들은 그런대로 생활을 유지해가는 반면 도시 노동자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면서 “화폐교환 이후 시장을 전격 철폐하고 상품공급 체계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식량도 공급도 끊기자 도시 노동자들이 굶어죽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 이어 “특히 평안남도 평성시의 경우 작년 6월 도매시장 철폐 이후 주민들의 경제상황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다시 화폐교환이 이뤄져, 장사에 의존해 살던 노동자들이 주로 죽어나가고 있다”면서 “평성시당과 순천시당은 작년 농작물 수확량 가운데 약 65%를 군량미로 거둬들이고 농민에게는 평균 5개월 분량만 배분해 식량부족이 심한 것”이라고 말함.

● 北-中 세관 업무 재개...교역은 한산(2/18,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과 설 연휴가 겹치면서 문을 닫았던 중국 단둥(丹東)과 북한 신의주 세관이 18일 업무를 재개, 교역은 많지 않았음.
- 이 소식통은 “이날 북한에서 들어온 차량은 3대에 불과했다”며 “북한이 화폐개혁 이후 통제했던 장마당을 다시 허용했다는 말이 들리지만 완전히 정상화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임.
- 또 다른 대북 무역상은 “세관 업무가 재개됐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춘제 연휴

가 끝나지 않아 교역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북한 당국이 무역과 시장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다음주나 돼야 교역이 회복되고 북한의 새해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다음달에야 북·중간 교역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

● **평양에 전문술집 처음 등장(2/18, 조선신보)**

- 올해 들어 평양시에 술과 안주만 판매하는 전문술집들이 처음 등장해 애주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8일 보도
- 평양 고려호텔과 연결되는 중구역의 창광음식점거리에 ‘봄빛술집’, ‘금강술집’ 2곳이 문을 열었고, 서성구역의 유명한 대중식당 ‘연못관’은 최근 전문술집으로 업종을 바꿨으며, 모두 평양시 인민봉사총국에서 운영한다고 보도

● **다급해진 北, 시장 열고 식량거래 단속말라(2/18, 좋은벗들)**

-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시장을 무조건 종전처럼 열고 시장내 식량거래는 절대 단속하지 말도록 공안기관에 지시했다고 보도
- “당 중앙위원회가 당 경제정책검열부에서 올린 전국 각지의 식량난과 주민실태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식량에 대한 단속을 절대 하지말테 대한 지시’를 각 법기관에 통지했다”면서 “중앙공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 모든 시장을 이윽고 종전대로 열고 식량거래는 절대 단속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힘.
- “인민보안성도 당 중앙위의 지시를 받아 각 도·시·군 보안당국에 위법품 외에는 시장 단속을 하지 말되 특히 식량 거래는 단속하면 안 된다고 특별지시를 내렸다”며 “아울러 보안원은 시장에서 장사꾼과 말다툼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서는 안되고 장사꾼끼리 싸우더라도 개입하거나 단속하지 말라는 지침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임.

■ **기타(대내 경제)**

- 평양시, 관리사업을 종합조종실에서 원격조종하는 ‘가로등중앙조종체계’ 수립(2/12, 조선중앙통신)
- 강원도 원산시의 송도원종합식료공장(20여개의 생산공정으로 400여개의 식료품 생산), 함북 청진시의 수성천종합식료공장합 신설 등 각지에서 식료공장 건설과 상업망 개건사업 활발히 추진中(2/13, 조선신보)

- 낙원기계연합기업소(平北 신의주시 소재) 제작 대형산소분리기, 2/16 咸南 홍남가스화대 상공사장에 도착(2/16, 조선중앙방송)
- 북한, 100억달러 규모 외자 유치(2/16, 국민일보)
 - 사실일뎐, ‘6자’ 조건인 선 제재 해제와 같은 효과
 - 中, 적극적 역할 힘입어 곳곳서 복귀 신호 감지
- 현대적으로 개건된 『향산호텔』(묘향산內) 준공식, 2/17 김영춘·김정각·이영호·최태복(준공사)·김기남 등 참가下 현지진행(2/18, 조선중앙통신)
- 미곡협동농장(黃北 사리원시)·동봉협동농장(咸南 함주군) 등 사회주의이상촌 건설, 양 어장과 닭공장건설, 농촌의 메탄가스화 등 김정일의 농업부문 업적 칭송(2/18, 조선중앙통신)
- 강계편직공장·강계포도술공장 등 慈江道內 수많은 공장들이 “생산공정의 현대화·과학화를 통한 경제강국건설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선전(2/18, 조선중앙통신)
- 北국가개발은행, 자본금 100억달러 목표(2/18, 월간중앙)
 - 대풍그룹 설립제안서 공개…향후 1천250억달러로 증가, 올해 하반기 ‘경제개발 국제세미나’ 평양개최 계획

다. 군사

● 北 잇단 ‘화력 과시’…작년초 훈련장면도 공개(2/1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6일 다큐멘터리 ‘위대한 헌신-변이 난 해 2009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난해 공개활동 행보를 상세히 전함.
- 약 1시간 분량의 이 프로그램 후반부에는 북한군의 포사격 훈련 장면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 대의 장사정포와 로켓포가 시커먼 포연 속에서 불꽃을 내며 포탄을 연사하는 장면을 30초 가량 보여줌.
- 이 영상은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 수행자 면면을 볼 때 작년 2월 12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포병사령부 산하 제681군부대의 포사격 훈련 상황으로 추정
-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처럼 포사격 등 군사훈련 장면을 비중있게 편집하는 것은 드문 사례

라. 사회·문화

● 일부 北주민 ‘시민기자’로 활약(2/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가 일부 북한주민들이 작년부터 ‘시민기자(citizen reporter)’로 변신해 북한의 내부소식을 외부로 알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RFA이 보도
- CPJ는 최근 발표한 2009년 연례보고서에서 “기자로 훈련받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북한 내부 상황을 나름대로 취재해 관련 정보를 일본 혹은 한국 언론사에 전달하는 북한인들이 북한 사회에 등장했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독일 등 23개국에 탈북자 2천여명 정착(2/18, 자유아시아방송(RFA))

-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정착한 한국 이외의 ‘제3국’이 전세계 23개국에 달하고, 그 숫자도 2천명 이상이라고 보도
- 방송은 유엔난민기구(UNHCR)의 자료를 인용, “1994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정치적 망명 등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자가 2천명을 넘어섰다”고 밝힘.
- 방송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유럽인데 독일,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10개국에 탈북자들을 받아들임.
- 독일에는 가장 많은 1천390명이 정착했고 영국은 1천여명, 기타 국가들은 10~40명이며, 미국에서는 2006년 이후 총 93명이, 캐나다에서는 2000년 이후 77명이 난민으로 인정함.
- 그밖에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예멘 등에도 탈북자들이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1만8천여명으로 알려져 있음.

● 북한서 가장 일반적인 주택은 ‘62㎡ 투룸연립’(2/19, 연합뉴스)

- 북한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거 형태는 방 두 칸의 50㎡(15평)~75㎡(23평) 연립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32평) 이상 주택은 전체의 1.9%, 방 4개 이상은 1.1%에 불과

- 19일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08년 북한 인구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주택 588만7천471가구 중 43.9%인 258만4천435가구가 연립주택이고 다음은 단독주택 198만8천415가구(33.8%), 아파트 126만1천709가구(21.4%) 순
- 농촌에서는 전체 230만7천845가구 중 단독주택이 59.4%(137만1천460가구)였지만, 도시에서는 357만9천626가구 중 49.5%(177만3천414가구)가 연립주택, 32.5%(116만4천767가구)가 아파트
- 특히 평양시의 경우 81만3천769가구 중 54.6%인 44만4천672가구가 아파트였으며, 크기에서는 73.5%인 432만5천378가구가 50㎡(15평)~75㎡(23평)이었고, 100㎡(32평) 이상은 1.9%(11만2천781가구)에 불과
- 방수는 2개인 경우가 64.7%(380만8천956가구)였고, 4개 이상은 1.1%(6만1천832가구)에 그쳤으며, 집안에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경우는 343만4천306가구(58.33%)였고 나머지는 재래식이나 공용화장실이었음.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비율은 농촌에서 특히 높아 전체 230만7천845가구 중 51.4%(118만6천722가구)나 됨.
- 석탄과 나무로 난방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도시의 357만9천626만가구 중 64.3%(230만395가구)가 석탄을, 농촌의 230만7천845가구 중 75.3%(173만8천283가구)가 나무를 사용

기타(대내 사회·문화)

- 영국문화원-북 합작, 김일성대 등 랭귀지 코스 개설(2/16, 국민일보)
- 북·중·러 접경지대 진도 6.7 강진(2/19, 매일경제; 동아일보 등)
- 北매체, 조동섭 축구 코치 띄우기(2/21, 우리민족끼리)
 - 오는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앞두고 북한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1일 올초 카타르 4개국 초청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이끈 북한 축구대표팀의 조동섭 코치를 '능력있는 감독'으로 치켜세움.
- 북한 간 '옛 은반황제' 야구단(2/21, 조선신보)
 - "최근 열린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에 국제 피겨계에서 이목을 모은 국내외 선수들이 많이 참가했다"며 "평양 시민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인물은 남자 피겨 명수인 러시아 야구단"이었다고 보도
 -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백두산상 피겨축전은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북한, 러시아, 스위스, 영국, 우크라이나, 프랑스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개최

2 대외

가. 일반

- **北, 駐中 대사에 국장급 첫 내정(2/16, 연합뉴스)**
 - 북한이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을 주중 대사로 파견해 오던 60년간의 관행을 깨고 신임 대사에 국장급 인사를 내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 베이징 소식통들은 “최진수 주중 북한 대사가 10년 만에 교체되고 후임에 최병렬 외무성 영사국장이 부임할 예정”이라면서 “북한이 이달초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한 만큼 이달 말 또는 3월께 부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함.

- **北, 민간외교 수장에 김정숙 임명(2/19,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민간외교를 전담하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허담 전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부인이자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의 책임주필인 김정숙(80)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
 - 주북 이란 대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8회 생일을 맞아 18일 마련한 연회의 참석 인사를 전하면서 김정숙의 직함을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으로 소개
 - 외무성과 함께 북한의 양대 외교기관인 대외문화연락위는 노동당 국제부의 지휘를 받아 비수교국의 정부나 민간인을 상대로 외교활동

기타(대외)

- 인도공산당 전국이사회 총비서, 2/5 自國駐在 北 립희성 대사 접견(2/12, 조선중앙방송)
- 北 외무성 대변인, 2/13 중통 기자회견을 통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訪中기간(2.9~13) “조-중관계, 평화협정체결, 제재해제, 6자회담재개 등 조선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문제 토의” 언급(2/13, 조선중앙통신)
- 이란 대통령, 2/10 自國駐在 北대사 서세평 접견(2/15, 조선중앙방송)
- 서재명 멕시코 駐在 北대사, 2/10 駐在國 인민사회당 중앙총비서 작별방문(2/18, 조선중앙통신)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駐멕시코 北 대사에 ‘안근성’ 임명(2/18, 조선중앙통신)

나. 6자회담(북핵)

● 美외교정책협의회, 김계관 방미 추진(2/19, 미국의 소리(VOA))

- 과거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공식 대화채널이 됐던 미국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가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3월 초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 ‘미국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 “NCAFP가 다음달 3일과 4일 뉴욕에서 김계관 부상이 참석하는 학술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아직 북한측의 최종 결정과 미국 정부의 승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함.
- VOA는 “김 부상의 미국 방문이 성사되려면 방미했을 때 미 관리와 양자 접촉 여부가 사전 정리돼야 한다”면서 “아직 미 국무부가 김 부상과 양자 접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 같고, 김 부상도 미 관리와 면담이 보장되지 않으면 뉴욕에 올 가능성이 낮다”고 말함.
- 한편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18일(한국시간) 현 시점에서 북한과 추가 대화 계획은 없으며, 김계관 부상의 다음달 방미추진설과 관련해서도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함.

3 대남

● 北, 군사실무회담 제의에 9일째 ‘묵묵부답’(2/21, 연합뉴스)

- 북한은 오는 23일 개성공단의 통행·통관·통신 등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 실무회담을 열자는 남측 제의에 대해 9일째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음.
- 한편 북한은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동·서해상 8곳을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했지만 아직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군은 설명

● 北신문, 北인권법에 대가 치를 것(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1일 최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값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힘.

- ‘대결광신자들은 무사치 못할 것이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측의 진지한 노력에 호응해 나설 대신 오히려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 못된 짓만 골라가며 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북한인권법을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노골적인 대결선언, 전쟁선언”이라며 “신성한 우리 제도, 우리 인민의 값높은 존엄과 인권을 함부로 걸고 들며 모독하는 대결광신자들은 절대로 무사할 수 없다”고 강조

■ 기타(대남)

- 북, NLL인근 방사포 전진배치(2/20, 중앙일보 등)
 - 사거리 60Km 240mm포 수십문, 서해 8곳 사격구역 지정

02.22-02.28

2월

4주차

1. 대내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전국기자언론인대회 개최(2/22, 연합뉴스)

- 북한당국은 22일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기자언론인대회’를 열고 “강성대국 건설에서 나팔수가 될 것”을 촉구
- 북한이 전국기자언론인대회라는 명칭의 대회를 연 것은 처음
- 약 5년 주기로 개최되는 조선기자동맹대회를 통해 언론인의 역할을 강조, 2001년 11월 기자동맹 8차 대회를 끝으로 언론인 관련 ‘대회’를 연 적도 없음.
- 북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대회 참석자들에게 ‘기자, 언론인들은 강성대국 건설대전의 진군나팔수이다’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내 “당의 사상과 의도, 노선과 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노선과 정책을 기준으로 출판보도활동을 벌이는 것은 언론건설의 첩칙이라며 “총진군의 나팔수가 돼야 한다”고 말함.
- 또 “당의 사상과 정책의 정당성, 영도의 현명성에 대한 선전”과 “우리 혁명과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언론전을 벌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업을 제시했다고 북한 언론은 전함.
- 김기남 노동당 선전담당 비서는 보고를 통해 “기자, 언론인들은 대고조의 제1나팔수, 대적 언론전을 벌여나가는 투사가 되며 붓과 마이크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 옹위할 것”을 촉구했고, 김기룡 노동신문 책임주필은 김 위원장에 대한 ‘위대성’ 선전에 주력할 것을 다짐
- 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중린, 김기남 비서와 출판보도 부문 일꾼들, 모범 기자·편집원·방송원들, 중앙과 지방의 당사상사업 부문 일꾼들, 조총련의기자언론인들이 참가

● 北중앙통신 사장에 김병호 임명(2/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사의 신임 사장에 김병호 부사장이 승진 임명
- 김병호 신임 사장은 최근 전임자인 김기룡 사장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 사장 겸 책임주필로 자리를 옮기면서 임명된 것으로 보임.
- 김기룡 전 중앙통신 사장이 노동신문 책임주필로, 김병호 전 부사장이 중앙통신 사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북한의 3대 언론기관 중 수장이 공식인 곳은 조선중앙TV의 상품광고로 차승수 위원장이 해임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만 남게 됨.

● **北 김정일, 설 이후 9일간 6차례 공연관람(2/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설(2/14) 이후 거의 매일 공연을 관람
- “김정일 동지께서 평양시내 대학생들의 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했다”면서, 이 예술소조에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김철주사범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건설건설재대학, 평양기계대학, 평양농업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 등 평양시내 대학들이 망라됐다고 보도
- 이 통신은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이하 보도날짜 기준) 은하수관현악단의 ‘설 명절 음악회’, 17일 10215군부대(국가안전보위부 대외 명칭) 예술선전대와 인민군 소속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18일 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21일 인민보안성 협주단 첫 공연을 각각 관람했다고 전함.

● **국정원, 김정일-현안해결에 초조감 피력(2/23, 연합뉴스)**

- (가족의존 늘어...얼굴에 얼룩 제거, 김정은-정책관여 단계로 발전, 화폐개혁으로 총체적 후유증 직면)
- 국가정보원은 2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신상과 관련, “유훈을 관찰하지 못했다는 자탄 등 현안 해결에 대한 초조감을 많이 피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힘.
 - 원세훈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며 “이런 현상으로 북한 내부 정책추진의 난맥상이 심화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한나라당 정진섭,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전함.

● **北, 탈북단속 대폭강화...함북 ‘도강지역’ 집중(2/23, 좋은벗들)**

- 걸어서 도강하기 쉬운 함경북도의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탈북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전함.

- “지난달 27일 중앙당이 가족 도주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함경북도의 중국 국경 지역에 대해 2월 한달간 집중 숙박검열을 한다는 방침을 시달했다”면서 “이에 함경북도 도당은 2월 들어 보안기관과 국경 경비대 합동으로 집중 검열을 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올해부터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도강자(탈북자)가 발생하면 소관 당 비서, 행정책임자까지 처벌을 받는다”고 보도

● **김정일 ‘상호주의’ 언급 10년만에 보도(2/24, 우리민족끼리)**

- 2000년 9월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과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면서 ‘상호주의’에 대해 “서로 배워주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우리민족끼리’가 24일 뒤늦게 전해 주목
- ‘금강산 관광길을 열어주시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0년여 전 당시 일화를 소개하면서 “(김 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공존, 공영, 공리를 해서 두 제도가 존재하는 연방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힘.
- 비록 10년 전 일이지는 하지만 김 위원장이 상호주의에 대해 다소 포용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북한의 언론매체를 통해 전해지기는 이번이 처음

● **北, 3·1절 맞아 日에 과거청산 촉구(2/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가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일본당국은 과거청산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여기고 그 해결에 한시바빠 나설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
- 대책위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제는 1919년 조선인의 평화적 독립시위를 말살하기 위해 10여만명을 학살하는 죄악을 저질렀고, 조선 민족을 상대로 일제가 저지른 갖가지 집단학살과 강제연행, 일본군 성노예범죄에 대한 원한은 오늘까지도 일본의 과거청산 회피 책동으로 풀리기는커녕 더 깊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

■ **김정일동향**

- 2/21 새로 조직된 인민보안성협주단 첫 공연 관람(2/21, 조선중앙통신)
 - 최태복·김기남(黨비서), 김경희·장성택(黨부장)·강능수(*前 문화상을 黨부장으로 임명), 주상성(인민보안상), 리병삼(인민보안성 정치국장) 등과 함께 관람

- 2/23 평양시내 대학생들의 예술소조 공연 관람 및 黨중앙위 名義「감사」전달(2/23, 조선중앙통신)
 - 최태복(黨 비서), 김경희(黨 부장), 주규창·이제강·이재일(黨 제1부부장들) 등 黨중앙위 책임간부들과 공연 관람

기타(대내 정치)

- 북, 당 선전선동부장에 강능수 임명한 듯(2/22, 중앙일보)

나. 경제

● 北, 위화도·황금평 개발권 中에 넘겨(2/23, 연합뉴스)

- 북한이 압록강의 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위화도와 황금평의 개발권을 중국 기업에 부여하는 등 본격적인 대외개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선양(瀋陽)과 단둥(丹東)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단둥과 접경한 압록강 섬인 위화도와 황금평을 자유무역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중국의 2개 기업에 각각 50년 임대 형식으로 개발권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짐.

● FAO, 北-식량 125만t 부족...외부조달 8% 불과(2/23, 미국의 소리(VOA))

- 북한은 올해(10월 결산 기준) 125만t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 4분기 3개월간 외부에서 들여온 물량이 전체 부족분의 8%에 불과, 올해 식량난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됨.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작황 전망과 식량상황’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외부로부터 확보한 곡물은, 직접 구매한 1만t과 외부에서 지원을 약속하거나 실제로 전달된 ‘인도주의적 지원’ 9만 1천t 등 모두 10만1천t”이라고 보도

● 北김정일, 상반기내 국가식량공급 정상화 지시(2/23,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상반기 안에 무조건 국가식량공급을 정상화하라고 지시했다고 ‘NK지식인연대’가 23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함.
- 지난달 말 평양에서 열린 ‘경제일꾼 협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해 상반기까지 국가식량공급을 정상화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국방위원

회가 북한내 모든 무역 기관과 외화별이 기관에 식량수입 확대 ‘명령’을 하달했다고 이 단체는 소개

● 모습 드러내는 北경제개발 계획(2/24, 연합뉴스)

- 북한이 다음달 중순 국가개발은행의 출범을 계기로 선보일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은 두만강개발 계획을 축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권 투자를 먼저 이끌어내고 서방국가들로 확대해 나간다는 게 골자로 보임.
- 두만강 하구 개발을 축으로 라진을 석유·천연가스 공급기지로, 청진은 제철·중공업·중기계 단지로, 그리고 김책·신의주·함흥·원산·남포 등을 지역 거점 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이라고 원산대풍국제그룹 관계자는 설명
- 특히 개발계획이 주력할 분야는 우선 철도·도로·항만·공항·전력·에너지 등의 사회간접시설(SOC) 건설과 농업부문인 것으로 알려짐.
- 조선대풍 관계자는 SOC 건설 계획은 시간을 두고 제시할 예정이며 농업부문은 유엔 기구 및 유럽연합(EU)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힘.

● 北국가개발銀 3월 중순 출범…자본금 100억弗(2/24, 연합뉴스)

- 북한은 두만강개발을 축으로 해 라선(라진+선봉)-청진으로 개발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의주·함흥·김책·원산·안주·남포 등의 지역 거점도시를 집중 개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의 이런 경제개발은 국가개발은행이 주도하되 이 은행에 외자를 유치할 조선대풍국제그룹이 집행기관 역할을 하게 될 전망

● 北·中 잇는 신 압록강대교 10월 착공(2/25, 연합뉴스)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지난해 방북 당시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신 압록강대교가 오는 10월 착공될 전망
- 중국 랴오닝(遼寧)성은 오는 10월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 인입 도로 공사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신 압록강대교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단둥(丹東)의 소식통들이 전함.
- 심양만보(瀋陽晚報)도 이날 “신 압록강대교 건설이 올해 단둥시의 중점 업무에 포함돼 있다”며 “10월 착공을 목표로 측량과 설계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

● 北, 외국인 ‘무현금 행표’ 사용 의무화(2/25, 미국의 소리(VOA))

-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인들의 외화사용을 금지한데 이어 ‘무현금 행표(수표)’ 사용을 의무화했다고 보도
- 지난달 29일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평양 주재 외교관과 국제기구 직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앞으로 외화 대신 ‘무현금 행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통고했다면서, 이 ‘무현금 행표’는 “현금과 맞바꿀 수 없고, 지정된 용도에만 쓸 수 있는 결제수단”이라고 설명
- 이에 따라 평양의 외국인들은 외화를 조선무역은행에 입금한 뒤 행표를 받아 각종 공과금을 내고 생활필수품을 사야 하는데, “집세와 식비, 난방비, 교통비, 연료비, 통신비, 전기와 수도사용료, 사무용품과 자동차 부품 구입비, 각종 등록비, 호텔 이용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방송은 밝힘.

■ 기타(대내 경제)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1월 계획을 공업총생산액 108.1%, 선철 101.5%, 강철 101.6%, 압연강재 103% 등 수행하며 “대고조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나가고 있다”고 고무추동(2/19, 조선중앙통신)
- 평양방직공장의 컴퓨터망에 의한 종합조종체계 완성, 선교편직공장 등의 내의류, 셔츠, 양말 본격 생산, 신의주화장품공장의 가루비누 생산 등 “北 경공업부문이 개술개건과 신제품 개발에서 혁신적 성과 이룩” 보도(2/23, 조선중앙통신)
- 北-中, 2/25 『압록강국경다리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2/26, 조선중앙통신)
 - 단둥시에서 北 박길연(외무성 부상)과 ‘오해룡’(中 외교부 부장조리) 협정문 서명
- ‘전국 농업대회’ 평양에서 개막(2/2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영일(내각 총리)·이용무(국방위 부위원장)·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곽범기·박명선·박수길(내각 부총리들, 곽범기 보고) 및 道黨 책임비서들·근로단체 일꾼 등 참가

다. 사회·문화

● 손소독제 20만ℓ 北전달...전염병예방 도움되길(2/23, 연합뉴스)

- 정부는 23일 오전 북한의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손소독제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
- 25t 트럭 25대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손소독제 10억원 어치(20만ℓ)를 나눠

- 신고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북으로 향함.
- 이번 지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해말 북한의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치료제 지원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직접적인 인도적 물자지원
 - 앞서 정부는 이번 대북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178억원 사용을 의결한 뒤 지난해 12월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40만명분과 리렌자 10만명분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음.

● 北, 미국인 관광객 체류 제한 풀어(2/24, 미국의 소리(VOA))

- 북한이 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문호를 계속 넓히는 가운데 최근 4박 5일간의 체류 기간 제한도 풀었다고 보도
- 북한 여행 전문인 미국 일리노이주 아시아태평양여행사의 위니 루 부대표는 VOA와 인터뷰에서 월터 키츠 대표가 지난주 방북해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앞으로 미국인 관광객들의 체류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함.

● 北, TV연속극 ‘봉산탈춤’ 제작(2/26, 조선중앙TV)

- 북한의 국가영화위원회 텔레비전극 창작단이 최근 TV연속극 ‘봉산탈춤’을 제작했다고 보도
- 3부작으로 구성된 이 연속극은 “남녀 주인공의 곡절많은 운명선을 통해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책동의 악랄성을 보여주면서 봉산탈춤을 민족의 재부로 되살린 ‘백두산 3대장군’(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업적을 극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고 전함.

● 北 밴쿠버 동계올림픽 첫 보도…노메달 함구(2/28, 조선중앙TV)

-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과 남자 피겨스케이팅 싱글에 단 두 명의 국가대표를 출전시킨 북한이 28일 올림픽 소식을 처음 전하면서 자국 선수들의 성적은 언급하지 않음.
- 조선중앙TV는 이날 8시 정규 뉴스 시간에 ‘국체 체육 소식’ 코너에서 밴쿠버 올림픽 일부 경기 결과를 전함.

● **中, 4월부터 북한 단체관광 전면 허용(2/28, 연합뉴스)**

- 중국이 오는 4월부터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한다고 무한만보(武漢晚報) 등 중국 언론들이 보도
- 그러나 북한 관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이 있는 여행사를 통해 단체 비자를 받아야 하는 등 수속 절차는 여전히 까다로움.

■ 기타(대내 사회·문화)

- 국가인권위, 탈북여성 인권침해 실태 조사(2/23, 세계일보)
 - 제3국 체류중 인신매매, 성폭력 시달려 등

2 대외

가. 일반

● **남아공, 지난해 11월 北 무기수출품 압수(2/23, 연합뉴스)**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해 11월 의심 화물을 실은 아프리카 중서부 콩고행 선박을 수색, 북한의 군용 T-54와 T-55 탱크 부품 화물을 압수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보고
- 지난주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화물의 운송업자는 북한 회사로 돼 있으며, 화물은 처음에 중국에서 선적된 뒤 말레이시아에서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의 선박으로 옮겨졌고, 선적서류상엔 “불도저 예비 부품”으로 기록돼 있었음.
- 압류한 북한의 탱크 부품이 중국 다롄(大連)항에서 선적된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월 스트리트 저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데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중국 역할의 이슈화에 나섬. 이와 관련,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중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알고 있으며,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더 이상 언급은 피함.

● **北외무성 대표단, 러시아 방문(2/27, 조선중앙통신)**

- “궁석용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평

양을 출발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과 방문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최근 북한과 중국이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교차방문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외무성 대표단은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 등을 러시아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임.

■ 기타(대외)

- 루마니아 외무성 대표단,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 2/23 평양 도착(2/23, 조선중앙통신)
 - 루마니아 외무성 대표단, 2/25 평양 출발(2/25, 평양방송)
- 세계보건기구 보조총국장(에리크 라로쉴), 2/23 평양 도착(2/23, 조선중앙통신)
 - 만경대와 국제친선전람과 참관(2/25, 조선중앙방송)
- 中, 北에 세습반대·개방·핵포기 압력(2/23, 아사히신문)
 - 중국이 작년 5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 직후 북한에 개혁개방, 세습반대, 핵포기 등을 요구했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베이징발로 보도
- 北김영일 당 국제부장 베이징 도착(2/23, 연합뉴스)
 -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가 김 국제부장을 영접/김 국제부장을 포함한 북한 노동당의 방중 대표단은 13~1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임.
- 北김영일, 中동북서 잇단 ‘경협 행보’(3/1, 연합뉴스)
 - 료오닝 이어 지린 방문…압록강·두만강 합작개발 논의

나. 6자회담(북핵)

● 北, 평화협정·비핵화 동시 의제화 주장(2/26, 연합뉴스)

- 북한이 6자회담에서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의제화해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 소식통은 “지난 9~13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중 협의에서 북한이 그 같은 입장을 내놓았으며 조건이 수용되면 6자회담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함.
- 북측이 그간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해왔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약간의 태도변화가 있어 보임.

- 중국은 지난 9~13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중을 통한 북·중 회담에서 북측이 전한 이런 메시지를 23~25일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전달하고 ‘조정’을 위한 기초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은 일단 평화협정에 대한 북한과 한·미 간 ‘간극 좁히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北 2004년 美핵전문가에게 플루토늄 공개(2/26,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004년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권위있는 핵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교수에게 플루토늄을 직접 보여주며 자신들의 핵능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나타남.
- 로스 알라모스 미 국립핵연구소장을 지낸 헤커 교수는 지난 13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미국물리학회 세미나에서 자신의 방북경험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런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확인
- 미국물리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발표요지에 따르면 그는 2004년 1월 방북 당시 영변 재처리 시설내 추운 회의실에 앉아있던 중 북한의 기술자로부터 “우리는 핵역지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을 들었으며, 헤커 교수가 미심쩍은 표정을 짓자 북한 기술자들은 “우리가 생산한 것이 있는데 한번 보겠느냐”고 의향을 물었고, “플루토늄을 말하는 것이냐”는 헤커 교수의 관심표명에 대해 “맞다, 그거다”라고 답한 뒤 잼용기와 같은 병에 담긴 플루토늄 샘플을 가져다 보여 줬다는 것
- 헤커 교수는 이들 물질의 무게와 온기를 파악해 진짜 플루토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 기술자들의 허락을 받아 200g의 플루토늄이 담긴 용기를 들어 본 결과, 방사선으로 인해 온기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플루토늄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함.
- 그는 또 지난달 발표한 ‘북한 핵위기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1,2차 핵실험 결과로 미뤄볼 때 북한은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탄급 위력을 지닌 단순한 형태의 플루토늄탄을 만들 능력이 있으며, 현재 그같은 초보적인 핵무기를 4-8개 정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힘.

기타(6자회담(북핵))

- 6자회담 당사국 ‘빨라지는 행보’(2/24, 경향신문 등)
- 위성락-보즈워즈 방중, 우다웨이와 회동/북 김영일도 방중...‘회담 재개’ 외교전

3 대남

- **北, 키 리졸브 연습 강행시 군사적 대응(2/25,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 북한이 내달로 예정된 한·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에 대해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공격하기 위한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강행시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2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연습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받아 나갈 것”이라면서 “필요시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공격 및 방어 수단을 동원해 침략의 아성(중심부)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형체없이 만들) 것”이라고 밝힘.
 - 한미연합사령부는 유사시 한국 방어 목적의 작전훈련인 연례 ‘키 리졸브’ 연습을 3월 8~18일 남한 전역에서 실시할 예정

- **北, 불법입국 南주민 4명 단속-조사중(2/26, 조선중앙통신)**
 - 중앙통신은 “최근 해당 기관에서 우리 공화국에 불법 입국한 남조선 주민 4명을 단속했다”며 “단속된 남조선 주민들은 현재 해당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으나 남한 주민들의 신원과 입북 경위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음.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온 이후 정부가 가진 방법을 동원해 평양과 금강산, 개성과 기타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체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북측 발표와 관련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함.
 - 정부가 북한에 체류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우리 주민은 26일 오전 현재 개성공단 983명, 금강산 46명, 평양 8명(대북 지원단체 월드비전 대표단), 해주 모래채취 인원 17명 등 총 1천54명
 - 정부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의 남한 주민 체류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어, 북한이 ‘단속해 조사중’이라고 밝힌 남한 주민이 이 ‘1천54명’에서

나왔을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임. 현대아산 관계자도 “오늘 오전 금강산과 개성 현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측 인원의 변동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북측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중 접경지역에서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함.

- 북한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중 국경을 통해 남한 주민이 불법 입북한 경우 조사를 거쳐 중국쪽으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 입국’이라는 표현을 쓴 중앙통신의 보도 태도로 미뤄 사건이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

● **남북실무접촉, 3월 2일 개성 개최(2/28, 연합뉴스)**

- 남북은 28일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온 군사실무회담을 형식을 바꿔 남북실무접촉 방식으로 다음 달 2일 개성공업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국방부는 이날 “남북이 군사실무회담 개최를 위한 절충을 벌인 결과 3월2일 오전 10시 개성공업지구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기로 합의했다”며 “우리측은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 총괄과장을 수석대표로 국방부 소속 중령급 실무자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참석할 것”, “수석대표가 통일부에서 나가는 만큼 회담은 군사실무회담이 아니라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이라고 밝힘.
- 북한은 22일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군사실무회담을 3월2일 개성공업지구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열자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온 바 있음.

■ **기타(대남)**

- ‘무엇을 노린 인권법 조작책동인가’ 題下 南 국회 『外統委』의 ‘북 인권법’ 통과 관련 “북남 대결을 목적으로 한 대결선언”이라고 再次 경고(2/24, 평양방송)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2월

북한동향 일지

<1월 일지>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1월 01일	김정일 위원장, 만수대에예술극장에서 은하수관 현악단의 신년경축음악회 관람	중통(1/1)
1월 02일	김일성 광장에서 『새해공동시설 과업 관철 평양시 군중대회』 진행	중방(1/2)
1월 03일	김정일, 희천발전소 방문	
1월 04일	김정일, 재령광산 현지지도	중통(1/4)
1월 05일	김정일, 근위 서울 류경수 제 105탱크사단 관하 구분대 시찰	중방(1/5)
1월 06일	1/5故박기서 영전에 화환 전달	중방(1/6)
1월 07일	김정일, 예성강청년2호 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중통(1/7)
1월 08일	평안북도남포시, 17 신년 공동시설 관철 위한 군중대회 진행	중방(1/8)
1월 09일		
1월 10일	김정일, 평남 평원군 남산리 거주 『류남호』 할머니에게 100돌 생일상 전달	중방(1/10)
1월 11일	김정일, 새로 꾸러진 '강동악전기구공장' 현지지도 北 장춘근 駐인도네시아 대사, 1/11 駐在國 인민협상회의장 의례방문	중통(1/10) 중방(1/16)
1월 12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313대연합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돼지공장 현지지도	중통(1/12)
1월 13일	김정일, 평양역 등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 종업원들에게 『감사』 전달	중방(1/13)
1월 14일	김정일, 평양시 만경대구역 당상1동 유남호 할머니에게 100돌 생일상 전달	중방(1/14)
1월 15일	김정일, 제534군부대 산하 10월 7일 돼지공장 현지지도 김정일 위원장, 1/15 통일애국투사 손성모의 80번째 생일상 전달	중통(1/15) 중방(1/15)
1월 16일		
1월 17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훈련 참관	중방(1/17)
1월 18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중통(1/18)
1월 19일		
1월 20일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 인류진화발전사 연구사 등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중방(1/20)
	김정일, 철도과학분원 철도차량연구소 과학자들의 '축받이' 재료 연구 완성	중방(1/20)
	과일을 생산에 도입한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기술자-노동자들에게도 『감사』 전달	중통(1/20)
	김정일, 흥남제련소와 흥남대흥수산기업소·서중수산사업소 현지지도	중통(1/20)
1월 21일	김정일, 1/20故 옥봉린(黨중앙위 후보위원, 김일성정치대학 연구사) 영전에 화환 전달 김정일, 1/20故 옥봉린(黨중앙위 후보위원, 김일성정치대학 연구사) 영전에 화환 전달	중통(1/21)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1월 22일	김정일, 국립민족예술단 공연 관람	중통(1/22)
	김정일, 조인각 노인(평양시 대동강구역 거주)에게 100살 「생일상」 전달	중방(1/24)
1월 23일		
1월 24일	김정일, 새로 건설된 법정과 중앙재판소 청사 현지지도	중통(1/24)
	김정일, 평양밀가루공장 및 용성식료공장 현지지도	중통(1/24)
1월 25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567대연합부대 돼지공장 현지지도	중통(1/25)
	김정일,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및 낙원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1/25)
1월 26일	김정일, 9월제철종합기업소와 덕현광산 현지지도	중통(1/26)
1월 27일	김정일, 평안북도내 새로 건설된 도로 시찰	중통(1/27)
1월 28일	김영남, 이디오피아 비행기 추락사고 관련 대통령에게 위문전문	중통(1/28)
	駐北 베트남대사, 북-베트남 외교관계설정 60돌 즈음 연회 마련	중통(1/29)
1월 29일		
1월 30일	김정일, 개건된 향산호텔(묘향산 소재) 현지지도	중방(1/30)
1월 31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청년기동선전대 공연 관람	중방(1/31)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중통(1/31)
	김정일 위원장, 北-베트남 외교관계 설정 60돌 즈음 1/31 베트남 공산당총비서 '농 득 마잉'에게 축전	중통(2/1)

〈2월 일지〉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2월 01일		
2월 02일	김정일, 베트남 공산당 창건 80돌 즈음 '농 득 마잉' 총비서에게 축전	중통(2/2)
2월 03일	김정일, 함경남도 금야군 '원평대흥수산사업소' 현지지도	중통(2/3)
2월 04일		
2월 05일	김정일,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 공연 관람	중통(2/5)
2월 06일	왕자루이 부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대외연락부 대표단 평양도착	중통(2/6)
2월 07일	김정일, 현대적으로 꾸러진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2/7)
2월 08일	김정일, 왕자루이 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 접견 및 만찬	중통(2/8)
2월 09일	김정일, 윤능배(만경대구역 거주)노인에게 100살 생일상 전달	중통(2/10)
2월 10일	박이춘 외무상, 유엔사무총장 특사일행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중통(2/10)
2월 11일	김영남, 유엔사무총장 특사 「비 린 파스코」 정치문제 담당 부사무총장 일행과 담화	중통(2/11)
2월 12일	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길이 빛나라 불멸의 영도자육이여' 준공식	중통(2/12)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2월 13일	제 19차 백두산상 국제취거축전 참가 러시아,스위스,프랑스 선수들 평양 도착	중통(2/13)
2월 14일		
2월 15일	김정일, 은하수관현악단의 설명절음악회 관람	중통(2/15)
2월 16일	김정일 생일 경축 중앙보고대회, 4.25문화회관에서 진행	중통(2/15)
2월 17일	김정일,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	중통(2/17)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 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중통(2/17)
2월 18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 963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중통(2/18)
2월 19일	駐北 러시아 대사, 2.18 김정일 생일 관련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	중방(2/19)
2월 20일	김정일,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방(2/20)
2월 21일	김정일, 새로 조직된 인민보안성 협주단 공연관람	중통(2/21)
2월 22일	김정일, 평양시내 대학생들의 예술소조 공연 관람	중통(2/22)
	김정일,故윤광섭(평양교예단 인민배우) 빈소에 화환 전달	중통(2/22)
2월 23일	北노동당 중앙위 국제부 대표단(단장 : 김영일 부장), 訪中차 평양 출발	중통(2/23)
2월 24일		
2월 25일	北 軍총참모부 대변인, 2/25 韓-美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연습에 대한 담화발표	중통(2/25)
2월 26일	김정일, 심영애(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 등에게 80회 「생일상」 전달	중방(2/26)
2월 27일		
2월 28일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